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단위에서 청소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청소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결과적인 차원에서의 양적인 진단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수립과 수행, 그리고 평가의 전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자 서비스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관심과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그들의 기대와 가치에 부응하는가가 지방자치시대의 정책의 효과와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결정이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은 정책결정의 수혜자인 청소년 자신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입함으로써 정책결정이 보다 청소년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게 되도록 도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거주민으로서의 관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 부담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참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집권적 관료행정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청

소년들의 참여에 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으며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선거에 참여할 나이가 안되어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느 집단 보다는도 정책과정에서 무시되어온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태어나서 그 곳에서 성장하며 문제가 발생한 곳이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도 바로 그 지역사회이며, 또한 청소년들이 그동안 역사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는 점들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크게 전환되어 지구촌내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집단은 사회에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소비계층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계층이며, 이들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직접 일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도 이상적인 계층이지만 현 단계에서 “아직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일 뿐이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 요구, 그리고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토랜스시의 ‘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나 영국의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와 같은 공식적인 청소년조직을 통한 청소년참여 형태는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에 대해 조언과 비평 등 직접적인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¹⁾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욕구와 부담,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참여를 통해 얻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으며, 정책집행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정책집행에 추진력과 탄력을 얻게되며 정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게 되는 등 다양한 정책강화 효과를 얻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 참여확대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청소년시책 모니터단’, ‘청소년구정평가단’,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 ‘청소년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 참여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 아래 청소년들이 지방의 청소년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경우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행정예의 시민들의 참여행위이며, 지방의 청소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청소년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획하

-
- 1) 토렌스 청소년위원회의 경우는 철저히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다른 시정부 위원회와 똑같은 자문단체 권한을 가지고, 청소년행사 기획·진행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정책결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원영준, “미국 청소년의 지역사회 및 정책결정 절차 참여”, 원정웅 외,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pp.147~149 참조

고 시행하는 쪽과 그 대상이 되는 쪽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준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철저한 사전작업없이 조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므로 여러가지 주관적·객관적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역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예측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정책을 자율적으로 계획·수행·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정책과정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주체적인 참여를 일상화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한 국내·외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추출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 수준과 운영실태에 비추어 청소년 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을 알아보고,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의식과 여건을 파악함으로써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형태와 수준의 청소년참여 방법과 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1)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연구

연구의 첫째 내용은 청소년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인

검토로서 현재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그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활동이 촉진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개관한다. 특히 정치·사회적 배경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행정체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며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어떠한 변화와 지향이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어떤 의의를 갖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에 관한 세계적 동향은 청소년집단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주대상이면서도 모든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어 오고 단순히 보호받고 지도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청소년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기획·수행·평가의 전과정에 일정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집단도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집단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여러 가지 참여유형과 수준에 대해 알아본다. 청소년참여에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에 하나의 권한을 갖는 존재로서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 참여 형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참여, 사회적 참여 등 여러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의 개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소년사업과 정책수립에 청소년이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참여형태와 수준을 규정한다.

2) 청소년의 참여 의식과 실태 분석 및 참여여건 진단

청소년참여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수준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선인가에 대해 판단해야한다. 이를 위해 참여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청소년업무 운영에 관한 객관적 여건을 파악하여 현실가능한 청소년참여방안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청소년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참여활동 분야와 수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참여현황,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의 실태 등을 분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방법과 청소년대표기구의 운영방안, 청소년창안제의 발전방안 및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등이 주요내용이 된다.

정책과정에 청소년들의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체계 내에서 어떠한 행정적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법적·제도적인 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분석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방자치행정체계와 운영실태를 고려한 청소년참여 추진을 위한 제도화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이는 제한적이거나 청소년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에 대한 개별자문을 통해 추론된다.

3) 국·내외 청소년참여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추출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참여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의 적절한 형태를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볼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은 일차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그리고 문서자료로 포착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은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한 분석과정을 거쳐 확인하게 된다.

첫째, 국내에서 시행중인 청소년참여사업의 운영현황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참여사업을 시행하게 된 요인(내부요인, 외부요인), 시행방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시행을 통해 얻은 효과, 시행경험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점 등을 알아본다. 여기에는 청소년시책모니터단,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충남), 대전사랑토론회(대전시), 청소년시책 아이디어 공모(과천시), 청소년구정평가단(서울시 송파구), 청소년의회학교, 청소년위원회(결스카우트), 녹색봉사단, 청소년토론의 광장, 청소년기자단(YMCA), 21세기 선발대사업(민간기업) 등이 주요사례로 소개된다.

둘째,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참여사업의 운영현황을 알아본다. 관련사업의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청소년위원회”와 같이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참여기구의 경우, 해당 국가의 독특한 사회적 상황과 행정적 특성 등 제도의 시행동기와 배경, 그리고 기구의 역할과 조직체계, 법적·행정적 위상, 기구의 구성방법과 구성과정, 구성원들의 자격과 역할, 효과와 문제점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청소년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토랜스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 및 사법재판소가 아닌 청소년대표들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소년법원(Youth Court), 영국의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지역청소년위원회(Local Youth Council), 밀턴케인즈 청소년 포럼(Milton Keynes Youth Forum), 햄프셔 청소년위원회(Hampshire Youth Council), 네덜란드의 마두로담시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 프랑스의 청소년자문위원회(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일본의 고교생주장대회 등이 주요 사례로 고찰된다.

4) 다양한 청소년참여 방안의 모색

청소년참여에 대한 의식과 실태 분석과 사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참여 방안을 모색해본다. 아무리 참여제도

의 공개성을 높이더라도 특정한 참여제도는 필연적으로 참여의 대상, 절차 등에서 제한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므로 한두 가지 참여제도 만으로는 다양한 계층 또는 집단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생청소년 외에도 근로청소년,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다양한 하위계층과 집단이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참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와 수준의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입장에서의 참여방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점들, 즉 공개행정 및 홍보전략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정책들을 조사·검토하여 청소년들의 지위와 입장에 맞게 변형·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참여방안을 모색한다.

5) ‘청소년대표위원회(가칭)’ 구성·운영방안 모색

청소년참여는 소극적이고 비조직적인 참여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까지 다양한 형태와 수준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중에서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청소년자치조직이 있어 청소년들은 이 조직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과정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청소년활동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강화 효과를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일정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참여제도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 그 구성·운영 방안을

모색해 본다. 청소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과 지역행정체계의 개선, 그리고 참여주체가 될 청소년들의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국내·외의 유사한 사업 사례조사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적용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 3 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계,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역의 역할, 주민참여, 청소년 집단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등에 관한 선행연구물을 검토하고 청소년참여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자문회의

교수, 청소년단체 및 시설 관계자, 행정기관 청소년업무 담당자 등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의의, 우리실정에 맞는 청소년참여의 수준,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개별자문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사례조사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청소년참여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는 청소년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낸다. 각 사례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참여관찰 및 면접

조사를 병행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각 사례별로 참여제도의 시행동기 및 지역여건, 운영목적과 의의, 운영내용 및 시행방법,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효과,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자료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사례는 97년 3월~4월에 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시설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참여활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현지조사하였으며 도지사와의 대화, 청소년모니터 제도 운영 등 일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7월~8월 사업시행일에 맞추어 연구자가 직접 동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국외 사례에 대해서는 6월~7월에 사전 수집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관련 사업을 조사하고 서신교환을 통해 세부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청소년참여사업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청소년위원회 활동(유타 주), 영국의 지역청소년위원회(험프셔 지역 청소년교구위원회) 및 유럽연합의 청소년위원회(Council of Europe), 청소년포럼(Youth Forum)등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하였다.²⁾

4) 설문조사

청소년참여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수준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참여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청소년참여의 개념, 필요성, 의의, 적절한 형태, 현실태, 참여가 필요한 부문, 참여과정의 문제점, 활성

2) 외국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 IV장에서 소개되며 자료 수집과 면담을 통해 알게된 주요한 내용은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별도 발간된다.

화방안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1997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인문계 고교생 600명(남 350, 여 250)과 실업계 고교생 400명(남 200, 여 200) 등 서울 지역 고교생 1,000명(남 550, 여 450)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의뢰 결과 총 993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적당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88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표 I-1> 조사대상별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 별	남자	534	54.5
	여자	445	45.5
연 령 별	만 18세 이상	256	26.6
	만 17세	481	49.9
	만 16세 이하	227	23.5
학 교 계 열 별	인문계	583	59.4
	실업계	398	40.6
지역거주기간별	10년 이상	459	46.9
	10년 미만	520	53.1
거 주 지 역 별	한강 남부	554	56.6
	한강 북부	424	43.4

조사내용은 크게 일반적인 참여의식과 실태,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방안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참여의식과 실태를 알아보는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참여의 개념과 수준,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청소년참여의 가능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그리고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참여형태 중에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 필요성, 가능성, 현황 등을 알아보고 청소년대표위원회나 청소년창안제 및 그 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과정 참여방안에 대해 가능성과 활성화방안 등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 참여활동과 관련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참여의식과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제 II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소년참여의 촉진

청소년육성에 관한 최근의 세계적 동향으로 주목할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여러 국제회의에서 ‘청소년참여’가 주요 테마로 논의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다.

이미 유엔은 1985년을 세계청소년의 해로 정하면서 평화(peace), 발전(development) 참여(participation)를 그 주제로 채택하여 청소년에게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해가고자 하는 희망을 제시한 바 있다. 유럽청소년각료회의에서도 지금보다 10년 앞선 1988년에 국가와 지방 레벨에서의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참여”를 선택한 바 있다.

“청소년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하여,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여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한, 일과 가정, 여가나 교육, 인간관계 등 모든 의미에서 의사결정의 분야로부터 청소년을 참여시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참여는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청소년기관 단체는 청소년과 정부 기관의 사이에 있으며,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쌍방을 연결시켜 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당시 회의의 결론이었다.³⁾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참여”의 개념이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며 지금의 논의는 “오래된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는

3) Manfred Heger, 독일에서의 청소년의 사회참가 현상, 日本 總務廳, 東京都, (社) 青少年育成國民會議 편, 青少年健全育成中央 フォーラム [青少年 21世紀を擔う者:社會參加の 現状と促進策を探索], 1992, pp.23~41 참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세계는 청소년화(juvenilistic)되어가는 사회적 구조가 청소년들의 문제나 욕구에 적절히 배려하지 못함으로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의 반항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출현(emergence of youth)이라는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였다. 기성세대, 전통적 가치관, 산업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그 무엇을 추구함으로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의 장에서나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과 주체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이 사회개발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힘(youth power)이 커지게 되면서, 1980년대에는 10개년 발전을 위한 유엔의 발전전략 위원회는 “모든 나라는 발전을 위해 청소년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고 동력화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권고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발전계획은 1985년을 ‘참여(participation), 발전(development), 평화(peace)’를 주제로 한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더욱 명료화 되었다.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 국가,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과정에 효과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참여를 촉진하는 세계적인 흐름은 1990년대에 더욱 가속화 되는데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아젠다 21(Agenda21)⁵⁾을 채택하며 ‘각국은 청소년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 집단간·정부간 대화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아젠다21의 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여 청소년 집

4) UN, “The situation of youth in the 1980s and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the year 2000”, 1986

5) UN 지속개발위원회, “외제21 :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1992

단을 발전과정의 협력자로 규정하게 된다.⁶⁾

1996년 10월 22일~26일 북경에서 열린 아·태지역회의의 결과 작성되어 유엔 세계청소년포럼에 보내어진 “아·태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북경선언(Beijing Statemen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Youth in Asia and the Pacific)”에서는 청소년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선 목표집단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개발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교육, 보건, 고용, 참여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2000년대까지 실행 가능한 행동제안을 이끌어 내었다. ‘참여’ 영역에서는 국내청소년과 관련정책의 기획·실행·평가에서 청소년 참여 분석을 통해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청소년참여지표(Youth Participation Indicator : YPI)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참여지표의 합의된 목록의 공식화, 청소년참여지표에 의한 국내상황 조사분석, 국내 경험 정보교환, 청소년참여지표를 감시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고려하기 위한 국내 워크숍과 지역회의 개최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책결정과 개발과정에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화된 행동토대로서 국내 청소년 협력구조의 확립과 강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몇가지 활동들로 국내 비정부청소년협의회나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아·태지역 각국과 지역내에서 국내 정부부서간 협력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지역내 국내청소년프로그램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보급 등을 제안하였다.

1996년 11월 25일~2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주최 ‘세계청소년포럼(World Youth Forum)’⁷⁾에 150개국의 순수민간단체와 정부기관 그리고 청소년대표자들 400명이 참여하여 청소년을 바

6) 권정웅, “지구촌환경문제와 청소년참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22집,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년 가을, 참조

7) UN, Report of the World Youth Forum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1996

라보는 시각을 재조명하고 이에 관련한 연합청소년사업프로젝트를 통해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범 세계적 청소년사업의 실행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포럼 결과 채택된 사항들은 보고서로 작성하고 통신망 구축을 통해 공유되는데, 청소년정책,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청소년훈련프로그램과 범 세계적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을 바탕으로 포럼의 12개 분과가 각각의 프로젝트를 제기하였다. 그 중 11분과인 “청소년참여와 청소년 권리” 분과에서는 총회와 각종 회의에 청소년이 국민 대표로 참석해야 함과 아울러 유엔 청소년권리헌장을 작성하고 총회 특별청소년기자단을 선정하여 3년 동안 청소년 인권을 모니터 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은 청소년조직 대표자를 포함해 자유로이 여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부는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인권 분야 훈련 지도자를 위한 훈련과정 설치와 청소년 참여와 권리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자료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측면에서는(아동 :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자신의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특히 1989년 유엔 총회가 세계 각국이 적용해야 할 사회적·법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한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⁸⁾은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조약은 1924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제네바 어린이 권리선언’ 이래 65년 만에, 그리

8)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1997.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정부 축의 번역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인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는 인권 조약의 권위와 이행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협약’ 대신 ‘조약’이라는 단어를, ‘아동’이라는 단어가 전체 대상을 포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조약 이름에 ‘어린이·청소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참고한 자료에 의거,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으로 표기한다.

고 1959년의 ‘유엔 어린이 권리선언’ 이래 30년 만의 일이다. 이는 유엔 총회에서 투표없이 전폭적 지지로 채택되었고 다른 조약보다도 호응 회원국이 많은 조약으로 1996년 8월 현재 세계 187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비준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여, 이제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의 권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조약’이 되었다. 이 조약은 5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약의 방향은 어린이의 보호에서 어린이의 평등과 자율성 존중으로, 양육의 대상에서 자결권이 있는 어린이로, 그리고 복지를 위한 어린이 권리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어린이 권리로 전환하고 있다.

조약의 실제적 권리의 내용(제6조~41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줄 모든 사안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제12조로서 이 권리는 사법, 행정 절차에서 어린이 의견의 청문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 반대권 등 어린이의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 교육현장에서도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칙을 적용할 때 학생의 소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15조), 그리고 사생활의 존중(제16조)은 기본적으로 어른과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 원칙과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조항인 셈이다.⁹⁾

청소년참여의 세계적인 촉진 동향은 특히 청소년정책과 실천, 이론과 실제 등의 측면에서 보면, “① 청소년의 잠재력과 자기개발의

9)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국제사회의 흐름보다 훨씬 더 이전의 ‘어린이 권리선언’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일제시대 때 소파 방정환선생이 색동회를 만들고 1923년 5월 5일을 어린이의 날로 정하고 일종의 ‘어린이권리 선언문’ 성격을 갖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 최초의 어린이 권리 선언문인 ‘제네바 어린이 권리선언’이 채택되기 1년 전의 일이다.(한겨레신문, 1997년 5월 2일자 12면 참조)

육을 평가하는 긍정적 시각의 확대, 즉 “문제로서의 청소년”으로부터 “잠재력으로서의 청소년”으로의 시각 전환. ② 청소년의 역사적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청소년들의 참여사례 확대. ③ 기성세대의 성인중심에서 청소년중심으로의 인식변화. ④ 청소년정책의 발전동향에서의 청소년우위의 관점제고. 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경험확대”를 강조하는 등의 방향으로 청소년지도의 개념과 실제적 경향의 변화추세. ⑥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참여행정의 강조 경향. ⑦ 청소년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인권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⁰⁾

이렇게 볼 때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청소년참여’가 확대되고 또 논의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세계적 경향은 이미 매우 높은 참여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 요구, 그리고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대표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기회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청소년방송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대표자가 참여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 토렌스시의 ‘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나 영국의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와 같은 공식적인 청소년조직을 통한 청소년참여 형태는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에 대해 조언과 비평 등 직접적인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천정웅,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과제”, 1997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재 별책본 pp. 1~5 참조.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욕구와 부담,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참여를 통해 얻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으며, 정책집행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정책집행에 추진력과 탄력을 얻게되며 정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게 되는 등 다양한 정책강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중앙집권적 관료행정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참여에 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으며 청소년들은 단지 보호 또는 선도의 대상으로서만 취급당해 왔다. 또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선거에 참여할 나이가 안되어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느 집단 보다도 정책과정에서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어 왔다.¹¹⁾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 참여확대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청소년시책 모니터단’, ‘청소년구정평가단’,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 ‘청

11) 재산에 따른 차등 투표를 철폐하고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허용한 뒤 몇살부터 투표권을 줄 것인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보통선거 확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들은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사회통합의 확대 등에 발맞춰 선거권 하한선을 만 18세로 잡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가 세계 37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나라는 미국, 독일, 스웨덴, 브라질, 엘살바도르, 칠레,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터키, 태국 등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 핀란드,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이집트, 케냐 등은 법률 등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전세계적으로 약 70 개국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인도네시아는 각기 15세와 17세가 선거권 연령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두 곳 만이 20세와 21세로 20세인 우리나라 보다 높다.(한겨레신문, 1997년 5월 24일자, 12면 참조)

소년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청소년 참여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제 2 절 청소년참여의 개념적 특성과 의의

1. 청소년참여의 개념

참여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능동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청소년들에 관한 한 우리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족 활동, 스포츠 클럽, 청소년 조직, 훈련 또는 작업, 달리 말해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조직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분담된 책임, 적극적 관여이다.

이 점에서 우선 참여라고 하는 것은 협의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임을 알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는 개인의 역할 정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특유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체제에 따라 의미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참여는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과정에 민주적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역 청소년 정책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참여와 사회적 의미에서의 참여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카스텐미러(Castenmiller)는 정치 참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목표를 둔 시민의 매우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 사회 참여는 공식적, 정치적 과정보다는 이를테면 이웃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제도 또는 작업환경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된다.¹²⁾

1960년대 이후 성인들에 의한 적극적 사회참여는 여러 서방 국가들의 경우 주요 사회적 정치적 주제가 되어 왔다. 이것은 다양한 집단들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의사결정에 보다 목청을 높이는 민주화 과정과 관련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여러 국가에서 공공참여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권한과 자금을 지방 분권화함으로써 제도와 대중들 사이에서의 간격을 좁히려고 시도하는 것도 한 예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성인의 참여가 그동안 진전되어 왔던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개념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맥락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민권의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로저 하트(Roger Hart)는 참여를 기본적인 시민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시민의 생활과 시민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¹³⁾ 그것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수단이며,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유럽 지역 청소년 정책보고 회의에서 청소년 참여는 ‘업무와 책임을 떠맡고 자율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포함, 허용, 권장되는 청소년의 권리’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가 실제로는 하트(Hart)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강조점은 전혀 다르다. 하트(Hart)는 청소년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 유럽 보고서를 통해 민주적 교육의 측면을 크게 강조한다. 그 보고서는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능력의 확장을 즉시 초래하지 않는 교육적인 청소년 정책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기존 사회 구조에 청소년을 통합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여가 활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경

12) Castenmiller P, Politieke participatie en politieke vorming. pp. 61~78 in M. de Winter,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 Radcliffe Medical Press, 1997, p.24에서 재인용

13) Roger A. Hart,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olence, UNICEF Innocenti Essays, 1992, p. 5

힘에 비추어 지적한다. 구 소련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데 당시 허용된 유일한 청소년 조직(Komsomol)에의 참여는 공산주의 체제의 원리에 따라 청소년을 사회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 또한 같은 원리에 따라 활동했다.

그러나 참여는 청소년을 통제에 복종시키기 위해, 달리 말해 그들의 능력을 중화시키기 위해 덜 극단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에서 사용될 수 있다. 푸코(Foucault)를 인용하면서 그 보고서는 엄격한 규율에 따른 ‘숨겨진 교과 과정’은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을 위한 조직화된 레저 활동들이 도덕성과 훌륭한 행동을 함양하기 위한 보다 은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이 접근법의 결과는 규율 상의 참여 제도 아래에서 자라난 동구 청소년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게 각종 청소년 정책은 의심스럽고 비난할 만한 것이다. 결국 유럽 보고서 작성자들에 따르면 진정한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의 제공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의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방식, 그들의 삶의 조건, 그들을 향해 추구되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권의 개념은 지난날의 보수주의적 색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만, 오늘날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바람직한)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된다. 다렌도르프(Dahrendorf)는 시민권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부여의 총합’이라고 설명한다.¹⁴⁾ 권리는 ‘일상적인 정치의 변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권리’이며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시민권으로 구분된다. 투표권과 피선거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전자의 예이고, 사회적 서비스,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은 후자의 예이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 아동 그리고 정신 질환이나 범법 행위 때문에 시민권이 일시적으로 박탈된 사람들은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다. 그

14) R. Dahrendorf, *Burgerschap : het nieuwe vraagstuk* p.7 in M. de Winter,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 Radcliffe Medical Press, 1997, p.28 재인용

들의 시민권은 주로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리에 반해서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납세 의무 등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지만 ‘초보 시민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시민권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는 사회적·교육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형성 과정에 있는 시민들이며 따라서 그러한 시민권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점차로 이러한 관점은 어느 정도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UN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서 참여는 비록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시민권으로 설정되었다.¹⁵⁾

셋째,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은 ‘청소년은 성인들의 책임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로부터 ‘청소년들의 참여는 바로 사회변화의 원동력이다’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청소년참여는 사회참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라는 것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레저활동 등 사회의 여러 장면에서 일어나는데, 참여와 관여라고 하는 것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여는 통학, 통근, 여가활동이라고 하는 실체의 행위 행동을 동반하지만, 관여라는 것은 자세 태도 즉,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는 태도를 말한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의미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형식상의 참여가 아닌, 청소년 자신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집단이나 사회를 자신의 것으로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자발적 선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사회로의 주체적 참가에 의해, 자신을 사회 안에 자리매김하고, 혹은 사회를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이으로써 자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인식을 터

15)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0년간 힘겨운 교섭을 해 온 끝에 1990년 발효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시설 및 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국제 인권협약 사상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의 참정권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수록하고 있다.

특하게 된다. 이 점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의 목표는 이러한 참여과정(process)에 의해 정체감(identity)를 확립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보면, 참여 목표달성 과정은 다섯가지 단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집단이나 조직에 참가하는 단계, 그 집단이나 조직에 귀속 의식을 갖는 단계,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에 참가하는 단계, 그 집단보다도 훨씬 넓은 사회에 관계되어 가는 단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거나 상대방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단계 등이 그것이다

넷째,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정책에의 참여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는 지극히 다양한 범위로 사용된 개념이지만 청소년정책의 영역에서도 시대적으로 변화하면서 청소년참여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르트만(Voortman)이란 학자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발간된 청소년에 관한 정책 문서의 내용분석으로부터 ‘참여’란 것이 실제로 3가지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결론지었다.¹⁶⁾ 우선 청소년의 사회적응(fitting young people into society)이 중심 테마가 되는 단계가 있다. 여기서의 참여개념은 청소년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때에 적합하며 독립적 청소년 업무를 통한 충분하고 적절한 여가활동에 관한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참여에서의 관심은 의사결정에서의 협의와 참여라는 의미에서 크게 증대되었다. 청소년의 기성세대의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과 불만족이 많았던 시기에 나타나게 되며 청소년자신의 희망과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진다. 최근의 참여정책은 형성교육(formative education)을 점점 더 강조하게 된다. 참여는 개인적 발달과 자기표현에 대한 수단이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져야 되며 스스로의 책임감을 갖고 미래사

16) W. Voortman Participatie in jeugdbeleid. in M. de Winter,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 Radcliffe Medical Press, 1997, p. 56에서 재인용.

회에 관하여 자신들의 선택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정책에서 참여의 3가지 의미 즉, 적응시키기, 자문협의 및 형성교육 등의 요소들이 현대 예방전략에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민권을 강화하는 것, 이 경우에는서는 청소년의 권리가 협의되고 좋은 교육에 대해 성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고 존중하는 정보를 잘 제공받는 것이 ‘청소년이 초래하는 문제’를 중단시키고 공공지출 증대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예방적이며 사회경제적 효과 - 그만큼 더 좋아진다 - 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2.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그러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그 사회적인 의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청소년참여가 필요한 첫째 이유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된다.¹⁷⁾ 필요한 숙련기술이나 책임감을 기르지 않은 채 ‘그들이 갑자기 책임감을 갖게 되어 16세, 18세 또는 21세에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한 사실들(social facts)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서 자신의 세계를 보다 넓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산 시키기 위한 능력과 실천을 경험하면서 성인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발달과업이란 한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위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사회화를 위한 과정은 인간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성격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정

17) Roger A. Hart,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erce, UNICEF Innocenti Essays, 1992, p. 5

체감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창조적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청소년 참여는 절대적이란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가정의 본질적 기능의 약화,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세대적 격차, 입시경쟁에서 패배한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정체감 확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문제들은 사실 청소년들이 자신을 발견하려는 충분한 노력도 기울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자신의 실제적인 검증작업도 없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 지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정신배양을 위해서도 청소년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참여란 민주주의의 제1원칙이며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그리고 사회의 평화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젊은 세대를 사회·정치의 장에서 계속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은 불가결한 것이다. 스스로 자진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은 사회에 있어서도, 직장에도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되며 비행이나 기타 문제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직장에서도, 개개의 노동자에게 높은 유연성, 창조성, 책임감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결정 과정에 참가해서 문제에 몰두하고,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참여는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청소년으로서의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역할실험을 위해서도 참여는 필수적이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역이 되어, 재능, 흥미, 관심을 펼쳐서 사회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

스포츠, 문화생활, 청소년활동 등에 참가하는 것도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특히 활동의 종류와 내용을 자주적으로 청소년이 결정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발견하기 위해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를 해보고 또한 그러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은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좀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보다 정확한 역할 실험이 될 것이다. 어떤 지도자의 일을 수행해 본 후에 자기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수 있고,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의 뜻을 체험하는 일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공적, 정치적, 참가 요컨대 의사결정에의 참가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청소년이 요구하고, 기성세대는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이다. 대중의 의사를 실행한다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개념 틀에서 생각했을 때, 이 참여 요구는 확실히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청소년이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부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되고 있다. 청소년을 민주적 과정(process)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공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곳에 참여시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제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직접적인 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추진해 가는 것은 정치가 또는 행정 당국의 관심사가 될 필요가 있다. 고위적 정치차원의 공식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 지방의회 그밖의 기관, 학교, 청소년단체, 직장 등, 어른들의 공통관심사가 다루어지는 곳 모든 곳에 대해 참여가 장려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참여는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¹⁸⁾ 생활환경의 개발에 참여하는 활동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국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이미 기성세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전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역사적 상황에 있어 청소년들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창조적으로 국가건설에 이바지 하는 데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의 세계는 개별국가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가간의 교류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기아해방운동, 환경보전운동 등 인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청소년참여의 유형과 수준

청소년참여에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에 하나의 권한을 갖는 존재로서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여러 수준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인 참여형태 뿐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참여, 사회적인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청소년정책과 참여의 주제에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우선 정책결정에서의 청소년참여의 유형은 참여활동의 정도를 기준으로

1. 정보전달적 참여(information) : 정책 계획수립시에 청소년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정책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
2. 비형식적 협의(informal consultation)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위해

18) Roger A. Hart,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olorce, UNICEF Innocenti Essays, 1992, p. 6

비형식적 협의모임을 구성하는 정도의 참여 3. 형식적 협의(formal consultation) : 공식적인 청소년과의 협의기구를 통한 참여유형 4. 정책결정과정의 참여(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정책결정기구와의 협의에서 청소년들이 평등(equality)에 입각하여 참여하는 수준 등의 4가지로 구분한다.¹⁹⁾

대부분의 경우 정책과정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형태는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은 정책입안을 위한 주요 자료원(예를 들면 면접이나 설문지를 통한)으로서 사용되거나 당국의 정책 내용을 알게 되거나(지방언론이나 학교를 통해) 또는 토론이나 협의에 참석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유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의 여러 단계에서 보면 의견적·전시적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저 하트(Hart)는 청소년참여의 수준을 특히 18세 이하를 중심으로 8가지로 구분하는 참여의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를 고안하였다.²⁰⁾ 첫째는 조작(manipulation)으로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거나 사용된다. 성인들에 의해 동원되며 그들은 참여하게 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가족수당을 위한 데모에 걸음마하는 어린이(toddlers)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는 장식(Decoration)으로 여기서는 성인 행동을 장식하는데 활용된다. 예컨대, 노래, 댄스 및 다른 영향을 끼치는 활동과 같이, 그러나 성인들은 이 모든 것이 아동과 청소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으로 가장한다. 세째는 명목주의(Tokenism)의 단계이다. 이는 법과 여론의 압력에 못이긴 소수흑인을 채용하는 예와 같이 명목상 청소년을 포용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19) M. de Winter,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 Radcliffe Medical Press, 1997, pp. 87-88

20) Roger A. Hart,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olerce, UNICEF Innocenti Essays, 1992, p. 12

외견상 목소리를 내지만 이것은 아동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성인들이 창출하고자 하는 친아동적 이미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트(Hart)에 따르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회의나 패널에서 아동들을 참여시켜 강한 인상을 주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3단계는 외견적 참여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동의 관여가 있는 실제에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언급할 의미는 있다. 아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는 4번째 사닥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통찰이 주어지는 곳 어디에서나 자체의 이니시어티브와 선택의 자유정도가 크면 클수록 참여 사닥다리에 따른 분류는(4단계에서 8단계까지) 더 높아진다.

네번째, 부과하지만 알려주는(Assigned But Informed)단계이다. 성인들이 아동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이니시어티브를 가지지만 그들에게 방법과 이유를 알려준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그들이 관여하는 점을 이해하게 된 이후에야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하트(Hart)는 세계아동정상회담에서 아동과 청소년대표들이 계속 참석한 목적의 하나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본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다섯째 자문하고 알려주는(Consulted and Informed)단계이다. 아동들은 성인들에 의해 고안되고 운영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해 광범위하게 협의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가능한 정책결정에 실제로 관여시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그 사례이다. 여섯째, 성인이 먼저 시작하고 의사결정을 아동과 함께하는(adult 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children) 단계이다.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정책결정자나 지역사회 사업가, 지역주민들 같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initiators)들은 종종 여러 가지 이익집단과 연령집단을 포함한다. 아동들이 동등한 지위로 참여한 프로젝트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아동, 10대 및 부모

들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일련의 협의를 거친후에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도 사례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아동이 먼저 시작하고 끝어가는(Child initiated and directed)단계이다. 아동들이 스스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른들의 관여없이 이해하고, 조직하고 끝어간다. 실제의 경우 ‘놀이’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예는 찾기 어려운데 이는 성인들이 아동의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이러한 것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맡겨 둔다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덟째는 아동이 처음 시작하고 성인과 의사결정을 같이하는(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s)단계이다. 하트(Hart)는 이것을 참여 사닥다리의 최고 높은 단계로 본다. 왜냐하면 참여의 최종목표는 아동과 성인사이에 영향이 공유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 뉴욕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보다 나은 성교육을 위한 연합체(coalition)을 결성했던 것을 들고 있다. 그들은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동료학생들의 수가 증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 계획의 의미를 청원하는 방법으로 당국에 확신시켰고, 학교는 또래 상담원을 고용하고 임신과 성병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 III 장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실태

청소년 참여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태가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현 단계의 청소년참여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88명의 청소년의 의견이 분석되었다. 설문조사는 청소년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청소년참여 활동의 분야와 수준, 청소년참여의 실태, 청소년참여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변인으로는 성별(남자, 여자), 연령별(만 18세 이상, 만 17세, 만 16세 이하), 학교계열별(인문계, 실업계), 지역거주기간별(10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지역별(강남, 강북) 변인이 사용되었는데 해석과정에서는 주로 성별과 학교계열별 변인이 의미있게 활용되었다.

다음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일반인식, 청소년의 참여 실태, 그리고 청소년참여의 방법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분석·정리한 것이다.

제1절 청소년참여에 대한 일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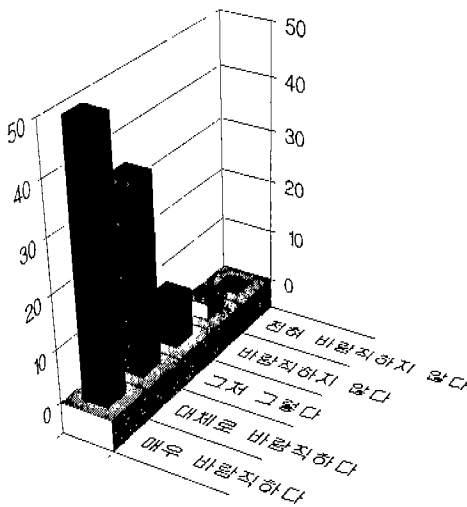
1. 청소년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1) 자율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의 필요성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다’ 50.9%, ‘대체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36.0%, ‘그저

그렇다' 9.0%,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3.6%, '전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0.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86.9%의 청소년이 청소년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참여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다' 47.7%, '대체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36.0%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각각 55.1%, 35.7%의 응답률을 보여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의 88.0%(매우 바람직 56.7%, 대체로 바람직 31.3%)가, 실업계 청소년의 85.3%(매우 바람직 42.9%, 대체로 바람직 42.4%)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인문계 청소년이 조금 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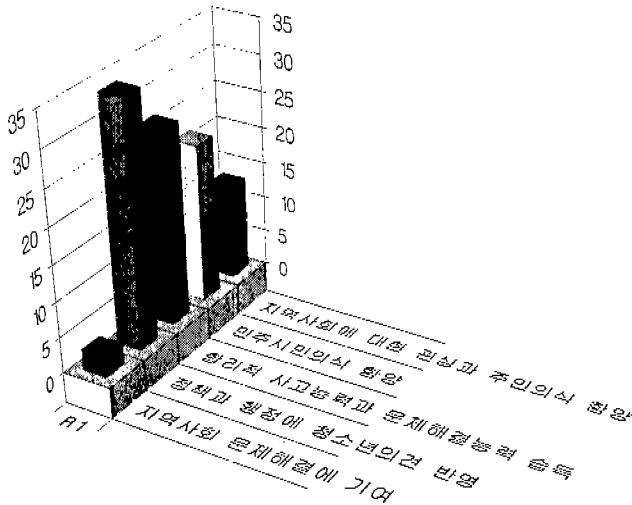
[그림III-1] 참여활동 기회제공에 대한 의견



2) 청소년 참여활동의 의미

이러한 청소년 참여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111-2] 청소년 참여활동의 의미



‘청소년정책과 행정에 청소년 의견 반영’(34.0%),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습득’(27.2%), ‘민주시민의식 함양’(22.2%),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 함양’(13.4%),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3.2%)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고능력의 신장이나 의식 함양 또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결과적인 측면의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과정 자체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별, 학교계열별 집단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성별 차이에 있어, 청소년참여 활동이 정책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자(29.8%)보다 여자(39.0%)가 더 많은 응답을 보

이고 있으며,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자(19.3%)보다 남자(24.7%)가 더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학교계열 별로는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정책과 행정에 청소년 의견 반영(35.1%)’, ‘민주시민의식 함양(25.2%)’,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능력 습득(23.1%)’의 순으로 응답을 한 반면, 실업계 청소년의 경우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습득(33.0%)’, ‘청소년정책과 행정에 청소년 의견 반영(32.5%)’, ‘민주시민의식 함양(18.4%)’ 순의 응답을 보여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실업계 청소년은 ‘합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습득’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건전한 비판의식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을 준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74.7%(매우 그렇다 46.5%, 다소 그렇다 28.2%)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3%(별로 그렇지 않다 7.5%, 전혀 그렇지 않다 2.8%)로 나타나 대다수 청소년이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사회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자(69.9%) 보다는 여자(80.5%)가 실업계 청소년(68.1%) 보다는 인문계 청소년(79.2%)이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참여활동의 분야와 수준

1) 청소년참여활동 분야별 필요성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참여분야와 참여내용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84.4%의 청소년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48.0%, 다소 필요 36.4%)고 응답하였으며, ‘정책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71.2%의 청소년이(매우 필요 36.6%, 다소 필요

34.6%), ‘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77.6%의 청소년이(매우 필요 39.6%, 다소 필요 38.0%).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79.1%의 청소년이(매우 필요 40.2%, 다소 필요 38.9%),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86.0%의 청소년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3.4%, 다소 필요 32.6%)고 응답하였다.

<표Ⅲ-1> 청소년참여활동 분야별 필요성

(단위 : %)

청소년 참여활동	필요	매우 필요	다소 필요
여가·문화행사 직접 계획·실행	86.0	53.4	32.6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피력	84.4	48.0	36.4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활동에 참여	79.1	40.2	38.9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	77.6	39.6	38.0
정책·행정과정에 공식적의견 제시	71.2	36.6	34.6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모든 참여활동 분야의 필요성에 7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참여분야와 수준에 있어서는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가·문화활동 분야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참여의 한 분야로서의 인식뿐만 아니라 평소 청소년의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함께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정책과정 참여보다는 청소년 관련 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의 참여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직 초보적인 참여의식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응답률을 보았을 때 정책과정에 대한 공식적 의견제시의 필요성도 71.2%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관련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 84.4%의 많은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등을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활동의 활성화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에 따라 몇 가지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문제에 대한 의견 제안’과 ‘여가·문화행사 직접 계획 및 실행’의 경우는, 남자(81.3%, 82.5%)에 비해 여자(88.4%, 90.4%)가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남자(67.9%)에 비해 여자(75.3%)가, 실업계 청소년(65.4%)보다는 인문계 청소년(75.3%)이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와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참여활동’은 각각 인문계 청소년(74.1%, 75.5%)보다 실업계 청소년(82.9%, 84.5%)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청소년참여활동 필요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으며, 인문계 청소년은 ‘정책과정 참여’ 분야에, 실업계 청소년은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과 정치활동 부문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에 대해 75.6%의 청소년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42.3%, 다소 그렇다 33.3%)고 응답하였고, 7.4% 만이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5.6%, 전혀 그렇지 않다 1.8%)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 대해 46.9%의 청소년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났는데, 남자(44.4%) 보다는

여자(50.3%)가 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이를 볼 때 청소년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활동 분야의 참여활동에 덜 친숙하거나 아직 청소년들이 관여하기에는 부적절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2) 여러 가지 청소년참여활동

그 외 몇 가지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먼저 ‘마을놀이터나 공공시설이 망가져 있으면 해당기관에 알리거나 직접 수리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24.5%, ‘다소 그렇다’ 19.8%, ‘그저 그렇다’ 20.7%, ‘별로 그렇지 않다’ 16.9%, ‘전혀 그렇지 않다’ 18.2%의 응답을 보여 전체 44.3%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5.1%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즉, 청소년들은 공공물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행위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인별 차이로는 남자(40.5%)보다 여자(48.9%)가 인문계 청소년(41.9%) 보다는 실업계 청소년(47.9%)이 ‘그렇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부당한 일에 대해 직접 항의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고

21) 한편, 위 결과를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82.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41.7%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41.0%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내용과 비교해서 생각해볼 때([그림Ⅲ-3]참조), 청소년들은 ‘정치활동’을 매우 적극적이고 공식 기구나 기관을 통한 특정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시민들의 행동이라 할 수 있어 결국 ‘정책결정과정 참여활동’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도,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46.9%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해서는 82.7%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같은 내용인데도 ‘정치’라는 단어가 사용된 질문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치’라는 용어를 매우 협의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61.0%(매우 그렇다 33.7%, 다소 그렇다 27.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8.6%(별로 그렇지 않다 13.6%, 전혀 그렇지 않다 5.0%)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84.4%의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응답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청소년들이 훼손된 공공 시설물이나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들과 관련한 문제는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로 인식한 결과일 수 있으며 또한 질문 자체가 추상적인 당위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천의 의지를 묻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선뜻 응답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3.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1)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의 의미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청소년참여의 수준 중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정책계획 단계에 의견제안’ 31.5%, ‘부적당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24.3%, ‘정책효과 평가’ 20.1%, ‘시행 중인 청소년정책 지지’ 15.0%, ‘정책집행 과정 감시’ 6.6%, ‘기타’ 2.6% 순의 응답결과를 보여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란 ‘시행 중인 청소년정책을 따르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15.0%나 나온 것을 보면, 청소년들의 인식에 “참여”라는 개념은 어떤 행사나 사업 등에 단순히 “참석”하는 의미의 1차적 개념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책집행과정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정책과정 참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변인별로는 학교계열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란 ‘정책계획 단계에 의견제안(35.0%)’, ‘부적당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26.4%)’, ‘시행 중인 청소년정책 지지(15.6%)’, ‘정책효과 평가(15.3%)’, ‘정책 집행과정 감시(5.1%)’의 순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실업계 청소년의 경우 ‘정책계획 단계에 의견제안(26.7%)’와 ‘정책효과 평가(26.7%)’ ‘부적당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21.2%)’, ‘시행 중인 청소년정책 지지(14.4%)’, ‘정책 집행과정 감시(8.6%)’ 순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응답비율에 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는 정책의 계획 단계에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35.0%)가 실업계 청소년(26.7%)보다 많은 응답을 보인 점, 그리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실업계 청소년(26.7%)이 인문계 청소년(15.3%) 보다 많은 응답을 보인 점을 들 수 있다.

<표 III-2>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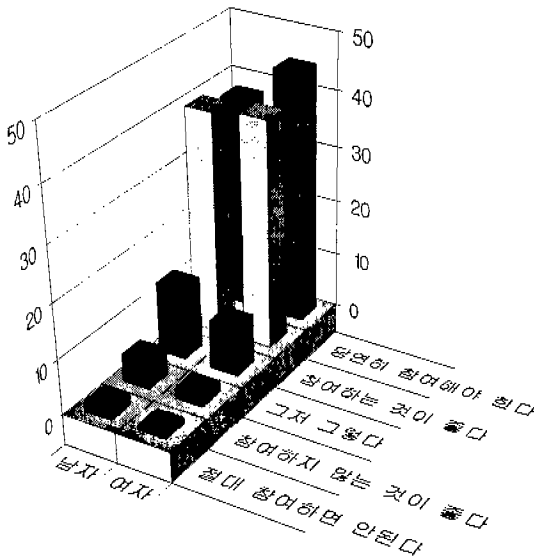
(단위 : %)

청소년 정책과정 참여의 의미	전 체	인문계	실업계
정책계획 단계에 의견제안	31.5	35.0	26.7
부적당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24.3	26.4	21.2
정책효과 평가	20.1	15.3	26.7
시행 중인 청소년정책 지지	15.0	15.6	14.4
정책 집행과정 감시	6.6	5.1	8.6
기 타	2.6	2.6	2.5

2)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가능성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41.7%의 청소년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41.0%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으로써 82.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응답차이를 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79.0%)보다 여자(86.9%)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더 많은 응답을 하였고, 실업계 청소년(80.7%)보다는 인문계 청소년(84.0%)이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11-3]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의견



이러한 필요성 인식정도에 비해 실제로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30%(매우 가능하다 6.1%, 가능한 편이다 23.9%), ‘가능하지 않다’ 53.6%(별로 가능하지 않다 35.5%, 전혀 가능하지 않다 18.1%)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참

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가능하다’ 32.4%, ‘가능하지 않다’ 50.8%, 여자의 경우 ‘가능하다’ 27.8%, ‘가능하지 않다’ 56.9%의 응답률을 보여 남자가 참여가능성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가능하다’ 24.9%, ‘가능하지 않다’ 58.6%, 실업계 청소년의 경우 ‘가능하다’ 37.7%, ‘가능하지 않다’ 46.3%의 응답률을 보여 실업계 청소년이 정책과정 참여 가능성에 대해 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3>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가능성

(단위 : %)

	매우 가능	가능한 편	그 저 그렇다	별로가능 하지않음	전혀가능 하지않음
남 자	8.5	23.9	16.9	31.4	19.4
여 자	3.2	24.6	15.3	40.4	16.5
인문계	7.3	17.6	16.6	36.8	21.8
실업계	4.3	33.4	16.1	33.7	12.6
전 체	6.1	23.9	16.4	35.5	18.1

이 때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가능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 등 객관적인 환경을 고려한 경우와, 또 한가지는 동일한 여건을 전제할 때 청소년의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식 등을 고려한 경우이다. 즉,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고 할 때, 제반 사회·제도적 여건 미흡과 자신들의 인식과 자질 부족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참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쨌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불가능하다’(53.6%, ‘그저 그렇다’를 포함하면 70%)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이러한 판단을 낳게 한 요인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가능성 확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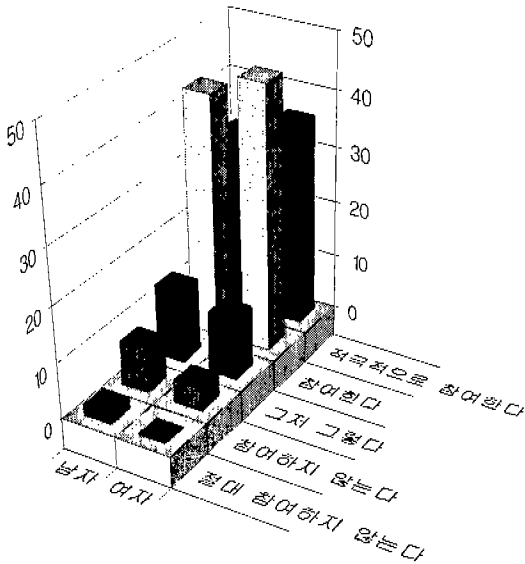
3)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능성 모색

앞에서 53.6%의 청소년이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만약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면 어떤 응답이 나올 것인가. 실제로 이 질문을 던진 결과 청소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1%, ‘참여한다’ 45.1%, ‘그저 그렇다’ 12.8%, ‘참여하지 않는다’ 6.7%,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1.3%의 응답률을 보여 79.2%의 청소년이 참여기회만 생긴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는 청소년은 8.0%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75.4%(적극참여 32.1%, 참여 43.3%),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10.9%(참여안함 8.6%, 절대 참여안함 2.3%), ‘그저 그렇다’ 13.7%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83.8%(적극참여 36.6%, 참여 47.2%),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4.5%(참여안함 4.3%, 절대 참여안함 0.2%), ‘그저 그렇다’ 11.7%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혔다. 특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있어 남자는 10.9%, 여자는 4.5%로 응답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내용에 따르면 앞에서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 참여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참여 가능성 30%)을 보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객관적인 여건 미흡’이라는 상황 진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충분히 정책과정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

[그림111-4] 정책과정 참여기회 제공시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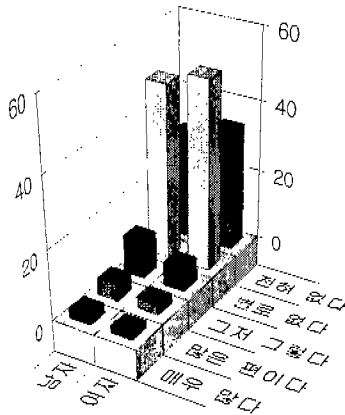


고 있으며 만약 참여기회 확보라는 객관적인 여건만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참여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이루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경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83.7%의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경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러한 제도나 경로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6.6%에 지나지 않아 이것이 참여 가능성을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우 많다’ 2.5%, ‘많은 편이다’ 4.1%, ‘그저 그렇다’ 9.7%, ‘별로 없다’ 51.4%, ‘전혀 없다’ 32.3%의 응답을 보였으며, 변

[그림 III-5] 정책과정 참여제도 및 경로의 유무



인별로는 남자의 경우 ‘매우 많다’ 3.0%, ‘많은 편이다’ 5.1%, ‘그저 그렇다’ 11.6%, ‘별로 없다’ 49.8%, ‘전혀 없다’ 30.5%, 여자의 경우 ‘매우 많다’ 1.8%, ‘많은 편이다’ 3.2%, ‘그저 그렇다’ 7.0%, ‘별로 없다’ 53.6%, ‘전혀 없다’ 34.5%의 응답률을 보여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제도나 경로가 부족한 것에 대해 남자보다 여자가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제도나 경로 등 기회부족과 미흡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청소년의 참여 실태

1. 청소년의 지위와 참여현황

1) 청소년참여를 위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

먼저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만한 의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3.3%의 청소년만이 ‘매우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갖추고 있다’ 16.1%, ‘그저 그렇다’ 29.5%, ‘별로 잘 갖추고 있지 않다’ 43.1%,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8.0%로 나타나 51.1%(‘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키면 80.6%)의 청소년이 청소년들의 의식과 능력에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잘 갖추고 있다’ 22.9%(매우 잘 갖추 4.1%, 잘 갖추 18.8%), ‘그저 그렇다’ 31.0%, ‘잘 갖추고 있지 않다’ 46.1%(별로 37.1%, 전혀 9.0%)의 응답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 ‘잘 갖추고 있다’ 15.4%(매우 잘 갖추 2.3%, 잘 갖추 13.1%), ‘그저 그렇다’ 27.8%, ‘잘 갖추고 있지 않다’ 56.9%(별로 50.1%, 전혀 6.8%)의 응답률을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청소년들의 의식과 자질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학교계열별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인문계 청소년(잘 갖추고 있다 23.8%, 잘 갖추고 있지 않다 48.2%)이 실업계 청소년(잘 갖추고 있다 13.1%, 잘 갖추고 있지 않다 55.4%)보다 청소년참여를 위한 인식과 자질면에 더 후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4> 자율적인 청소년활동 계획·실행능력 보유실태

(단위: %)

	매우 잘 갖추	잘 갖추	그저 그렇다	별로 잘 갖추지 않음	전혀 잘 갖추지 않음
남 자	4.1	18.8	31.0	37.1	9.0
여 자	2.3	13.1	27.8	50.1	6.8
인문계	4.0	19.8	28.1	41.5	6.7
실업계	2.3	10.8	31.5	45.6	9.8
전 체	3.3	16.1	29.5	43.1	8.0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활동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기회를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 과학적 비판능력과 합리적인 판단력, 그리고 논리적인 발표 및 토론능력 등 민주시민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길러주는 데 소홀해 온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등에 대해 친구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지’ 물어본 결과 실제생활에서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36.1%(‘매우 그렇다’ 8.8%, ‘다소 그렇다’ 27.3%)에 불과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7.9%(‘그저 그렇다’를 포함하면 65.2%)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변인별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35.1%)보다는 여자(37.8%)가 인문계 청소년(16.5%)보다는 실업계 청소년(30.1%)이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인문계 청소년과 실업계 청소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공부라는 교육 여건에 묶여 학업 외의 영역에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참여의 현황

한편 ‘우리사회의 청소년 참여활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1%의 청소년만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3.5%, ‘그저 그렇다’ 24.8%, ‘부진한 편이다’ 49.8%,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8%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참여활동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6%,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청소년 참여활동이 매우 부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을 부정적인 견해로 미루어 해석한다면 전체 95.4%의 청소년이 참여활동 정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적어도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 현황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Ⅲ-5>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활동 현황

(단위 : %)

	매우 활발	활발한 편	그 저 그렇다	부진한 편	전혀이루어 지지 않음
남 자	1.9	4.9	27.7	45.3	20.2
여 자	0.2	2.0	21.4	55.0	21.4
인문계	1.7	3.4	22.3	49.2	23.3
실업계	0.3	3.8	28.5	50.4	17.1
전 체	1.1	3.5	24.8	49.8	20.8

변인별로 보면, 여자(활발하다 2.2%, 활발하지 않다 76.4%)보다 남자(활발하다 6.8%, 활발하지 않다 65.5%)가 참여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계열별 차이를 보면, 참여활동이 ‘활발하다’는 응답에 대해 인문계 청소년이 5.1%, 실업계 청소년이 4.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활발하지 않다’에 대해 인문계 청소년이 72.5%, 실업계 청소년이 67.5%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인문계 청소년이 실업계 청소년보다 참여정도에 있어 낙관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정치·행정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 8.9%, ‘다소 그렇다’ 14.3%, ‘그저 그렇다’ 24.1%, ‘별로 그렇지

않다' 30.0%, '전혀 그렇지 않다' 22.7%로 나타나, 전체 23.2%의 청소년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2.7%('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킨다면 76.8%)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결국 청소년집단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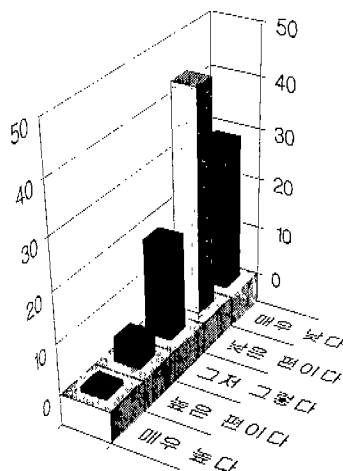
3) 청소년의 지위와 시민적 권리

청소년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는 그에 상응하여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를 존중하고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이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제반 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그들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해 주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청소년들은 그들의 시민적 권리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국제법으로의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아동(18세 미만)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적절한 사회·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인식하는 시민적 권리 수준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매우 높다' 1.4%, '높은 편이다' 5.9%, '그저 그렇다' 19.3%, '낮은 편이다' 44.3%, '매우 낮다' 29.0%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 7.3%의 청소년만이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3.3%의 청소년('그저 그렇다'를 포함하면 92.6%)이 시민적 권리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계열별 차이를 보이는데, 인문계 청소년(높다 7.2%, 낮다 77.0%)이 실업계 청소년(높다 7.6%, 낮다 67.8%)보다 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111-6]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의 수준



이와 관련하여 참여제도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을 갖는 연령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통선거권을 만 20세부터 갖게 됨으로써 다른 현행법상으로는 성인의 자격을 갖는 만 18세와 19세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일부에서 선거연령을 낮추어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선거권을 갖게 되는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11.5%가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28.7%가 ‘낮추는 것이 좋다’, 41.5%가 ‘현재도 별 문제없다’, 10.1%가 ‘낮추어서는 안 된다’, 8.2%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넘지 않은 40.2%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현재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과 연령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전체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정치적 시민권인 선거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수준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은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선거참여 등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인들이 주도할 영역이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야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직접 투표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는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낮은 수준의 참여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현재도 별 문제없다’ 37.1%, ‘낮추는 것이 좋다’ 26.6%,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16.1%, ‘낮추면 절대 안 된다’ 11.4%의 응답률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 ‘현재도 별 문제없다’ 46.6%, ‘낮추는 것이 좋다’ 31.3%, ‘낮추면 절대 안 된다’ 8.6%,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5.9%의 응답률을 보여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더 찬성의견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현재도 별 문제없다’ 39.1%, ‘낮추는 것이 좋다’ 31.0%,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13.6%, ‘낮추면 절대 안 된다’ 9.3%의 응답률을 보였고, 실업계 청소년의 경우 ‘현재도 별 문제없다’ 45.5%, ‘낮추는 것이 좋다’ 25.1%, ‘낮추면 절대 안 된다’ 11.1%,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8.3%의 응답률을 보여 실업계 청소년보다는 인문계 청소년이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설문조사의 대상 중에서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전체 26.6%에 불과했기 때문에(만 17세는

49.9%, 만 16세 이하는 23.5%) 실제 만 18세와 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선거연령 논의의 당사자인 경우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 많은 응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청소년들은 앞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이에 대해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고 찾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그 인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의 실태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응답해 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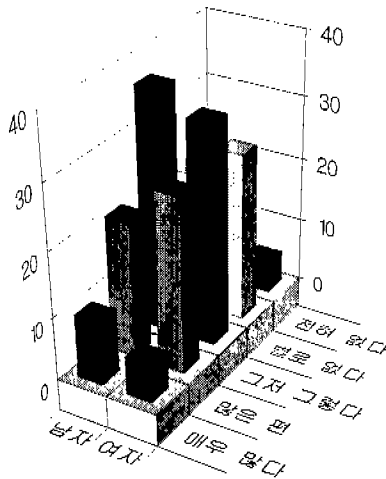
1)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8.6%, ‘다소 그렇다’ 24.2%, ‘그저 그렇다’ 35.8%, ‘별로 그렇지 않다’ 24.0%, ‘전혀 그렇지 않다’ 7.5%로 나타나 ‘그저 그렇다’를 부정적인 응답으로 해석해 본다면 전체 67.3%의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남자의 경우 32.1%가 ‘관심이 있다’, 30.8%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 33.7%가 ‘관심이 있다’, 31.7%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간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

[그림III-7]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에 불과했으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6.3%, '조금 알고 있다' 12.4%,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45.2%,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34.0%로 나타나 80% 에 가까운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의 경우 남자(알고 있다 14.7%, 모른다 75.2%)가 여자(알고 있다 5.1%, 모른다 83.8%)보다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알고 있다 10.8%, 모른다 76.3%)이 실업계 청소년(알고 있다 5.1%, 모른다 83.4%)보다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단위 : %)

	매우 잘 안 다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조금 안다	거 의 모른다	전 혀 모른다
남 자	3.4	7.9	13.5	44.1	31.1
여 자	0.4	4.7	11.0	46.3	37.5
인문계	2.9	7.9	12.9	43.2	33.1
실업계	0.8	4.3	11.6	48.1	35.3
전 체	2.0	6.3	12.4	45.2	34.0

2) 지역의 청소년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도

다음으로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청소년프로그램에 어느정도 참여하는지’ 묻는 내용에 대해 1.4%의 청소년 만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참여하는 편이다’ 7.6%, ‘그저 그렇다’ 11.9%, ‘별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25.9%,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3.2%로 대답하여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9.0%,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79.1%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의 경우를 부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한다면 91.0%의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가지 변인별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로는 남자(참여한다 12.9%, 참여하지 않는다 73.4%)가 여자(참여한다 4.2%, 참여하지 않는다 86.3%)보다 더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참여한다 11.6%, 참여하지 않는다 74.1%)이 실업계 청소년(참여한다 5.3%, 참여하지 않는다 86.3%)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7> 지역의 청소년행사나 프로그램 참여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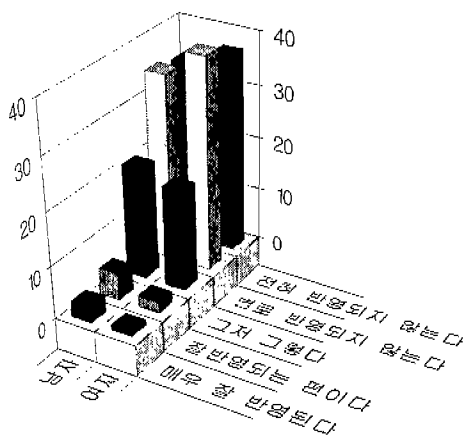
	적극적 참 여	다소 참여	그 저 그렇다	별 로 참여않음	전 칙 참여않음
남 자	2.4	10.5	13.7	24.4	49.0
여 자	0.2	4.0	9.4	27.9	58.4
인문계	2.2	9.4	10.5	26.2	48.5
실업계	0.3	5.0	11.0	26.9	59.9
전 체	1.4	7.6	11.9	25.9	53.2

그밖에 ‘지역의 청소년정책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2.3%, ‘잘 반영되고 있는 편이다’ 4.0%, ‘그저 그렇다’ 20.3%, ‘별로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37.7%,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35.7%로 나타나 73.4%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지역의 청소년정책과정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을 부정적인 응답으로 해석해 본다면 전체 93.7%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셈이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반영된다 3.4%, 반영되지 않는다 77.4%)보다는 남자(반영된다 8.6%, 반영되지 않는다 70.3%)가, 실업계 청소년(반영된다 2.8%, 반영되지 않는다 75.5%)보다는 인문계 청소년(반영된다 8.6%, 반영되지 않는다 72.1%)이 ‘반영된다’는 쪽에 조금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즉, 여자와 실업계 청소년은 남자와 인문계 청소년에 비해 지역의 청소년 정책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가 더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볼 때, 결국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편이며,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지역의 청소년행사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정도도 매우 낮

[그림 111-8] 지역정책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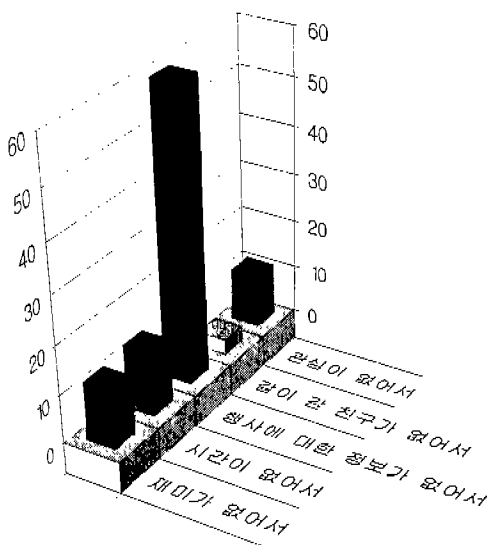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청소년정책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의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도 저조 원인

다음으로 ‘지역의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행사에 대한 정보 부족’ 60.7%, ‘시간이 없어서’ 13.2%,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12.0%, ‘관심이 없어서’ 11.2%,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2.9% 순의 응답률을 보여 행사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학업 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교육현실로 인한 시간적 여건 부족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견해에 대해 다른 측면의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활동시간이 부족

[그림III-9] 지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저조 원인



하므로 제도적으로 활동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준비된 청소년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전략을 구사하여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없어서’와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각각 13.2%, 12.0%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인 것을 보면 단순히 시간 부족이라는 외적인 원인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내적인 문제도 청소년들의 참여도에 상당히 큰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청소년들이 흥미와 필요를 느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인 것을 보면 내용면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

하고 뜻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프로그램 형식에 있어서도 그들의 감각과 흥미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역의 청소년 행사나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들의 흥미와 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마련된 프로그램을 최대한의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성별 변인의 경우 남자는 ‘행사에 대한 정보 부족’ 54.4%, ‘시간이 없어서’ 15.4%, ‘관심이 없어서’ 13.0%,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12.8%,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4.3% 순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자는 ‘행사에 대한 정보 부족’ 68.2%,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11.0%, ‘시간이 없어서’ 10.8%, ‘관심이 없어서’ 8.8%,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1.1% 순의 응답률을 보여 모두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현저히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는 남자의 경우, ‘시간이 없다’는 점을, 여자의 경우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다’는 점을 두 번째의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계열별 차이를 보면,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행사에 대한 정보 부족’ 58.9%, ‘시간이 없어서’ 17.2%,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11.2%, ‘관심이 없어서’ 9.1%,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3.6% 순의 응답률 보인 반면, 실업계 청소년은 ‘행사에 대한 정보 부족’ 63.6%, ‘관심이 없어서’ 14.1%,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13.1%, ‘시간이 없어서’ 7.4%,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1.8% 순의 응답률을 보여 인문계 청소년은 ‘시간이 없다’는 점을 실업계 청소년은 ‘관심이 없다’는 점을 두 번째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는 응답률 순위 비교를 해볼 때,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행사에 대한 정보부족 원인 다음으로 인문계 청소년은 학업부담으로 인한 시간제약

이, 실업계 청소년은 청소년 프로그램 보다는 관심대상이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이 참여저조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청소년참여 방법 및 참여 활성화 방안

1. 정책결정과정 참여방법

1)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방법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개인적인 의견 전달부터 일정한 조직을 갖춘 청소년 모임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증진시키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년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참여방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여덟 가지의 청소년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각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수시 의견제안’ 방법에 대해 ‘바람직하다’ 66.1%, ‘그저 그렇다’ 24.6%, ‘바람직하지 않다’ 9.4%, ‘정기적인 정책보고회를 통한 사업홍보와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바람직하다’ 65.3%, ‘그저 그렇다’ 29.0%, ‘바람직하지 않다’ 5.7%, ‘정책계획과 수행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바람직하다’ 79.5%, ‘그저 그렇다’ 15.3%, ‘바람직하지 않다’ 5.2%,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청소년과의 대화’ 방법에 대해 ‘바람직하다’ 70.6%, ‘그저 그렇다’ 21.1%, ‘바람직하지 않다’ 8.3%의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대표가 참가하는 회의 개최 후 정책에 반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71.8%, ‘그저 그렇다’ 21.0%, ‘바람직하지 않다’ 7.1%의 응답률을, ‘지역신문이나 방송 투고를 통한 의견피력’에 대해 ‘바람직하다’ 70.7%, ‘그저 그렇다’ 21.6%, ‘바람직하지 않다’ 7.8%, ‘정책평

가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기구나 제도운영'에 대해 '바람직하다' 74.1%, '그저 그렇다' 20.2%, '바람직하지 않다' 5.7%, '정책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캠페인활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59.2%, '그저 그렇다' 27.8%, '바람직하지 않다' 13.0%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8>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형태

(단위 : %)

참 여 방 법	바람직	바람직안함
정책계획과 수행시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79.5	5.2
정책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기구·제도운영	74.1	5.7
청소년대표가 참가하는 회의개최 후 정책반영	71.8	7.1
지역신문이나 방송 투고 등을 통한 의견피력	70.7	7.8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청소년과의 대화	70.6	8.3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수시 의견제안	66.1	9.4
정기 정책보고회를 통한 사업홍보와 의견수렴	65.3	5.7
정책 건의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캠페인활동	59.2	13.0

위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캠페인활동 등 비제도적인 참여방법 보다는 공청회나 간담회, 참여를 위한 공식기구 운영 등 제도적인 참여방법을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문항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이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의보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72.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바 있다.(그저 그렇다 16.3%, 그렇지 않다 11.1%) 이 문항에서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그렇다 71.3%, 그저 그렇다 15.4%, 그렇지 않다 13.3%) 보다 여자(그렇다 74.4%, 그저 그렇다 17.3%, 그렇지 않다 8.3%)가 조

금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결국 청소년들은 정책과정 참여방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건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낸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의견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측에서 중심이 되어 참여활동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나 각종 간담회나 정책보고회 마련 등의 참여방법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 가지 살펴볼 점으로, 정책보고회나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직접 의견을 발언해야 하는 방법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견제시를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은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행정기관과의 친밀감이 부족하며,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토론 훈련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그나마 가장 접하기 쉽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설문조사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최소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설문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의견수렴 방법임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볼 때, 청소년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행정기관의 문턱을 좀 더 낮추고 직접적인 토론회나 토론회자질 함양 훈련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주장을 분명하게 할 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줄과 동시에 현단계에서는 청소년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간접참여 방안 등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변인별 차이를 보면, 먼저 ‘정책보고회를 통한 사업홍보와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인문계 청소년(바람직하다 69.4%, 그저 그렇다 24.4%, 바람직하지 않다 6.2%)이 실업계 청소년(바람직하다 58.8%, 그저 그렇다 36.1%, 바람직하지 않다 5.0%)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책계획과 수행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여자(바람직하다 85.0%, 그저 그렇다 11.2%, 바람직하지 않다 3.8%)가 남자

(바람직하다 74.9%, 그저 그렇다 18.5%, 바람직하지 않다 6.6%)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청소년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여자(바람직하다 76.0%, 그저 그렇다 19.6%, 바람직하지 않다 4.5%)가 남자(바람직하다 66.3%, 그저 그렇다 22.2%, 바람직하지 않다 11.5%)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지역 신문이나 방송 투고를 통한 의견피력’에 대해서도 여자(바람직하다 78.8%, 그저 그렇다 17.8%, 바람직하지 않다 3.4%)가 남자(바람직하다 63.9%, 그저 그렇다 24.9%, 바람직하지 않다 11.1%)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실업계 청소년보다는 인문계 청소년이 여러 가지 정책과정 참여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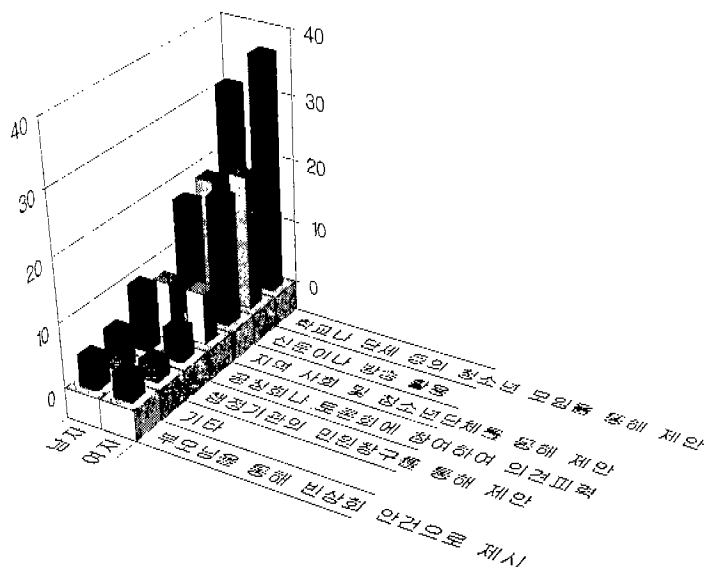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제안 방법

청소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참여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지역의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해 직접 제안’ 7.7%, ‘지역 사회(청소년)단체를 통해 제안’ 19.2%, ‘신문이나 방송 활용’ 20.0%, ‘학교나 단체의 청소년모임을 통해 제안’ 34.6%, ‘공청회나 토론회 참석’ 8.3%, ‘부모님을 통해 반사회 안전으로 제안’ 4.9%의 응답률을 보여 ‘청소년모임’을 통한(34.6%) 집단적인 참여방법에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으며, 개별적인 의견제안 방법 중에서는 ‘행정기관의 민원창구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것’(7.7%)보다는 ‘신문이나 방송을 활용’(20.0%)하는 것에 더 많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역시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행정기관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있으며 의견제안에 있어서도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일반적인 정책과정 참여방법에 대해 바람직한 정도를 물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비슷한 응답현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공식적인 청소년모

임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후에 살펴볼 ‘청소년대표위원회’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11-10] 지역 청소년 관련문제에 대한 의견제안 방법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청소년모임이나 단체 등을 통한 의견제안이나 신문·방송을 활용한 의견 제안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응답을 하고 있는 반면, 공청회나 토론회 참여 특히,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에는 남자가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통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식적인 청소년대표기구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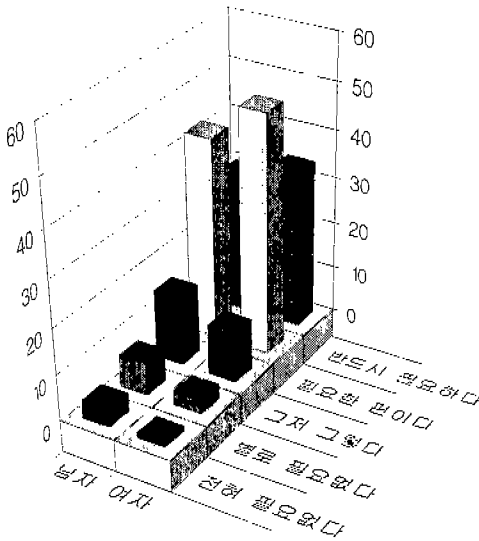
1) 공식적인 청소년대표기구의 필요성

세계의 청소년들은 환경보호나 평화유지 등을 위한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사업이나 활동은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청소년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별로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나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청소년 포럼(Youth Forum)” 등 청소년대표로 구성되는 모임이나 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행정관청이나 청소년단체·기관 등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인 의회조직의 하나로 인정하고 지역의 주요한 청소년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이들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청소년 공식조직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참여방법의 하나로서 지역마다 ‘청소년대표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정책에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공식적인 대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78.9%의 청소년이 ‘필요하다’(반드시 필요 32.2%, 필요한 편 46.7%), 7.8%의 청소년이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없음 5.3%, 전혀 필요없음 2.5%)고 응답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성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필요하다 85.4%, 그저 그렇다 11.0%, 필요하지 않다 3.5%)가 남자(필요하다 73.6%, 그저 그렇다 15.2%, 필요하지 않다 11.2%)보다 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1-11] 공식적인 청소년 대표기구의 필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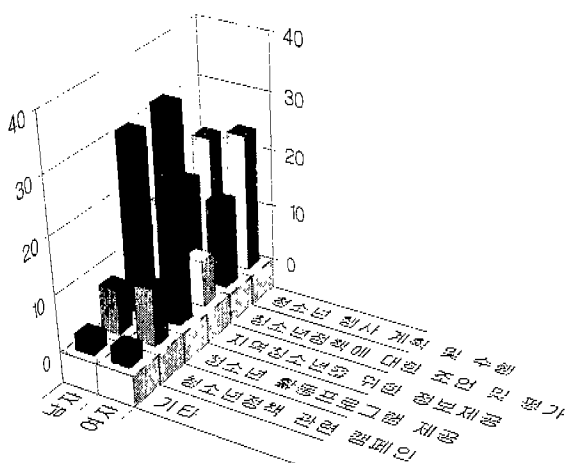


2)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주요활동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활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 등 각종 활동프로그램 제공’ 34.5%, ‘청소년축제 등 지역 청소년 행사 계획과 수행’ 23.5%, ‘자치단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조언과 평가’ 16.4%,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제공’ 12.6%, ‘정책관련 캠페인활동’ 9.6% ‘기타’ 3.4% 순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자치단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조언과 평가’,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해 여자보다 더 많은 응답

[그림 111-12]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주요활동



을 한 반면, 여자의 경우 ‘지역 청소년 행사 계획과 수행’,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제공’과 ‘정책관련 캠페인활동’에 대해 남자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남자가, ‘정책관련 캠페인활동’에 대해서는 여자가 많은 응답을 한 점이 큰 차이로 나타났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과 실업계 청소년 모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률 순위는 같았는데, 응답률 차이를 보면, 그 중에서 ‘지역 청소년 행사 계획과 수행’과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는 실업계 청소년이, 그 외의 활동에는 인문계 청소년이 더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청소년들은 지역의 청소년 행사나 프로그램에 관련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문계 청소년들은 지역의 청소년 정책적인 측면의 참여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대표위원회의 대표선정 방법

‘지역의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대표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본 결과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56.2%, ‘학생, 청소년단체 회원, 근로청소년 등을 일정비율로 선정’ 20.2%, ‘지역 내 학교별 학생대표자로 구성’ 10.6%, ‘지역별(구, 동별)로 청소년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정’ 10.4% 순의 응답률을 보여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구성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대표자를 선정할 때, 다른 원칙보다도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를 가장 큰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9> 청소년대표자 선정방법

(단위 : %)

청소년대표자 선정 방법	전체	남자	여자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 공개모집	56.2	49.7	64.7
학생, 청소년단체 회원, 근로청소년 등을 일정비율로 선정	20.2	20.2	20.2
지역 내 학교별 학생대표자들로 구성	10.6	14.9	5.2
지역단위(구·동별)로 청소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정	10.4	12.1	8.1
기 타	2.7	3.2	1.8

이러한 의견은 성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는 ‘학교별 학생대표자들로 구성하는 것’과 ‘지역단위로 청소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정하는 방법’에 여자보다 많은 응답을 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그 외에 ‘학생, 청소년단체 회원, 근로청소년 등을 일정비율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여 모두 동일한 비율의 응답을 하였다.

4) 청소년대표위원회 구성·운영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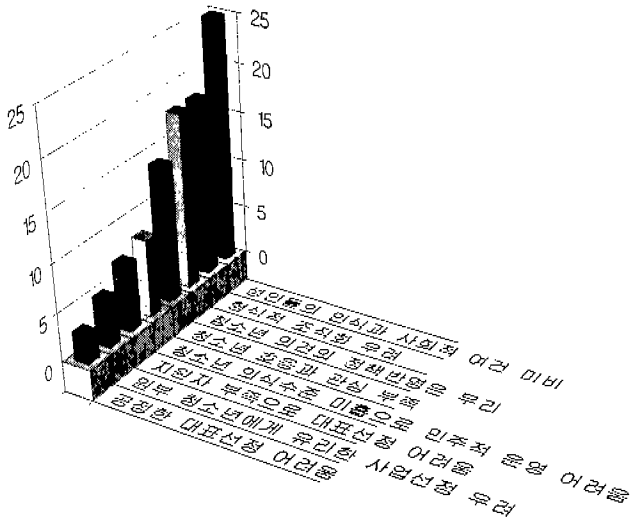
‘지역별로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성인들의 인식과 사회적 여건 미비’ 25.0%, ‘형식적 조직화 우려’ 18.3%, ‘청소년 의견의 정책반영은 무리’ 18.0%, ‘청소년 호응과 관심 부족’ 14.1%, ‘청소년 의식수준 미흡으로 민주적 운영 어려움’ 7.9%, ‘지원자 부족으로 대표자 구성 어려움’ 7.0%, ‘일부 청소년에게 유리한 사업 선정 우려’ 5.6%, ‘공정한 대표선정 어려움’ 3.7% 순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을 때 부딪히게 될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자질 부족 등 청소년 자체의 문제보다는 성인들의 인식과 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지적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참여가 활성화되고 구체적인 장에서 청소년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인식과 청소년의 참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회적인 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대표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참여기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참여 방안을 마련할 때, 제도 자체의 의미 또는 필요성 여부나 청소년들의 인식과 자질 부분뿐만 아니라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대표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인 가능성 타진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고 비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성인들의 인식과 사회적인 통념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자신감 및 자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자치활동 경험과 훈련을 통해 자기주장을 하고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이해

[그림 111-13] 청소년대표위원회 구성·운영시 어려움



하고 보다 나은 결론을 위해 타협할 줄 알고, 옳은 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절차를 배워나가며,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적인 훈련을 쌓는 민주시민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창안제 발전방안

1) 청소년창안제에 대한 인식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모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창안제(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청소년정책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고취시키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창안제”는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일종의 개별적 참여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형태의 참여방법이 보다 활성화되고 그 취지를 다하기 위하여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창안제”라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80.9%의 청소년들이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 34.7%, 바람직한 편 46.2%)라고 응답하였으며, 6.2%의 청소년이 ‘바람직하지 않다’(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4.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7%)고 응답하여, 대다수 청소년들이 “청소년창안제”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바람직하다 84.7%, 바람직하지 않다 4.1%)가 남자(바람직하다 77.9%, 바람직하지 않다 8.1%)보다, 그리고 인문계 청소년(바람직하다 70.1%, 바람직하지 않다 8.2%)이 실업계 청소년(바람직하다 83.6%, 바람직하지 않다 3.3%)보다 ‘바람직하다’는 데 더 많은 응답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와 실업계 청소년이 남자와 인문계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창안제”를 더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10> 청소년창안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매 우 바람직	바람직 한 편	그 저 그렇다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음	전혀 바람직 하지 않음
남 자	33.5	44.4	14.1	5.5	2.6
여 자	36.3	48.4	11.3	3.4	0.7
인문계	33.6	45.6	12.6	6.0	2.2
실업계	36.5	47.1	13.1	2.3	1.0
전 체	34.7	46.2	12.9	4.5	1.7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창안제 참가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9.6%, ‘참여해 보겠다’ 50.5%, ‘그저 그렇다’ 27.9%, ‘참여하지 않겠다’ 9.0%,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3.0%로 나타나, 전체 60.1%의 청소년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성별변인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여자(참여하겠다 64.4%, 참여하지 않겠다 9.1%)가 남자(참여하겠다 56.8%, 참여하지 않겠다 14.4%)보다 더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에는 남자(10.3%)가 여자(9.0%)보다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청소년창안제 응모 분야

“청소년창안제”의 아이디어 제안분야 13가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13개 분야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수련활동과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 12.7%,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및 전용공간 확대 방안’ 23.5%,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3.7%, ‘청소년 폭력예방과 인권신장 방안’ 16.7%, ‘어려운청소년 복지증진 방안’ 5.5%, ‘가출 및 약물남용 청소년 지원방안’ 7.0%,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방안’ 4.7%, ‘청소년참여 확대 방안’ 2.5%, ‘청소년 교류활동 활성화 방안’ 9.2%, ‘정보화능력 함양 및 컴퓨터이용 활성화 방안’ 7.4%, ‘청소년육성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방안’ 1.9%, ‘지역자원 활용 방안’ 1.2%, ‘건강한 소비생활 정착 방안’ 3.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은 문화·복지시설과 전용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폭력이나 인권문제, 청소년수련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청소년창안 응모분야

(단위 : %)

아이디어 응모 분야	응답률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및 전용공간 확대 방안	23.5
청소년 폭력예방과 인권신장 방안	16.7
청소년수련활동과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	12.7
청소년 교류활동 활성화 방안	9.2
정보화능력 함양 및 컴퓨터이용 활성화 방안	7.4
가출 및 약물남용 청소년 지원방안	7.0
어려운청소년 복지증진 방안	5.5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방안	4.7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 방안	3.8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3.7
청소년참여 확대 방안	2.5
청소년육성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방안	1.9
지역자원 활용 방안	1.2

반면에 ‘청소년육성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청소년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분야나 정책적 제안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타 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운 분야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3) 청소년창안제 발전 방안

‘청소년창안제의 의미를 살리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 마련’ 43.1%, ‘보다 많은 청소년참여 유도’ 22.7%, ‘청소년의 아이디어 직접 수행기

회 제공’ 14.8%, ‘청소년이 낸 아이디어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 11.9%, ‘자치단체별로 의견수렴’ 6.2%, ‘기타’ 1.1%의 응답결과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인 의견수렴행사 보다는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인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 차이에 있어, 여자의 경우,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 마련’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 수렴’에 대해 남자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외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남자가 조금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여자(48.6%)와 남자(39.3%)의 응답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학교계열별 차이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위의 응답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지만 그 외의 내용에서는 인문계 청소년은 특히, ‘청소년이 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할 것’에 대해, 실업계 청소년은 ‘청소년이 낸 아이디어를 청소년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II-12> 청소년창안제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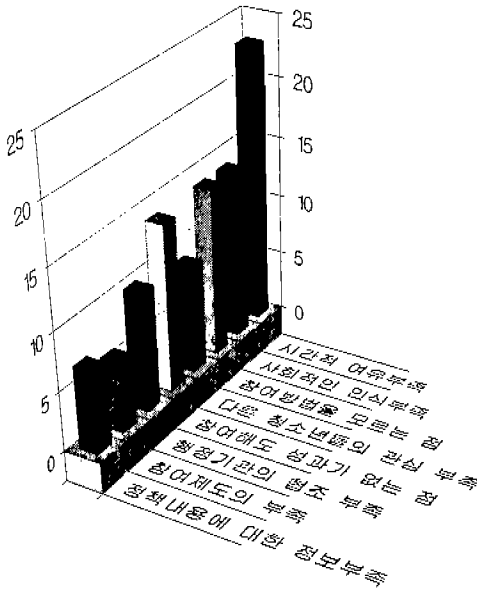
(단위 : %)

	정책에 반드시 반영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 독려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마련	아이디어 직접수행 기회제공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수렴	기타
남 자	13.6	25.5	38.3	16.7	4.6	1.3
여 자	10.0	19.5	48.6	12.9	8.1	0.9
인문계	14.0	23.9	43.6	12.0	4.9	1.6
실업계	8.9	21.4	42.0	19.1	8.1	0.5
전 체	11.9	22.7	43.1	14.8	6.2	1.1

4. 청소년참여 활성화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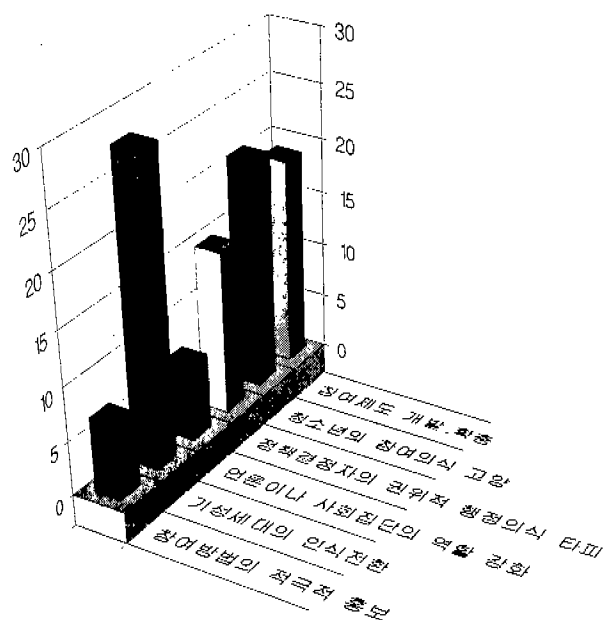
먼저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부족’ 23.4%, ‘참여해도 성과가 없는 점’ 14.8%, ‘사회적인 인식부족’ 14.1%, ‘참여방법을 모르는 점’ 14.0%,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 10.9%, ‘다른 청소년들의 관심 부족’ 9.0%, ‘정책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7.6%, ‘참여제도의 부족’ 6.3% 순의 응답률을 보여 시간부족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III-14] 청소년 참여활동의 어려움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 부족’(9.0%) 보다는 ‘사회적인 인식부족’(14.1%)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참여제도의 부족’(6.3%) 보다 ‘참여해도 성과가 없는 점’(14.8%)이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무조건 새로운

[그림 11-15] 청소년참여 활성화 요건



제도를 많이 마련하기 전에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나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 28.4%, ‘청소년의 참여의식 고양’ 21.4%, ‘참여제도 개발·확충’ 19.9%, ‘정책결정자의 권위적 행정의식 탈피’ 15.1%, ‘언론이나 사회집단의 역할 강화’ 7.6%, ‘참여방법의 적극적 홍보’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결국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지

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참여제도를 많이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탈피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제4절 청소년참여의식과 실태 요약

1) 청소년참여에 대한 일반인식

대부분의 청소년들(86.9%)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건전한 비판의식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74.7%)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제시한 모든 참여활동 분야의 필요성에 70%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여가·문화활동 86.0%, 경제활동 79.1%, 사회참여활동 77.6%, 개별적 의견 피력 84.4%, 공식적 의견 제시 71.2%)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가·문화활동 분야에서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책과정 참여보다는 청소년 관련 문제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의 참여활동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에 대해 82.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9.2%의 청소년이 참여기회만 생긴다면 정책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은 충분히 정책과정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참여기회 확보라는 객관적인 여건만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참여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의의에 대해서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고능력의 신장이나 시민의식 함양(27.2%, 22.2%)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제고나 지역사회 문제해결(13.4%, 3.2%)이라는 결과적

인 측면의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34.0%)는 점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청소년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31.5%)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적당한 정책에 대한 제안 24.3%, 정책효과 평가 20.1%, 시행 중인 정책지지 15.0%, 정책 집행과정 감시 6.6%)

요약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청소년 참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과정 참여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참여 여건만 마련된다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보다도 청소년도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공식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 긍정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지위와 참여 실태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51.1%(‘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키면 80.6%)의 청소년이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청소년 참여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70.6%, ‘그저 그렇다’를 포함하면 95.4%)으로 인식하고 있어 적어도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 현황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낮다(73.3%, ‘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키면 92.6%)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국가적인 관심이 부족하다(52.7%, ‘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키면 76.8%)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30%의 청소년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83.7%의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경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참여 가능성을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참여제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현재 만 20세에서 18세 정도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 40.2%의 청소년만이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거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중 18세 이상은 26.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의 실태와 관련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은 32.8%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청소년은 20.7%에 불과했으며, 80%에 가까운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청소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은 1.4%였으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79.1%로 나타나(‘그저 그렇다’의 경우를 부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한다면 91.0%) 청소년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73.4%, ‘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키면 93.7%) 자신들의 의견이 지역의 청소년정책과정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의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로는 행사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부족(60.7%)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시간이 없어서’ 13.2%,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12.0%, ‘관심이 없어서’ 11.2%,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2.9%)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에 필요한 주관적 여건(청소년들

의 자질과 능력 등)과 객관적 여건(사회적 인식,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 청소년 참여활동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지역 청소년정책 및 사업 인지도·참여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저조 원인으로는 정보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참여방법과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방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캠페인활동 등 비제도적인 참여방법(59.2%) 보다는 공청회나 간담회(70.6%), 참여를 위한 공식기구 운영(74.1%) 등 제도적인 참여방법을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직접 의견을 발언해야 하는 방법(70.6%)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견제시(79.5%)를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72.7%의 청소년이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의보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집단적·조직적 참여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참여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청소년모임’을 통한(34.6%) 집단적인 참여방법에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으며, 개별적인 의견제안 방법 중에서는 ‘행정기관의 민원창구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것’(7.7%) 보다는 ‘신문이나 방송을 활용’(20.0%)하는 것에 더 많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역시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행정기관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있으며 의견제안에 있어서도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활동의 하나인 청소년대표위원회에 대해 78.9%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청소년

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34.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대표위원회의 대표자는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률(56.2%)을 보였으며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을 때 부딪히게 될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자질 부족(14.1%, 7.9%) 등 청소년 자체의 문제보다는 성인들의 인식과 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점(25.0%)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지적하였다.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일종의 개별적 참여형태의 하나인 “청소년창안제”에 대해 80.9%의 청소년들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창안제” 참가 기회가 생긴다면 60.1%의 청소년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창안제의 의미를 살리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으로 ‘상시적인 의견수렴제도 마련’(43.1%)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일회성 행사 보다는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으로는 시간부족 문제(23.4%)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적인 인식부족’ 14.1%, ‘참여방법을 모르는 점’ 14.0%, ‘다른 청소년들의 관심 부족’ 9.0%, ‘참여해도 성과가 없는 점’ 14.8%,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 10.9%, ‘참여제도의 부족’ 6.3%, ‘정책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7.6%) 한편 ‘청소년들의 관심 부족’(9.0%) 보다는 ‘사회적인 인식부족’(14.1%)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참여제도의 부족’(6.3%) 보다 ‘참여해도 성과가 없는 점’(14.8%)이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무조건 새로운 제도를 많이 마련하기 이전에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나 대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기성세대 인식 전환’ 28.4%, ‘청소년의 참여의식 고양’ 21.4%, ‘참여제도 개발·확충’ 19.9%, ‘정책결정자의 권위적 행정의식 탈피’ 15.1%, ‘언론이나 사회집단의 역할 강화’ 7.6%, ‘참여방법의 적극적 홍보’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결국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참여제도를 많이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탈피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의 방법으로 제도적·공식적·집단적 참여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식적 참여의 하나인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활동의 어려움으로 시간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이라는 사회적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필요로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청소년들의 자질과 능력이 미흡한 편이며, 특히 기성세대의 인식부족, 참여제도와 경로의 부족, 행정정보의 부족, 시간부족 등 사회적인 제반 여건이 제한요건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청소년 참여실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회만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며 청소년 참여방법은 제도적이고 공식적·집단적인 참여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청소년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회의 한 주체이자 성인과 같은 시민적 권리와 지위를 갖는 존재

로 인식하는 사회 전반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며,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청소년 참여방법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적 여건과 경로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펴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참여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제반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참여자질을 배양시켜줄 수 있는 민주시민자질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IV 장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주요 사례

제 1 절 국내 청소년참여 사업 사례²²⁾

청소년 참여활동을 정책과정 참여의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행정과정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권한과 역할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는 정도와 수준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제반 사회문제에 대해 주장을 밝히는 여러 단계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활동은 그 내용과 형태에 따라 그리고 제도화 정도나 주도권의 소재, 또는 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참여유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참여 사업은 크게 청소년관련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을 통한 정책과정 참여적 의미의 참여사업, 즉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식 기관의 발의에 의해 시작된 공식적 참여사업과 민간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회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참여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참여의 수준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부터 공식적인 의사발언권과 결정권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공식적인 정책과정 참여까지 다양하다. 현단계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의 현황은 선진 외국에 비해볼 때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22) 이 부분은 충청남도 체육청소년과, 서울시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서울걸스 카운트엔, 광주·홍성YMCA, 부천시청소년수련실, LG에드 PR팀 해당사업 담당자 여러분의 협조로 구성되었다.

수 있는데, 이는 질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참여활동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형태와 내용을 일괄적인 틀로 분류해 내기 쉽지 않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며 편의상 자치단체 중심의 참여활동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참여활동,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참여 사업을 분류해 보면, 청소년시책모니터단,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 및 토론, 대전사랑토론회, 청소년시책 아이디어 공모, 청소년구정평가단, 청소년창안제 등은 전자의 예로 볼 수 있고, 청소년토론의 광장, 환경탐사자원봉사활동, 녹색봉사단, 청소년기자단 등 민간 청소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참여활동은 후자의 사례로 들 수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걸스카우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위원회’ 활동이나 1996년도에 시도되었던 ‘서울청소년위원회’ 활동은 그 의미나 형식이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후자의 영역에서 다룬다. 또한 이 영역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청소년참여의 사례와 최근들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적인 청소년활동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참여 사업의 내용과 실태 및 그 전망과 평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각 참여사업 사례는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참여관찰 및 담당자 면접 등을 통해 조사되었는데, 직접 면접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서면을 통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치단체와 민간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담당자 면접조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소개와 평가에 대한 내용이며, 둘째는 사업수행 경험을 토대로 한 담당

자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공식조직을 통한 청소년의 정책과정참여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다. 즉 청소년 참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청소년참여를 위한 여건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한다.

1.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과정 참여활동

1) 청소년 시책모니터단

① 주요활동내용

청소년시책모니터단은 지금까지 도 시책의 기획·입안·시행·평가 과정에 주인공인 청소년이 배제되고 있어 그들의 욕구가 시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도 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이러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청소년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시책모니터단은 1996년 1월 24일 제 1기 모니터단이 위촉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은 처음에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1997년의 경우 사업예산은 도기금 120만원으로 이루어졌다. 모니터단의 구성인원은 총 60명으로 단체가입 청소년, 중·고등학생, 어려운청소년 등 지역별 청소년 인구비율에 따라 선정된 다양한 계층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현재 충청남도는 총 15개 시·군으로 구성) 가능한 성별 비율을 똑같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촉된 모니터단은 1년을 단위로 활동하며, 활동실적을 평가한 후 12월 중에 다음 해 모니터단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한 번 활동했던 사람이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평가 결과 참여도가 낮은 사람은 탈락되기도 한다. 자격은 원칙적으로 17세이상

의 청소년이며 추천된 청소년 중 활동에 동의하는 사람은 “충청남도청소년모니터 승낙서”를 작성하고 위촉장을 받음으로써 정식 단원으로 인정된다.

모니터단은 시·군(시·군당 2~4명씩 총 45명) 및 청소년단체(5개 단체에서 3명씩 총 15명)에서 추천하고 도에서 최종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모니터단으로 위촉된 청소년들은 도 시책 현황과 모니터제도 운영방법 등에 대한 모니터요원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관련시책의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책 제안, 구체적인 시정 방안 건의, 여론수집 제보 및 미답사례 통보 등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며, 청소년들간의 수련활동이나 국외 연수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들이 정책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정기적(또는 수시로 가능) 서면, 전화, 설문조사 실시(연 2회), 간담회, 의견제출용 봉합엽서, 팩스나 컴퓨터의 충청남도 의견제안 코너(“밝은 충남 도민광장”)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우수모니터단의 경우 연 1회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박2일 동안의 수련활동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도지사와의 토론회”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도지사에게 청소년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새로운 시책 등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1997년도에 시책모니터단원이 봉합우편이나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 및 시설(자전거, 로울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광장 등) 마련, 청소년 휴식공간(청소년 비디오방, 청소년노래방 등) 확충, 유흥업소 이용청소년 단속, 대학가 주변 자취방 부당요금 개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연극공연 등 개최, 청소년 유해 비디오물 대여 단속, 학교 근처 가로등 시설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의 건의가 들어오는데, 특히 청소년을 위한 문화·여가시설 등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모니터단이 제출한 건의내용은 담당자가 종합·정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충청남도에서는 우수모니터단원 표창, 각종 소식지 등 홍보물 배부, 공공예술단 초청권 배부, 수련활동이나 국외 연수활동 등의 청소년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 모니터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② 운영현황 평가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

다음은 담당자와의 면접과 관련자료를 통해 본 시책모니터단 및 전반적인 청소년참여에 대한 평가로서 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다.

사업 담당자는 청소년시책모니터단의 성과 및 효과가 청소년들이 도정 및 시책을 접해보고 참여 경로를 통해 직접 참여해 보는 경험을 쌓는 것에 있으며,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며 현실적인 정책마련에 도움을 주며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업 운영과정 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으로는 모니터단원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이나 건의사항이 중앙의 정책이나 사회전체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접수된 의견 처리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알리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또 하나의 업무 부담으로 가중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도 어려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모니터단원 자체의 문제로는 먼저 활동실적이 있는 모니터단과 그렇지 않은 모니터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번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모니터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니터단으로 선발되고서도 무관심한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참여사업의 발전적 전망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무관심, 참여자 자체가 귀찮아하거나 입시위주교육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그리고 담당자나 상급자의 열의 여부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여건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성적이나 입시제도 등에만 관심이 있으며 청소년참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과연 되겠느냐?”하는 불신감이 깔려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리 사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주체들도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등 참여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이 부진한 모니터단을 정비하고 모임과 토론시간을 자주 갖고 의견 제출 경로를 다양화 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쪽지제도로서 상담실, 터미널,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 등에 봉합엽서식 쪽지를 비치해 놓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관련 모임 즉, 공청회, 심포지움, 워크숍 등에 발표자나 참관자로 참여하는 방안, 청소년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생 동아리를 결성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그들이 청소년시책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사업 담당자의 의견과 함께 시책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면으로는 지역의 청소년문제와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알게 되고 관심이 증대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점,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아

쉬웠던 점으로는 모니터단이나 청소년들이 지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현실, 모니터단원에게 실질적인 힘이 별로 없는 점, 단원의 수와 만남의 횟수가 적다는 점, 실제적인 활동이 미약하여 형식적으로 되어갈 우려가 있다는 점, 홍보부족 및 정기모임이 부족한 점 그리고 청소년 의견의 정책반영 비율이 적은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모니터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홍보를 강화하고 단원들의 수와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 단원 대상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단원들 간의 연락망을 긴밀하게 구축하는 일 등이 제안되었다.

직접 참여활동을 해본 결과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 청소년 정책과 구체적인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부족, 성인들의 이해부족, 관련 프로그램 부족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자원 및 관련 전문인력 지원, 입시위주 교육여건 개선, 성인들의 인식 전환, 다양한 참여기회 확대,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물어본 결과 주로 ‘학교’를 활용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복지 담당과에서 학교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점차 상위 기관으로 수렴하는 방법, 각 학교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는 ‘우체통’을 설치하는 방법, 학교 단위로 청소년모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공식적인 청소년기구 결성 등의 의견도 제안되었다.

③ 공식조직을 통한 청소년참여에 대한 의견

여기에서는 청소년대표위원회(가칭)와 같은 공식조직을 통해 청소년

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담당 실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청소년시책모니터단과 같은 참여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시도하였다.

먼저 그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며 실제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참여시민의식을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보여주었다.

한편 주·객관적 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대표위원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질문에 대해 몇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먼저, 청소년들의 현실 참여에 대한 의식 미흡, 청소년 조직에 대한 관계 기관 등의 막연한 기피 또는 회의감이 있다는 점,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우려되는 점, 그리고 입시위주 교육여건 등으로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들도 시간확보를 위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청소년의 정책과정참여에 대해서는 현실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구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는 문화체육부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중앙단위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기구 설치 단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 수준으로 하고 대표자는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학생, 장애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여 각계 각층의 청소년을 공모·추천하고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는데, 선출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유인가를 제공하고, 1년 단위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중앙 및 지방 청소년시책에 대한 토론 및 건의·제언,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일반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토의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도 청소년 정책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8년도부터는 도정전반에 대해 “청소년창안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존의 참여사업을 강화·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소년시책에 대한 장기비전을 마련할 때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한편, ‘청소년대표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공식조직에 대해 시책모니터단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 또한 알아보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는데, 현실점에서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시범운동을 해 볼 것, 청소년들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단서로 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실화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의 시간부족과 관심부족, 성인들의 이해와 인식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대표자 선정은 자발적인 신청,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는 면접, 학교 등의 추천, 투표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및 활동 관련 사업,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청소년들의 의견 교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점으로 그 의의와 중요성 홍보, 구체적인 운영지침 등의 개발, 청소년들의 의식 개선 등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한 청소년에 대해 대학입학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보상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점, 도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반드시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도의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 활성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²³⁾

① 주요 활동내용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 프로그램은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어울마당”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미래 충남발전의 꿈나무들과 함께 어울리며 도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도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자 함’²⁴⁾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민선자치도정 2년제를 맞아 청소년들과 미래 충남 발전을 논의하는 의미를 가지며 도지사와의 대화 및 토론뿐만 아니라 어울마당 형식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현장연수, 강연 등의 유익한 내용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도지사와 솔직한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평소에 도정책에 대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건의사항 등을 자유스럽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도에서 활동하는 시책모니터단을 포함하여 전체 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청소년육성기금과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한 500만원 정도로 참가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없다. 사업진행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전 과정은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친다.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박

23)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별책으로 발간된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에 소개되어 있다.

24) 충청남도, “1997년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어울마당 개최계획서”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997년도 참여자는 도 청소년시책모니터단 23명, 도 영재장학생 35명, 근로청소년장학생 5명, 정부 및 도 선정 모범청소년 12명, 청소년 문학작품 공모 수상자 25명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별, 학교별로 인원이 적절히 안배되도록 유의하여 선정한다. 행사 전에 개별적으로 초청장과 안내문을 보내고 차량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한다. 참고로 1997년도의 행사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어울마당 주요 행사내용

- ▶ 도정설명 : '97 도정 및 장기 발전계획 개요 설명, VTR 활용(기획판설)
- ▶ 도 청소년 시책설명 :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설명(도 체육청소년과)
- ▶ 조별 모임 및 심성계발 프로그램
- ▶ 강의 : 2000년대를 준비하는 청소년
- ▶ 만남의 시간 : 소집단 놀이 및 게임
- ▶ 도지사와 대화 및 토론 : 주제 “도지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및 “충남발전, 내가 도지사라면”
- ▶ 도지사와 저녁식사 및 대화
- ▶ 함께하는 어울마당 : 모닥불의식, 레크리에이션 등
- ▶ 도정 현장연수 : 백제관련 역사·유적지 및 건설현장 등

자료 : 충남체육청소년과(1997),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어울마당 개최계획”

도지사와의 대화 및 토론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 데 한 가지는 “도지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도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충남발전, 내가 도지사라면”이라는 주제로 도지사의 입장에서 충남발전에 대해 생각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행사 전 참가자에게 보내는 초청장에 미리 예고를 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오도록 하여 활발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은 담당자가 종합·검토하여 관계 기관(부서)에 시정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수합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처리결과를 우송하고 있다.

② 사업진행 현황 - 참여관찰기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어울마당”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참여사례이자 몇 가지 여건만 갖춘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급 가능한 내용이기에 연구자들은 관심을 갖고 조사작업을 시작하였고, 실제로 1박2일 동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아래는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어울마당에 대한 참여관찰 자료와 참가자들의 소감문, 그리고 행사 후 자료집으로 만들어진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어울마당은 1997년 7월 31부터 8월 1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의 프로그램인 ‘도지사와의 대화 및 토론시간’은 원래 1시간 30분 정도로 예정되었지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이후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긴장하여 선뜻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다가 일단 몇 번의 발표가 진행되자 나중에는 한꺼번에 많은 청소년들이 손을 들어 오히려 진행자를 당황시키기도 하였다.

몇 가지 대표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산업체 부설학교인데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니 지원을 해주셨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공사가 잘못되어 대형트럭이 지나가면 집이 흔들리니 시정해 주시기를’ 하는 다소 개인적인 차원의 건의사항부터 ‘도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니 효과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충남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정책적 지적까지 다양했다. 마치 그동안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은 담고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년들의 의견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열의에 못지않게 도지사의 답변내용이나 자세 또한 인상적이었는데, 각각의 질문에 대해 바로 자세한 답변을 해주고, 시정내용 뿐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질문하는 청소년들 하나하나에게 살아가면서 꿈과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 어우러져 토론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게 느껴졌다.

한편 연구자가 느꼈던 이러한 분위기들은 참가자들이 행사 마지막 시간에 작성한 소감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도에서 온 행사 초청장을 받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 - 이 점은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 , 공부시간을 뺏긴다는 생각 등으로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별 기대없이 자의반 타의반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 “오지 않았으면 후회할 뻔 했다”, “너무 좋았다”는 내용을 적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친해질 수 있었다는 점, 그 동안 도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 특히 도지사와의 토론 시간을 통해 충남을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갖고 나니 도지사님과 충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커졌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비록 자신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지역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반성하게 되었고 자신의 예상외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행사 프로그램 중 VTR을 통해 도정을 알게 된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도지사님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해결책을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참가자도 있었고 대부분 시간이 너무 짧다고 적고 있었다. 특히 이렇게 좋은 기회에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이런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한정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면 자신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다리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③ 사업 평가 및 전망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도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의견을 실제 도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책결정자가 그 동안 미성숙하고 어리게만 취급되고 모든 지역사회 정책결정과정에서 그 의견이 배제되어온 청소년층을 직접 마주 대하고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도지사가 직접 청소년들이 건의한 사항을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결과를 처리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면 관계 상 전체 내용을 실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청소년들의 건의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사례²⁵⁾

- ▶ 산업체 부설학교에 컴퓨터 지원 요망 → <단계적 조치> 9월 11일. 우선 사용가능한 컴퓨터 20대 전달 (체육청소년과)
- ▶ 도의 청소년시책에 대한 홍보대책 필요 → 도정신문은 9월부터, 청소년소식지는 가을호부터 학교, 도서관 등에 확대 배포 (공보관실, 체육청소년과)
- ▶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대 설치 필요 → 9월 1일. 18개반 48명(지방청 1개반 2명, 18개 경찰서 46명)으로 뺑소니 수사전담반 발대 및 인력·장비도 대폭 보강하였음 (지방경찰청)
- ▶ 횡단보도가 지워져 있어 위험함 → 8월 10일~8월 23일. 보수대상 횡단보도 7개소 도색 완료 (논산시)

25)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부서에 시정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자료화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보내진다.

- ▶ 서천 장항읍 변두리 지역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어 쓰레기를 타 지역으로 들고 나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음. 처리 요망 → 변두리 지역은 자가처리가 대부분이므로 주1회 청소차량 순회중이나 일부 배출쓰레기의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규정에 의거, 수거 지연 (환경관리과, 서천군)
- ▶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의 환경정책방향은 수질, 대기, 토양오염 외에도 산허리를 자르는 등 인성을 파괴하는 환경오염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임. 도의 환경정책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송부할 예정. 8월 25일 우선 발언학생에게 용역요약보고서를 송부함

자료 : 충청남도(1997),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물론 토론 시간에 청소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청원부터 포괄적인 정책문의까지 다양하며, 참여한 청소년 하나하나가 ‘청소년대표’의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수상경력이 있는 모범청소년의 성격을 가지며 형식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과 노동계층 청소년을 포괄하기 위해 자격기준 마련에서 고려하고 있지만 그들이 충남의 모든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소감문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자신이라도 그들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한가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어울마당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보다 친숙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도 정책관련자를 만나 토론만 한다면 청소년들은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과 현장체험활동, 강연 등 유익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청소년들을 보다 즐겁게 하면서도 뜻있는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소감문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나타낸 바 있다.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열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가 양과 질 양면 모두 현격히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경우 위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도정책을 운영할 때 청소년들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육성 시책에 대한 지역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발표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전체 600명 정도로 예정된 참가자 중 도의 청소년육성 시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한 자격을 가지고 131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공식 초청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 등에 정작 주제가 되는 청소년들은 준비과정에서도 진행과정에서도 제대로 참여하도록 배려받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대표와 도지사와의 대화” 사업은 그 수준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개별적인 참여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지역청소년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평소에 느꼈던 점에 대해 건의하는 정도인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의견함에 의견을 접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처리결과를 바로 약속받는다는 점에서 어느정도의 공식성을 갖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건의사항 접수의 형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공식성을 띠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한이 증대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 회의의 정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의 자체의 공식성과 권한 확보 및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수준의 참여활동의 하나로써, 특히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대표와 도지사와의 대화”는 우리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적극적인 참여사업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3) 청소년창안제도

청소년창안제도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당선된 청소년들에게는 시상하며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1995년 제1회 청소년창안제가 실시된 바 있으며, 1997년 현재 제3회 행사가 치러진 바 있다. 참가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이며 제안배경과 필요성,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200자 원고지 10내외의 정책제안을 보내면 심사한 후 시상하고 이후 청소년들의 정책적 의견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를 관계 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리게 된다.

공모주제는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여가생활, 문화·복지시설 및 전용공간, 자원봉사활동, 폭력예방, 어려운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청소년참여 확대, 국내외 교류활성화, 정보화 능력 함양, 청소년건전육성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 건전 소비생활 등 청소년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언이나 개선방안 등을 담은 내용이면 된다.

이 사업 역시 홍보부족, 청소년들의 시간적 여유 부족, 관심 부족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본 결과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보다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를 마련할 것,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은 직접 수행해 보게 할 것,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의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중앙단위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청소년창안제는 그 의미를 가지나,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정책아이디어로 제시되는 청소년들의 의견 대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지나치게 거시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정책 관련 홍보가 필요하며, 중앙단위의 정책제언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정책제언을 받음으로써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즉시 검토·수용되는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창안제를 시행하기로 한 점은 좋은 시도로 보여진다.

4) 청소년 구정평가단

① 주요 활동내용

서울시 송파구는 각계각층을 행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지금까지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주인공인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개선하여 청소년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미래 발전계획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즉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기구라

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바람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설령 여건상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정책입안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배경이라는 점이다. 특히 송파구 전체 인구의 약 22%가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 계층이며, 청소년들은 대부분 관내에서 생활하므로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계층이며,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지역순환버스, 공원, 도로, 도서관, 독서실, 종합복지관 등)의 주 이용자이면서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시설과 제도에 대해 단순히 수용할 것만 강요받았지 청소년이 행정에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인식이다. 즉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청소년을 중요한 행정수요계층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구체적으로 구의 주요시책과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참신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구시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기타 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건의한 사항은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

구정평가단의 구성은 송파구에 있는 총 72개의 초·중·고등학교 장으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명 등 25명을 선발하였고, 동장 추천을 받아 2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총 5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였다.(1997년 1월 30일) 초·중·고생의 경우는 2차적으로 학부모 동의를 얻어 평가단원으로 인정된다. 청소년평가단은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현실적으로는 방학 중 2회 실시)과 수시모임을 갖고 우편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해 구청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원간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학 중 수련회 개최, 토·일요일

에는 각종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1997년도에는 예산을 따로 책정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 답례품 등의 운영비로 150만원 정도가 사용되었으며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원래 이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제안하여 시행해 보도록 하였으며 사업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7년 주요활동으로는 소각로 점화식 참석, 서울시장과의 만남,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 참여, 청소년원두막짓기대회 참가, 기타 주요 구행사 참석 등이 있으며 구정평가단이 제출한 건의사항은 총 97건 정도에 이른다.(최종 집계는 아님) 건의사항으로는 교육, 공원, 교통, 도로, 문화, 주차, 체육, 통신, 행정,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는데, 건의사항을 통해 개선된 몇가지 주요사항의 예를 보면, 횡단보도 내 맹인을 위한 잘못된 음성 서비스 정정, 도로와 주택에 지번표지판 부착,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건립, 문정동 로데오 거리의 쓰레기통과 주차공간 불편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해결한 내용 등 다양다. 그 외 몇 가지 청소년들의 건의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건의사항 처리현황 사례²⁶⁾

- ▶ 어린이 놀이터 정비(방법활동 강화) → 놀이시설물 일제 정비, 관찰 파출소에 방법활동 강화 요청 (공원녹지과)
- ▶ 석촌 지하차도 복단 횡단보도 이전 → 육교 설치 예정('97. 10월) (교통행정과, 토목과)
- ▶ 학교벽 벽화제작 및 “자연의 소리” 방송 → 교육구청과 지하철 역장에게 건의, 장기적 검토 약속 (교육구청, 지하철역장)

26) 청소년들이 건의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다. 특히, 해당사업 담당자가 건의자에게 진지하고 성실한 내용의 편지형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어 인상적이다.(별책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참조)

- ▶ 백제고분 네거리 보도블럭 정비 → 침하된 보도블럭 정비 완료 (토목과)
- ▶ 버스 안내판 정비(버스 이용불편 해소) →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시정 지시 (교통행정과)
- ▶ 사설학원 수강비 은행지로용으로 징수 → 강동교육구청에 건의 (교육구청)

자료 : 송파구(1997), “청소년구정평가단 회의자료”

② 사업운영 현황

사업 담당자는 구정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직접 구행정을 평가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대부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줄으로써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게 되므로 호응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물론 아직은 시행 초기이며 정착단계이지만 청소년들이 구행정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며,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로 송파구에서 청소년수련원과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설계하기 전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의견을 조사·수렴하여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1997년 10월 28일 공포·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할 때, 법제화를 통해 구정평가단의 의의와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한 점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업 운영과정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구정평가

단의 경우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참여는 활발한 반면, 고등학생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과중한 입시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학교별로 1명씩 위촉되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단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결국 학기 중을 피해 방학을 이용하여 모임을 가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한편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현재 운영중인 50명의 인원을 1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며, 현재는 여름과 겨울방학 연2회만 개최되는 평가단 모임을 초·중·고·대학생별 또는 지역별 분임모임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심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이 법제화되었으므로 평가단원을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 의욕적인 청소년들을 많이 선발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 사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청소년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부서간 업무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구행정에 대한 기획·조정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이 강한 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일례로 청소년들이 건의한 다양한 내용들은 관계 부서로 통보되어 처리되고 그 결과를 다시 종합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힘있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업무와 제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참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타자치단체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업평가 및 전망

청소년 참여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구

행정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지역발전계획이나 문화·복지시책은 물론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시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청소년의 의견이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보다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방학 기간 외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일반 성인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무슨 행정을 평가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에 불쾌해 하거나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왜 어른들 일에 참견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 조례를 제정할 때 실제로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구청 공무원들은 청소년들의 의견에 매우 우호적이며, 대부분의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건의사항은 모두 수용하여 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한다.

학교 공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꺼리는 일부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평가단의 부모들도 좋은 사회경험이라는 데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물론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평가단원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지역문제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준에서는 단원들의 건의 내용은 생활주변의 불편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시정사항이 대부분이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고충처리 요청이 아니라 보다 정책적인 차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다. 즉, 구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지역의 어떤 시설이 훼손되었으니 수리해 달라는 차원의 건의가 아니라, 송파구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

설이 필요하니 정책적으로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구정평가단에게서 더 듣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책과정 참여 의미를 올바르게 살리고자 하는 바람직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시책아이디어 공모 등 그 외 청소년참여사업

① 청소년 해외연수자 모집을 위한 시책아이디어 공모

이 사업은 과천시에서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대상자를 모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당선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발 방법이 시정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여 우수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하게 된다. 정책아이디어는 일정한 양식과 수준을 갖춘 논문형식으로 제안을 받는데, 1997년에는 ‘과천시정 발전을 위한 시책’,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시책’, ‘과천에 알맞는 사회복지 시책’ 세 개의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대전사랑토론회

이 사업은 21세기 지역사회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고 청소년들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의식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시대의 열린 시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 스스로 토론을 이끌어 가도록 하며, 주요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전사랑토론회는 전체 행정 분야에서 ‘대전사랑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맥락과 함께하여 청소년 분야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하나로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교 학생 대표, 한발청소년대

상 수상자, 정부모범청소년 선발자, 모범자원봉사 청소년 등 총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1박2일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처음에 담당국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도에는 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울마당, 강의, 등반, 대화 및 토론 등이 있는데, 이 대화 및 토론 시간에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대전 사랑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며, 평소 시장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③ 또래청소년봉사회

또래청소년봉사회는 대전시 중구청에서 동단위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또래청소년 선도, 유해환경추방캠페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래청소년봉사회는 또래청소년의 자율적인 선도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을 체계화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동단위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로 운영하고 있다. 간사는 동청소년 담당자가, 고문은 동장과 파출소장이 되며, 동청소년지도협의회와 지역 독지가,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지도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다. 동사무소 회의실을 봉사회사무실로 활용하며, 다양한 체육·문화행사 참여 등으로 봉사회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유해환경 등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캠페인 활동이나 기타 봉사활동을 펼치며 또래청소년 대상 선도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참여적 활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④ 도 영재장학생 시책연구과제 모집

충청남도에서 지역의 정책과정에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도 영재장학생 시책연구과제 모집” 사업이다. 이것은 도 영재장학생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생에게는 반드시 부여되는 과제이다.

도에서는 영재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7페이지 정도의 ‘연구과제 수행보고서’ 양식을 배부하며 몇 가지 연구과제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는데, 장학생들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과제를 작성하여 별도로 지급된 봉투에 넣어 우편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기한 내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게 되므로 일정정도 강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출된 과제별로 소관부서(기관)에서 자체 심사한 후 과제내용은 소관부서(기관)별로 시책에 반영하게 된다. 구체적인 심사과정은 심사부서에서 심사자를 자체 선정하여 과제내용은 총 100점 만점(시책반영 가능성 50점, 참신성 30점, 노력성 20점) 기준으로 배점결과에 따라 제출인원의 10%를 1차 선정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체육청소년과에 송부하면 1차 선정된 과제를 형식상 요건 100점 만점(논리성 50점, 글씨 20점, 성의 30점) 기준으로 하여 우수과제 10명을 선정하게 된다.

시책반영은 먼저 과제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소관부서별로 종합하여 체육청소년과로 송부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총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시책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게 되는데, 타 기관(부서)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앙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은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997년도에 제시된 과제명을 살펴보면, ‘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 청소년의 흡연 및 약물사용 실태와 예방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정화대책’, ‘도덕성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스승존경운동 실천방안’, ‘고향사랑정신 실천방안’, ‘물가를 잡으려면’, ‘21세기 바람직한 남녀 의식’, ‘충남 엘리트 체육의

발전 방안’ 등이 있다.

우수과제 제출자는 10명 내외로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고, 청소년대표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도정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학 중 희망자에 한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해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에 그 내용을 홍보하게 된다. 물론 처음 소개한 바와 같이 제출된 내용은 도 시책에 반영한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창안제”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여 대상이 도 영재장학생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사업 역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 물론 일부 청소년이지만 - 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참여 사업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참여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은 1988년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청소년창안제”를 실시하기로 한 점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민간단체 청소년활동 중심의 참여사업

1)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위원회’

① 주요 활동내용

걸스카우트연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위원회’활동은 사실상 하나의 사회참여활동이라기 보다 정책과정 참여의 의미를 갖는 활동이다. 즉, 이 청소년위원회는 걸스카우트 정책수립 시 활동의 주체인 대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대원들의 요구에 맞게 걸스카우트연맹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소년위원회의 참가자격은 전국의 연장대원(고등학생) 및 연구대원(대학생) 대표 12명 내외인데, 각 지방연맹에서 대표 대원들을 선

정하여 추천하면 중앙본부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추천대상은 지속적으로 최소 2년 이상 걸스카우트 활동을 한 연장·연구대원,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걸스카우팅 경험이 있는 대원, 걸스카우트 활동 외에도 다른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는 대원, 건강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활동적인 대원 등이다.

대표자는 각 지방 소녀기획위원 중 대표 한 명씩을 포함하고 있고 전국 연구대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 1년의 당연직 임원이 된다. 활동기간은 2년 단위이며, 위원회 정기회의는 5월과 11월 연 2회 개최하여 연맹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주요 역할로서 전국차원에서 전국 이사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리기, 청소년들의 요구와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대원행사의 계획·실행, 연맹의 지도력을 지속시키고 새롭게 하기, 소녀와 젊은 여성의 발전을 위한 문제 규명에 기여하기, 각 지구 및 지방연맹 차원에서 소녀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표본이 되고 각 지역에서 구성하도록 격려하는 등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에 따르는 책임으로는 연 2회 개최하는 회의 참석, 기밀 유지, 위원회 의장은 전국이사회와 협력하고 전국총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의무 등이 주어지며 필요할 때는 서신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회의 참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때 소요되는 최소 경비는 연맹에서 지급한다.

1994년 5월 최초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4년과 1995년 각각 두 차례의 청소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6년 1월에는 전국 청소년위원과 소녀기획위원 및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포럼을 개최하였다. 청소년포럼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서 일선 대원들의 의견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렴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의견 발표의 장을 제공하여 대원들의 활동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수행되었다.

또한 중앙단위의 청소년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각 지방연맹과 지역연맹이 지방별로 10명 이내의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필수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의 청소년대표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회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세계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정치·경제·외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참여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원회 대표들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② 운영현황 및 사업평가

사업 담당자의 평가에 의하면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대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하며, 1기 구성 때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많은 대원들이 참여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성과 및 효과로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피부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사업 효율성이 증대된 점, 청소년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바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운영이 가능한 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 제시와 토론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논의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활동의 만족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 단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걸스카우트 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청소년들의 반응 또한 많은 대원들이 활동에 만족해 하고 후배나 다른 대원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싶어하며, 토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성과 긍정성을 갖

게 되었다는 점, 사고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회의 운영 방법을 습득하고 의견 제시 방법을 체험한 점 등을 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대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도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의견에 수용적일지에 대해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으로는 진학을 위한 학업문제로 위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 토론문화의 미흡으로 의견 수렴 및 토의의 적극성 부족, 지방단위의 위원회 구성 미비로 전국단위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점, 지속성과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연맹 단위의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밑받침이 튼튼한 전국청소년위원회로 성장시키고 다양한 사업 수립 및 운영 계획으로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청소년 참여사업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 조직 내에서 청소년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어른들이 만들어 그대로 따르도록 제공해 주는 정책이 아닌 청소년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정책은 더욱 지지받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인식과 문화의 괴리감과 의견 교류의 차단에서 오는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자질교육, 청소년들의 문화와 사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사회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와 시각의 다양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

소년들의 가치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걸스카우트는 이 외에도 매달 발간하는 월간지에 모니터제도를 도입하여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가 대원들에게 평가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음 행사에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청소년 녹색봉사단

① 주요 활동내용

광주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봉사단은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활동으로 1996년 제1기 녹색봉사단이 발족되었고 현재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취지는 점수따기를 위한 형식적 활동, 노동력 투여의 단순봉사화 되어가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지역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투여하여 성과와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른들이 틀을 짜서 제시해주는 형식의 기존 청소년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과제를 주고 청소년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과 내용을 잡고 모든 것을 직접 해보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게 되었다.

자발적인 신청으로 모집된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의 모든 활동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원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고 활동주제와 활동방법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즉, 청소년 스스로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뽑고 청소년들이 모든 내용을 결정하며 지도자는 행정적 실무지

원만 하며 활동 후 귀가협조만 하게 된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과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게 되며, 활동 후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와 건의사항 등의 결과를 보내고 시정 요청을 하여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어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의미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장애우 생활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때는 시내 주요 도로와 시설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관계 공무원, 시(구)의원, 시설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 요청을 하여 일부 적극적인 기관에서 관련 조례 등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응답을 받아 내기도 하였고 지역 언론에 기사내용으로 홍보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청소년들이 소집단별로 정해진 대주제에 따른 소주제 선정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주제에 따른 활동제안서(계획서)를 작성하고 활동도 소집단별로 자원지도자의 보조를 받아 수행하며, 활동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1996년 1기 활동 때는 150명 정도가 참여하여 ‘장애우 생활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1997년 1기 활동은 ‘광주전남지역 문화유산 보호활동’, 2기 활동은 ‘증심천 생태탐사 및 살리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원래 각 기별로 자원자를 받고 있는데, 한 번 활동 했던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로 대학생 지도팀 30명 정도로 모집하여 교육 후 활용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이 있어 활동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봉사단은 1년 단위로 모집하며, 행사는 한 주제당 6개월 단위로 수행하고 있다. 모든 비용은 YMCA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② 운영현황 및 사업평가

처음에 녹색봉사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를 따기 위해 가입하여 마지못해 하는 듯하지만 몇 번의 활동을 경험한 후

에는 특색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평가를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생태탐사를 한 경우, 자연과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중에 생물학도가 되겠다는 청소년도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활동에 임했다고 한다.

또한 “증심천 생태탐사 및 살리기 활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언론의 높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봉사활동 점수를 다 채우고도 계속 활동을 하고 싶다는 청소년들도 1/3정도나 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반면 사업운영 상의 어려움으로는 일부 부모들이 입시위주 교육 현실 속에서 공부시간을 뺏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 사회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대부분 단순한 노동력 투여나 고아원 등 시설 방문 등의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의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아직 미개척된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후원과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게 지적되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 관련 전문가와 지도자 확보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3) 서울청소년위원회

① 서울청소년위원회의 특성

서울청소년위원회²⁷⁾는 그 공식명칭이 ‘21세기를 가꾸는 서울청소년위원회(Seoul Youth Committee for 21st Century : SYC)’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청소년이 의견을 제출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목적사업 중에서 청

27) 서울청소년위원회, “서울청소년위원회 운영 규정”, 1996, 참조

소년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서울청소년위원회는 서울시의 청소년 대표조직으로서 공식성을 가진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으나 애초의 구성 취지가 특정 목적사업을 청소년들이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매우 단기간에 존재했던 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구성 배경에 있어 일련의 과정이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져 최소한 구성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성이 미흡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소를 그 민간단체에 두게 하고 위원회의 주요 재원이 민간단체의 지원금이며, 주요활동 또한 그 민간단체의 사업을 기획·집행하도록 운영규정에 이미 명시해 놓은 점,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청소년 만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순수한 청소년들의 자율적 대표조직으로 규정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그 시도가 담고 있었던 기본 취지나 목적 등이 담고 있는 의의와 단기간이나마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살펴 본다면 이 ‘서울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참여사업의 하나의 사례로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주요 활동내용

‘서울청소년위원회’는 1996년 2월 27일 최초의 모임을 갖고 시작된 ‘청소년대표모임’을 그 모태로 하는데, 모임을 시작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 청소년은 미성년자 또는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자로 간주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이나 수련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장에 청소년 스스로 주인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체로서 보다는 객체로서의 역할만 주어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비주체적인 모습을 극복하여 모든 청소년을 대신하여 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갖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청소년대표모임’을 갖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로 1996년 1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그 해 2월 27일 최초의 대표모임을 가지게 되었다.(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대표 116명 참석)

‘청소년대표모임’은 국가의 청소년정책 수립과 집행시 모든 청소년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반영함은 물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청소년대표모임’ 안에 청소년 대표들에 의해 선출되는 25명 내외의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를 두는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청소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각 학교 대표들로 ‘청소년 대표모임’을 갖게 되었다.

애초에 계획된 청소년 대표모임의 기능으로는 청소년 육성청서에 실린 청소년육성 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 열린광장’, ‘청소년 주장대회’, ‘청소년 창안대회’, ‘청소년 음악제’, ‘청소년환경지킴이’ 등과 같은 한민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주요 행사를 주관하며, 또한 ‘청소년 인권센터’, ‘청소년 미디어 대상’, ‘전국 고교생의 소리’ 등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요 청소년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며 기타 모임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청소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서울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중요한 청소년 관련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한 의견 제출, 청소년 교류확대 사업에 대한 자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주요 행사의 주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요청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회원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대표 또는 소속학교 청소년 단체 대표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청소년이 직접 뽑은 자, 청소년위원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회원은 소속 학교나 소속 학교의 청소년 단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후 서울청소년위원회는 몇 차례의 청소년대표모임 임원단 회의를 거쳐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하여 나름대로의 운영규정을 가진 ‘서울청소년위원회’라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후 몇 번의 임원단 회의를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회 하며 TV에 방송출연자로 참석하여 청소년들의 입장에 대해 발언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자체적인 PC통신망 구성을 제안·검토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열의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이는 회원 청소년들이 학업에 쫓겨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조직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구성단계의 비자발성 문제, 구성과정을 주도해왔던 민간단체의 역량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극적이고 열의있는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모으고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참여의 가능성을 충분히 감지하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이후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청소년참여

최첨단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수단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지 오래이다.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다양한 통신망 구축 등으로 이제 사이버공간 속의 또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토론장으로,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청소년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자치 선거전에서도 통신망을 통한 선거유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요즘 대통령선거에서도 통신망을 통한 선거전과 토론이 활발하다.

이제 청소년들의 컴퓨터통신에 대해서도 무조건 잘못된 점만 문제삼고 일부에 불과한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건전하게 활용되어야 함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지금도 청소년들은 수많은 통신 동호회방, 게시판, 대화실, 토론실 등에서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부터 교육개혁, 입시위주 교육문제, 대형 재난과 경제문제, 청소년의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토론을 펼치기도 한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가스폭발 사건, 태풍재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현상을 비판하는 수많은 주장글들이 폭주하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이 오고가기도 한다.

PC통신망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의 실태’,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해 주제를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2년 전쯤 한 청소년이 통신망의 토론의 광장에 “한국의 중·고생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육에 대한 비판, 교사들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교육현실에 대한 논쟁이 368통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토론글을 쏟아내게 하여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었으며, 청소년들의 주장과 생각이 사이버공간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사건도 있었는데, 한 대중가수의 노래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걸려 삭제된 데 대해 하이텔 토론의 광장을 통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한 통신망의 ‘학생복지회’란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신랄한 현실비판과 경험담 등을 끊임없이 접할 수 있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마을’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망을 활용한 청소년의 참여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책과정에 빠른 시간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과 행정이 만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편지글을 올릴 수도 있다. 인터넷 속의 청와대를 들어가면 ‘어린이들의 청와대’란에 ‘대통령께 편지’이라는 코너가 있어 청소년들이 바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수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청소년활동의 하나는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편집장과 기사를 담당한 청소년편집국을 결성하여 직접 기획하고 가상공간 속에 청소년들의 웹진(Webzine : 인터넷 잡지)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분석하며 기사거리를 선정하여 잡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지 관심있는 청소년이면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잡지에 실을 수 있으며, 공개편집회의를 통해 다음 호 기획기사 주제 등 세부구성 및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독자들은 잡지에 대한 의견과 소감을 바로 통신을 통해 보낼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웹진으로는 ‘네가진(Negazine)’과 ‘채널 10(Ch. 10)’이 있는데, 체벌, 대중문화, 대통령선거,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청소년 특유의 다소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주인됨과 권리확보에 대해 강한 어조의 선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아직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기사내용들이 대중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무게가 실린 탓인지 아직까지는 대다수 청소년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후 귀추가 주목되는 활동들이다.

‘네가진’은 “야! 어디가?”라는 홈페이지 제목을 갖고 있으며, 솔빛위성스쿨의 강의, 고민상담, 투표 이벤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들, 대화방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들의 투표’라는 이름으로 투표이벤트를 펼치는 난은 청소년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온라인 상으로 투표를 해볼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네가진은 1997년 7월 15일 첫선을 보인 인터넷잡지로서 스스로 청소년들의 해방구임을 자처한다. 16세의 고등학교 자퇴생이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이 잡지의 창간사로 ‘청소년 해방선언서’를 선포한 바 있다.

‘Ch.10’은 국내 최초의 청소년전문 웹진으로서 1997년 5월 첫선을 보였으며 이 잡지의 임원진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모두 15명이다. 미국과 홍콩, 캐나다의 청소년들까지 제작에 참여한다. 문화비평(가요, 영화, 게임), 시사논평, 다른 세대와의 만남 주선, 패러디의 공간, 학교 안팎 현장중계, 자유토론실, 낙서장, 기획기사 등의 코너가 있으며 매월 10일 업데이트된다. 이들은 기성 세대의 오해와 편견을 비판하기도 하고, 대중매체의 인기가요 순위를 뒤집어 만든 ‘워스트 텐’(Worst 10)을 발표하고, 칸영화제 대신 자신들의 눈으로 본 ‘꼰노’ 영화제를 열기도 한다. ‘워스트 텐’에는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10대 취향의 가요 대부분이 상위권에 오른다. 이런 노래들이 10대들의 생각을 담기보다는 오히려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아직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점이 있지만 어쨌건 기성세대의 편견과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사고와 판단에 따라 주장을 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와 기성세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움직임들이 가상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건강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1998년 3월 탄생하게 될 인터넷 청소년 방송 ‘Youth TV 1318(가칭)’은 청소년들이 주제선정부터 제작·편집을 모두 맡아 청

소년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전하고 미디어 자체를 공부하자는 의도로 시도 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요원교육을 거친후 청소년들이 직접 PD, 기자, 카메라기자, 구성작가, 아나운서 등을 맡아 제작하여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청소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통신망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주장과 사회 참여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와 에너지가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청소년기자단 등 그 외 참여활동

① 청소년기자단

홍성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들의 생활과 고민,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위치를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진단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청소년신문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전반에 걸친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7년 3월에 청소년기자단이 결성되어 9월 15일자 ‘홍성 청소년신문’을 창간호로 발행하였으며, 11월 말에 두 번째 신문이 발간되었다. 사업 대상은 군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며 관심있는 학생은 누구나 청소년기자단 ‘발바닥’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발바닥’은 열심히 뛰어다니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청소년들의 의지가 반영된 이름으로, 기자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4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해 보면, 1기 학생기자단 소개, 단체와 지역사회 인사의 격려말씀, 내가 찾은 문학인물, 자작시 발표, 고3을 위한 정보기사, 건강에 대한 질문·전문가 응답란, 십대들이

여 개성을 찾자(기획기사), 네컷만화, 발바닥 회원모집 공고, 책 소개, 학교 및 동아리 동정, 기타 광고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기자단은 홍성 YMCA 사회봉사단 안에 있는 3개의 청소년 활동단체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으로 운영되며, 편집장과 각 부서장이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기자단 모임을 가지며, 신문에 원고를 신고자 하는 청소년은 편집회의 때 방문하거나 편지나 엽서를 통해 글을 보내면 된다.

창간호의 내용은 약간 부실하다고 자체 평가내리고 있으나,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청소년 자체신문’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후 활동에 대한 기대와 노력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청소년기자단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취재에 대한 것으로, 학기 중에는 평일의 청소년 행사나 타학교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가 어렵고, 청소년 생활에 대한 모니터가 부족하여 실제 청소년들의 생활과 고민, 구체적인 모습을 실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다.

청소년기자단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내 각급학교에 기자가 구성되어 서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홍성에 있는 지역신문에 ‘신세대 광장’이라는 면이 있어 발바닥 회원들이 지역신문의 청소년기자로 위촉되어 일하고 있어, 이렇게 지역신문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는다면 보다 좋은 기사내용과 볼거리로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② 청소년 환경탐사활동

청소년 환경탐사활동은 부천시청소년수련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데, 단순한 노력봉사가 아닌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지역사회 바로알기와 지역사회 일꾼 되기 운동의 차원에서 실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회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어진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참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천시역을 하나의 환경모니터 대상으로 삼아 해당영역의 환경실태 및 문제점을 청소년들 스스로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며, 작성된 결과를 정리하여 실태조사 보고서 만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부천시역의 환경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1997년도의 활동 결과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청소년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녹색부천만들기 운동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활동 성과에 따라 매년 동일한 주제로 모니터를 해봄으로써 변화하는 환경문제를 진단하는 근거자료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참가 자격은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모든 청소년이며 1997년에는 부천시 관내 15개 학교 학생 80여명이 참여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교육 및 탐사활동을 벌이고,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리 및 지도제작을 실시하였는데, 청소년 외에 자원봉사지도자 7명이 활동을 지원하였다. 환경영역은 보행환경, 대기환경, 쓰레기 환경, 유해환경으로 나누어 모니터활동을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영역별 부천시 환경지도를 제작하고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지도자 1인 당 청소년 3~4명으로 구성된 소집단(모둠)으로 진행되며 탐사 후에는 전체토론을 통해 반드시 평가를 거쳐 활동을 점진하게 하였다.

사업 결과 청소년들의 호응도와 관심은 매우 높았다고 한다. 담당자는 이를 활동의 의의에 대한 공유과정이 있었고 모둠별 모임을 통해 공동준비 과정을 가졌기 때문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청소년들이 타 기관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적인 단순노력봉사였던 것에 대조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탐사 등 직접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참신함과 흥미를 가졌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천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작하였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사례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운동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점, 전문가 부족, 사업결과 보고대회시 시의원이거나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 손을 통해 직접 만들어진 자료가 기성세대들의 무관심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후 후속활동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화하고, 개선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이용실태조사, 유해환경 추방, 청소년문화 환경조사, 건전한 청소년 환경 가꾸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담당자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자율적인 동아리활동 등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청소년토론의 광장

문화체육부에서 후원하고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전국 20여개 시·도,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토론의 광장’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함으로써 자율적인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능력을 키워 창조적인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장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199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5월 경에 전국적으로 열리게 된다.

1996년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전국 20개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 아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주제를 예시해 보면 ‘청소년 문제! 우리가 풀어갑니다’, ‘대중매체의 유해성과 청소년’, ‘아름다운 지역사회 우리가 가꾼다’,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문화’ 등의 주제

로 청소년들이 직접 설문조사, 현장탐방 등을 통해 발표자료를 만들고 발표·토론을 벌였다.

‘청소년 토론의 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선정, 원고작성, 설문조사 및 탐방활동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사회, 발표, 질의·응답의 진행 전체가 청소년들의 자발적 동기부여와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으며, 참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시민사회의 핵심의 하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조정과 합의이며, 이러한 능력은 청소년 시기부터 훈련되어져야 함을 생각할 때,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토론문화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청소년참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그 동안 이러한 훈련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아 처음에는 자발적인 토론활동에 적응하고 주장을 설득력있게 발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바람직한 토론문화는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문제인식은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의 첫출발인 만큼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그 동안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보다 질적으로 성숙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LG 21세기 선발대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직접 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계획서를 선발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직접 계획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활

동보고서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의 이미지 제고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진지한 탐구정신과 열의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으며, 그들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도전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LG 21세기 선발대’ 활동은 LG그룹에서 대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응모주제는 자연과학분야, 사회분야, 문화·교육·예술분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세계 초우량 수준의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를 응모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을 탐방·연구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4명을 한 팀으로 하여 탐방 분야와 목적, 2주일 간의 탐방일정·지역·대상, 탐방 활동계획을 담은 탐방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50팀 200명을 선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활동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을 포함한 탐방보고서를 제출하면 우수 탐방팀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1996년도에 수행된 활동 사례로서 몇 가지 연구보고서 제목을 살펴보면²⁸⁾, ‘클린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태양전지의 개발과 그 응용(일본)’, ‘한국형 지하구조물 도입을 위한 노르웨이의 지하구조물 탐방(노르웨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현황과 추진체계, 그에 따른 서비스 측면에 대한 연구(미국)’, ‘미국의 장애인 고용 재할 프로그램 탐방(미국)’, ‘세계의 복합 영상문화공간, 한국형 영상문화 중심지의 내일(미국·프랑스·벨기에)’, ‘영국

28) LG그룹, LG 21세기 선발대 탐방 보고서, 1996

의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의 실태(영국), ‘한국형 위탁 급식 산업의 미래(미국·영국·덴마크·스위스)’ 등으로 대학생들이 전문가 못지 않은 알찬 내용의 탐구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보고서의 소감을 통해 직접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속에서 다양한 탐방활동을 펼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행사의 취지인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변화의 리더로 성장해줄 것을 바라는” 의도가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사는 현재 ‘삼성 베세토 어드벤처’, ‘데이콤 세계 도전 데마여행’ 등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행사가 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선진외국의 경우, 특히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의 하나로서 ‘젊은이들의 도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직접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참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확대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의미를 가지는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국외의 청소년참여 사업 동향²⁹⁾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참여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미국의 토랜스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 유타주 청소년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Youth Councils), 타운미팅, 이웃모임, 청소년토론회, 인터넷토론, 영국의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지역 청소년위원회(Local Youth Council), 밀턴케인즈 청소년 포럼(Milton Keynes Youth Forum), 햄프셔청소년위원회(Hampshire Youth Council), 네덜란드 마두로담시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 프랑스의 청소년자문위원회(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와 청소년과 성인 민주포럼(L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 · Adultes), 일본의 고교생주장대회, 기타 유럽의 여러 가지 참여단체 등이 있으며,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사례로서 청소년법원(Youth Court)나 청소년신문(Youth Paper) 등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단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과 참여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대변기구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의 '바네움부데(Barneombudet)'와 같은 사례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하다.

외국의 청소년참여활동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식적인 청소년대표

29) 청소년참여 사업에 대한 자료 제공과 면접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와 해당 기관에 감사드린다. 특히, Association of Youth Councils의 Mr. Gary W. Sessions, British Youth Council의 Ms. Caroline Clipson, Hampshire Association of Parish and town Council의 Mrs. S. M. Hudson, Cllr Keith Chapman, Mr. Geoffrey Owen, Ms. Annie Carde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eral and Radical Youth의 Mr. Johannes VETTER, European Youth Parliament의 Mr. Mark Simmons, Netherlands Instituut voor Zorg en Welzijn의 Mr. Gert-Jan Rietveld의 협조는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 각 사업사례의 일부는 본 보고서의 별책으로 발간된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에 소개하고 있다.

기구로서 “청소년위원회(보통 Council로 표기되는 ‘위원회’)”형식의 공식조직이나 기구를 통해 참여활동을 하는 경우와, “청소년의회나 청소년토론회”(보통 Parliament나 Forum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음)”라는 이름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등 사회운동적인 측면의 성격을 담고 있는 토론발표·행사성 참여활동사업 및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활동 등의 몇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인 자문기구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작되어 민간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여론화 작업과 청소년 참여활동 증진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위의 두 가지 형태의 청소년참여활동과 더불어 ‘청소년법원’이나 ‘청소년신문’ 등 자율적인 청소년활동, 그리고 노르웨이의 바네움부테와 같은 청소년 자문기구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다.

1. 위원회 형식의 청소년대표기구를 통한 참여

1) 토런스 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 : 미국)³⁰⁾

미국의 정부체계는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County(몇개의 도시가 합쳐진 행정단위) 정부, 그리고 시정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중에서 지역사회의 당면과제를 직접 다루는 정부단위는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가 속해있는 시정부일 수 밖에 없는데, 이 시정부는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과 시의원에 의해 운영된다. 시의원들은 각각 몇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해서 시정활동을 한다. 이 중에는 그

30) 자세한 내용은 ‘천정웅 외,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p147~149’ 참조

도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도 포함하는데, 이 위원회는 청소년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며, 시정부가 결정해야할 정책중 청소년과 관계된 정책들에 대해 조언과 비평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모든 모임을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시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 위원회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이 청소년위원회 모델은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이 Torrance시 청소년위원회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남쪽을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토렌스시는 인구 15만명에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4~5만 달러 정도인 중형도시이다. 시장 한명과 시의원 6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도시의 청소년위원회는 철저히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다른 기존 시정부 위원회와 똑같은 자문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토렌스시는 청소년관계 정책과 관련, 청소년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① 구 성

청소년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토렌스 통합교육구내 4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대표 8명(각 학교당 2명), 토렌스 시에 속해있는 El Camino Community College(2년제 대학으로 정해진 과정의 이수후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에서 선발된 2명, 그리고 그외 청소년중에서 2명이 선발된다. 위원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매해 가을까지 제출하고 곧 면담을 거쳐서 선발된다. 12명의 위원들 중에서 의장이 투표로 선출되는데, 의장은 청소년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로 되므로 현재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 온 대학생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성인 지도자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며, 시의원이 회의

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사항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② 활동

매월 첫째 수요일과 셋째 수요일 오후 7시에 정기모임이 있고, 이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활동계획 점검과 진행, 그리고 시정부와의 협조사항 토의 및 결정이 있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1년 전반에 걸쳐 계획된 청소년행사 기획과 진행이 있는데, 봄철 청소년축제 및 크리스마스 행사, Friday Night Live(매주 금요일 저녁에 행해지는 청소년행사로 클럽활동, 현장견학, 무도회, 음악회, 캠핑, 영화관람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술과 마약의 유혹의 기회를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행, 그리고 각급 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 및 협조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진행외에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시의회에 참석하여 청소년관계 정책과 그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지역사회서비스위원회(Community Service Commission)와 공원관리위원회(Park and Recreation Commission)의 정기모임에도 참여하여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도 한다. 특히 1995년에는 토랜스시가 Torrance 2010이라는 21세기를 대비한 중·장기 단계별 개발 계획을 세우고 과정에서 기획진 70명중 20명을 청소년위원회 소속 위원과 기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성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였다.

③ 활동기금 조성 및 사용

청소년위원회는 토랜스시의 공식 자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재정적인 독립체로 활동한다. 모든 행사진행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순전히 위원회가 직접 조성한 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이 기금은 주로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장에 음식 판매대를 설치·운영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흥미롭게

도 현재 토렌스 시정부 산하의 14개 위원회 중 활동기금이 가장 많은 위원회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시정부의 문화행사중 예산부족으로 취소될 위기에 있었던 한 행사에 자금지원을 할 정도로 재정면에서도 시정부와 지역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적인 면에서도 시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갖추고 있어, 자칫 선거권이 없는 나이라는 이유로 시정부 내에서 무시될 수 있는 요지를 미리 없애고, 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과외활동이 대학입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이들의 경력은 대학입학에 큰 도움이 되므로 청소년위원회 활동은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2) 유타주 청소년위원회 연합회

(Association of Youth Councils : AYC : 미국)

① 주요 활동내용

유타주 청소년위원회 연합회(이하 AYC)는 알칸사스(Arkansas), 코네티컷(Connecticut), 그리고 유타(Utah)주에 있는 100개 정도의 지역청소년위원회 연합회로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행정가들과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다.

AYC는 처음에 유타주립대학(Utah State University)의 공개사업과 유타 주 북부지역에 있는 Hyrum시의 시장과의 협력적인 노력에 의해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1992년 3월까지의 유타주립대학의 지역발전위원회(Utah State University's Community Development staff)의 지도를 받아 오면서 성장하다가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1992년 3월 연례청소년시위원회 지도력학회(Annual Youth City

Council Leadership Institute)가 만들어졌고, 청소년위원회의 성인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개발하기 위한 연합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성숙한 시민권, 리더쉽,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과 정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리더쉽 교육과 개발, 지역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 제공, 청소년과 성인간의 의사소통의 증가,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봉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지역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의 한 예로 Pleasant Grove 지역청소년 위원회에서 실행한, 지역사회 청소년과 노령자들 사이의 세대차이를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시장과 시위원회의 찬성, 지원, 격려를 받고 학생들이 시민연회와 오락을 제공하는 재원모금 프로젝트(fund raising projects)를 조직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 광고 포스터 제작, 집없는 아동을 위한 생일 파티, 청소년 길거리 댄스, 청소년위원회 신문제작, 꽃심기,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사업활동, 중고 가정용품 염가판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행사를 벌이며, 재원모금을 위해 무도회, 마라톤, T-셔츠 판매, 영화의 밤, 캔디 판매, 초상화 판매 등의 사업을 직접 벌이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각 지역청소년위원회마다 개성있고 재미있는 프로젝트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 경제, 지역사회 서비스, 여가활동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가들에게 알림으로써 청소년복지 증진과 다양한 시민의식과 지도력 향상에 기여한다. 각 지역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시장(Mayor)을 중심으로 봉사할

동,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자치활동을 벌이며, AYC에는 회원투표로 선출된 청소년회장(President)이 모임을 대표한다. 각 위원회에는 성인 어드바이저가 1명씩 있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시위원회는 위해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지역사회 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비밀투표를 통해 청소년 임원들을 선출한다. 청소년시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갖는데, 그 중 한 번은 시위원회 모임과 함께 개최됨으로써 공식 의회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된다. 청소년시위원회의 재정은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몇몇 도시는 시 예산에서 지원하며, 많은 경우 자체적인 모금 행사에 의존하고 있다. 청소년시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세차, 잔디 깎기, 댄스파티, 경매, 피자나 도넛 등 음식판매, 카니발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예산을 충당한다.

유타주는 도덕성과 가족중심의 교리를 강조하는 몰몬교의 본산지로서 종교적인 유대관계가 지역사회 중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치단체, 종교집단, 학교조직, 민간단체와 시설 등이 지역사회 발전(특히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타주 청소년연합(Utah Federation for Youth Inc.)과 유타주립대학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상호발전 효과를 거두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유타주 청소년연합은 청소년학대와 폭력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1993년 이전에는 유타주 청소년약물방지연합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 이후 조직이 더욱 확대되면서 사업의 초점을 폭력방지까지 확대했다. 자료도서관 운영, 리본워크활동(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전사회적인 건전청소년육성캠페인 및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행사),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연합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문제에 대해 공동 논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상호협력·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YC가 제안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방법 10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을 배워라.
- ▶ 투표나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사항을 결정하라.
- ▶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라. 필요한 인원과 시간을 알아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예상해야 한다.
- ▶ 청소년위원회와 연결할 시 직원/의회 구성원을 선정하라. 책임과 재정적 절차 등을 잘 조직해야 한다.
- ▶ 청소년을 사랑하고 좋은 역할모델이 될 지도자를 선정하라.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 ▶ 새로운 청소년위원회를 선전하라. 언론보도, 포스터,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홍보하고 말을 통한 홍보의 위력을 기억하라.
- ▶ 선거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의깊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이고 성취유형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지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 현장을 만들어라. 이 것은 청소년들과 청소년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는 성인들에게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 ▶ 운영하기 쉬운 활동들을 선택하라. 작은 성공들이 거대한 일들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 지도자와 청소년 훈련을 시행하라. 이것은 위원회연합회가 가장 가치를 가지는 부분이다. 지역모임과 리더쉽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② 1997Youth Leadership Institute 주요 활동 - 참여관찰기

1997년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AYC 청소년지도력 학회(일종의 정기총회라 할 수 있음)가 개최되었다. 연구자들은 AYC의 회장인 Mr. Gary W. Sessions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총회에 초대되어 유타주의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회장은 AYC 운영 전반을 총관리하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협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참여한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청소년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그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은 힘들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며,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활동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회의는 보통 3박4일 정도의 캠프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개최장소로 유타주립대학을 주로 활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Williams Camp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원과 지도자들 300여명이 모여 각 지역청소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알리고 토론하는 등 지도력훈련을 하며, 지역대표와 전체대표(청소년 회장)를 선출하게 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미래는 우리의 것(The Future Belongs To Us!)”이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주장대회(Speech Contest), 박람회 개최(Share Fair)³¹⁾, 8개 지구대표와 청소년자문위원회(Youth Advisory Council) 임원 선출, 워크숍, 장기

31) 박람회는 각 지역청소년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했던 내용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스크랩북, 포스터, 비디오, 홍보책자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함으로써 서로 아이디어와 성공사례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랑, 신체단련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자문위원회는 1998년 8월까지 그 임기를 맡게 되는데, 회장, 부회장, 서기, 편집장 등의 임원이 선출된다. 각 임원후보로 등록된 청소년이 있는 지역청소년위원회에서는 미리 선거홍보용 포스터와 전단들을 준비해 와서 벽에 붙이거나 청소년들에게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각 지구별로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도 청소년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차례차례 자신을 소개하고 소감과 정견을 발표하며, 거수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보였다.

캠프 프로그램 중에는 워크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워크샵 시간에는 정해진 5~6개의 분과별로 주제가 정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참석하면 된다. 각 워크샵은 하나의 지역청소년위원회가 자료준비와 진행 등 전 과정을 담당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지역청소년위원회별 워크샵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워크샵의 주제들은 ‘청소년법원의 발전적 운영방안’, ‘집단 내의 지도력’, ‘공식회의에서 토론의 기술’, ‘지도력과 청취’, ‘의회과정’, ‘공공문제 분석’ 등 다양하며, 청소년들은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와서 워크샵을 진행하며 참여한 청소년들의 질의·응답과정 및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 과정에는 성인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고 지도자들의 코너도 워크샵의 한 분과로 진행되어 지도자들의 활동경험과 소감,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밝은 표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발표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며, 특히 성인 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발언을 하고 손을 들어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3)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 BYC)

영국청소년위원회는 영국전체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영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효율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이다. 영국정부 및 국내외 정책결정기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사회내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① 의의

영국전체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영국사회에서 청소년의 효율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청소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독립기구로서, 청소년 자신이 청소년의 이익을 지키고자 활동하는 영국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Think Tank’로서 영국정부 및 국내외 정책결정기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사회내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의견교류 및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청소년위원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과 청소년집단 사이의 대화가 촉진되고, 회원단체들 사이의 교류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② 주요사업

청소년위원회 운영의 기본방침은 청소년위원회 내에 각종 조직을 구성하여 청소년 자신이 주체로서 모든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참여의 실천적 모델’을 위원회 내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청소년문제 쟁점들에 대한 전문적 정보제공, 또래훈련(peer education) 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대표를 파견하여 청소년계층의 견해 대변, 청소년참여를 저해하는 특정 사회정책에 대한 캠페인 등의 활동이 있다.

주요활동으로 6개월마다 개최되는 정기모임인 포럼(Forum)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가장 큰 행

사로 ‘청소년과 의회의 날(Youth and Parliament Day)’에는 각 지역 청소년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의원과 장관들을 만나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이 행사는 1991년부터 시작된 연례행사로서, 청소년위원회 임원단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활동을 가진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행사 당일에는 청소년방청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관계부처 장관(교육부, 노동부), 각당 대표, 국회의원, 주지사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청소년대표가 의장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국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청소년정책의 책임자들과 관심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각 청소년의 소속된 단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국회 내 해당위원회 또는 의원들과 개별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게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자격 : 16~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각 BYC 회원단체에서 대표로 추천된 청소년대표로 구성된다. BYC는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연합체인 Wales Youth Forum과 Northern Ireland Youth Forum을 관장하는 상위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④ 역사 : 1948년 세계청소년연합(World Assembly of Youth)의 영국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1970년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자치기구로 변환되었다.

⑤ 예산 : 공공재원은 교육부(국내청소년관련 사업) 및 외무부(국제교류관련 사업)에서 지원되며 민간재원으로는 회원단체로부터 받는 회비, 각종 청소년 관련기금, 출판물, 필딩임대료 등이 있다.

4) 지역청소년위원회(Local Youth Council : 영국)

① 지역청소년위원회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관심을 끌만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의논하고 행동을 취하며, 지역청소년의 욕구를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나는 청소년의 집단들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주요 대표기능, 교육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청소년위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지역청소년의 의견을 구역위원회나 시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와, 공무원·시의원·정치인을 포함한 개인들에게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때에 따라서, 성공적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정기적으로 의견을 주기도 한다.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청소년은 회의와 논쟁을 통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역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역 대중매체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다. 자체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청소년위원회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청소년위원회의 목적과 관점을 널리 알릴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디스코, 파티, 일일여행, 공휴일행사, 그리고 다른 지역청소년과 교환방문 등 사교적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② 지역단위 조직의 중요성

지역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포럼을 조직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이슈(issue)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청소년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적절히 반응하고, 그들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한 지역 집단은 전국적 조직과 기관을 키울 수 있다.

③ 청소년위원회와 다른 단체와의 차이

전국 조직의 지부인 다른 지역집단과 달리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의해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되고, 특정지역의 청소년의 의견을 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이 변화를 외치고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준다.

④ 지역청소년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

지역청소년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역청소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출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정열적인 사람, 조직에 적합한 구조, 돈, 건물과 대지, 설비 등과 같은 자원의 접근, 내적·외적 지원, 지역사회내에서 높은 위상, 좋은 홍보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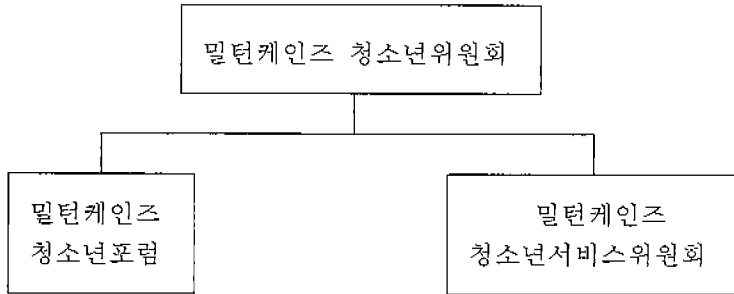
⑤ 지역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10단계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집단중에서 핵심집단을 모은다.
- ▶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를 찾기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
- ▶ 관심 주제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역청소년위원회가 할 일을 정한다.
- ▶ 지역청소년위원회의 조직과 주요 임원을 선출한다.
- ▶ 지역청소년위원회의 재원을 지역보조금, 사업비, 민간보조 등으로 마련한다.
- ▶ 파티나 디스코잔치와 같은 사교적인 활동으로 관심을 끌고 청소년집단간의 접촉을 강화한다.
- ▶ 더 많은 청소년과 청소년집단을 끌어모은다.
- ▶ 실천가능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한다.
- ▶ 홍보자료나 홍보물을 발간하고 지역 대중매체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 ▶ 지역청소년들이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다.

5) 밀턴케인즈 청소년포럼(Milton Keynes Youth Forum : 영국)

① 밀턴케인즈 청소년포럼

밀턴케인즈 청소년포럼은 자발적인 조직인 밀턴케인즈 청소년위원회의 일부이다. 청소년포럼은 청소년에 의해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된다.



청소년포럼은 밀턴케인즈구역에 사는 13~25살인 학생, 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개인회원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의 다른 한 중요한 부분인 밀턴케인즈 청소년서비스위원회를 통하여 포럼에 가입된 지역 집단들과도 함께 일한다.

② 청소년포럼의 목적

밀턴케인즈 청소년포럼은 크게 세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과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재미있는 사교활동이나 청소년포럼 및 청년조직 활동, 그리고 일반적 사회활동 등의 다양한 참여활동, 마지막으로 지역적·국가적·국제적인 대표활동이 그것이다.

③ 청소년포럼은 어떻게 지원받는가

청소년포럼은 버킹햄셔 카운티 청소년서비스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포럼의 집과 대지, 직원 임금을 지원하고, 포럼이 사용하는 설비와 자원을 제공한다. 이 위원회는 포럼의 매우 경험많은 발달전문가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구역위원회는 특별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사업부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청소년포럼은 또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다. 즉, 젊은 여성의 건강사업을 위해서 유럽공동체 보조금, 지역건강기금과 같은 지

역보조금, HIV나 AIDS 또래교육사업을 위해서 지역공동모금으로부터 보조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청소년포럼의 재원은 지역보조금, 구역청소년위원회, 건강증진기금, 버킹햄셔어 카운티 청소년서비스위원회, 유럽공동체 등 기타 지원금이다.

④ 청소년포럼이 하는 일

- ▶ 이슈별 집단활동: 젊은 여성과 건강사업과 같은 특별한 사업과 관련된 활동
- ▶ 숙박활동: 6개월 단위로 워크숍, 사회적 이벤트를 포함하여 주말 숙박활동 개최
- ▶ 회의: 지역교도소에서 인종주의와 유럽 회의, 지역 학교와 대학교에서 토론회 등 당일에 끝내는 회의와 행사를 조직함
- ▶ 다른 기관과 협력: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 건강증진부서와 함께 HIV/ AIDS관련 사업을 같이 하는 것 등
- ▶ 훈련과 또래 교육활동: 청소년들이 청소년포럼을 운영하고 운영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사업을 함
- ▶ 정치교육활동: 청소년포럼은 청소년에게 참여하도록 장려하는데, 포럼은 지역위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의회를 견학하며, 최근에는 유럽공동체 사무국을 방문하기도 함
- ▶ 다른 청소년 조직들: 청소년포럼은 영국청소년위원회, 지역 청소년정보서비스센터 등 다른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함께 일하고, 아동권리발전국, 생활의 기술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다른 조직들에게 의견을 주기도 한다.

⑤ 청소년포럼의 가치

- ▶ 평등한 기회: 평등한 기회는 포럼사업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 즉, 회원, 다루는 이슈, 훈련사업 등에 영향을 준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낮게 취급된 젊은

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청소년포럼은 젊은 여성, 게이와 레즈비언, 아시아계 여성들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미혼부모 관련 사업에도 관심을 갖는다.

- ▶ **능력부여** : 청소년포럼은 청소년은 힘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청소년포럼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하도록 돕고 장려한다. 청소년포럼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기회를 만든다.
- ▶ **참여** : 청소년포럼은 청소년에 의해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청소년포럼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여는 어떤 수준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고, 포럼은 청소년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 ▶ **교육** : 청소년포럼은 학습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청소년포럼은 개인적·사회적·정치적 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이다. 우리는 능력부여, 평등한 기회, 참여 그리고 교육은 청소년이 그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활력이라고 믿는다.

6) 햄프셔청소년위원회(Hampshire Youth Council : 영국)

햄프셔청소년위원회는 햄프셔 교구 및 의회연합회(Hampshire Association of Parish and town Council : HAPTC)의 청소년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이는 지역청소년위원회의 한 형태로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청소년 집단의 기초가 되는

조직으로서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여론화시키기도 한다.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관점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공적인 청소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지역 의사결정기구의 자문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992년부터 HAPTC에서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설비 확충계획에도 청소년들의 열성과 재능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자료발간과 홍보를 통해 교구와 타운에 청소년위원회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은 공무원이나 시의원 및 정치인들에게 반영한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담은 ‘성공적인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위한 핸드북’³²⁾을 발간하여 각 카운티에서 활용하여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얻게 하고 있다.

HAPTC가 햄프셔 청소년서비스국과 협력하여 개최하게 된 최초의 영국청소년위원회 총회는 1996년 3월 사우샘프턴(Southampton)에서 열렸으며, 두 번째 총회는 윈트셔 지방의 스윈든에서 1997년 2월 22~23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HAPTC는 청소년들은 미래의 의회위원들이 될 활동적인 시민됨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청소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의회연합회의 의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을 열렬히 바라는 바”라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³³⁾

32) ‘성공적인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위한 핸드북(The totally excellent Youth Council Handbook)’의 내용은 본 보고서의 별책으로 발간되는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에 일부 소개되어 있다.

햄프셔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많은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관련한 강력한 태도를 견지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더 넓은 단위의 카운티의 문제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햄프셔청소년위원회는 햄프셔 전역에 청소년교구위원회(Youth Parish Council)를 설립하도록 지원하였다.

햄프셔청소년위원회는 레크리에이션과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정부에 많은 관심을 증진시키고 있다.

7) 청소년자문위원회(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 CMEJ : 프랑스)³⁴⁾

청소년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 단위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사회내의 각종 정책을 청소년들 스스로 결정하여 시의회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프랑스 전역에 74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2만여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1995년 2월부터는 주민 3,500명 이상의 모든 면단위마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 내의 스포츠 및 여가시설의 설립, 전시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며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부분적인 예산 집행권도 보유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33) 연구자들은 1997년 7월8일 주요 HAPT 담당자들과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계획·수행하며, 햄프셔 지역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설립·성장하게 된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Keith Chapman 의회의장이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지도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게 느껴졌다.

34) 자세한 내용은 ‘천정웅 외,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pp. 127~133’ 참조

청소년위원회의 기원은 1979년 프랑스 알사스 지방의 마을 쉴티겐에서 쉴티겐시장이 ‘어린이와 청소년 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직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시의회’의 첫 번째 회의는 1987년에 열렸고, 그 이후 1988년 앙굴렘에서 ‘국제공동회의’로 이어졌다. 청소년위원회의 목표는 도시저소득층 지역의 생활, 특히 젊은이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훈련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또래들에 의해 선출된 20명에서 40명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업무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과제를 만들고, 제안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임을 갖고 스포츠와 문화 여가활동, 환경, 인권, 연대의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본법률의 결정과 개선, 학교와의 연계 등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벌인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에는 청소년대표의 대표성 문제와 의회의 민주적 운영방식에 관련되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개선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정신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시의 역할이 무엇이며, 정책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자아확신이나 대중 앞에서 말하고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정치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다.

8) 유럽연합 및 기타 참여활동 사례

① 유럽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 EYF)

EYF는 유럽의 청소년단체의 연합체로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유럽위원회(Councils of Europe)의 청소년정책 실행과 의사결정을 하는 구성원들의 대표기구로서 지구적 차원의 청소년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에서부터 교육, 문화, 보건, 주거 분

야 등의 정책결정에 관심을 갖고 캠페인 전개, 국제회의 개최, 출판 사업 및 연구사업 등을 하고 있다.

② 네덜란드 마두로담시 ‘청소년의회’

네덜란드 수도인 헤이그 내 행정구역의 하나인 마두로담시는 네덜란드 각지 명소를 축소·재현해 놓은 관광명소로서 매년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이 관광수입은 전액 청소년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시의 모든 청소년정책은 헤이그 시 각급학교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마두로담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2. 토론발표적 참여활동 사업

1) 타운미팅 등 토론을 통한 참여활동 : 미국³⁵⁾

① 타운미팅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의견수렴 방안으로서 대통령이나 연방정부 요인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토론회이다. 특정지역의 주민과 백악관을 위성으로 연결해서 대통령과 토론을 하거나 대통령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요인들과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 한 사람당 1분씩 정해진 주민 의견발표·질의 시간에 10여명 이상의 청소년을 포함한 100여명의 주민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다. 청소년들은 갭문제, 마약문제, 총격사고 문제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구제방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② 이웃모임

지역사회 소규모 토론회의 하나로 전 주민이 대상이지만 그 안에

35) 자세한 내용은 ‘천정웅 외,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pp. 140~147’ 참조

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반상회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기적인 모임일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일자가 조정되며 이웃간의 협조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요에 따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간부나 교육관계자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웃의 집에서 돌아가며 열리게 되고, 토의주제 중에 청소년들과 관계된 갭단, 낙서, 마약, 교육, 총기사용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의 의견피력이 가장 활발하다.

③ 청소년 토론회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사회 참여와 의견피력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토론회와 워크숍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학교에 클럽을 조직하고 그 속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시사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헬동을 하며, 1년에 수차례 해당 지역, 혹은 전국 규모의 토론회와 연수회를 갖는다. 학생들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장 적절한 단체를 택하게 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는 이후에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며 대학생들도 졸업후 취업시 도움이 된다. 일례로 Junior Statesmen of America와 같은 단체는 캘리포니아주의 각 고등학교에서 클럽활동을 하고 있으며, 1년에 수차례 전체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중 2회 정도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청소년회원들이 모여 캘리포니아주,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며 서로가 믿는 바에 따라서 단체 토론과 의견발표를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을 받는다.

④ 인터넷을 통한 의견피력

발달된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고, 이를 통한 의견피력과 의견수렴활동 또한 활발해졌다. 우선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백악관 역사상 처음

으로 자신들의 전자우편(e-mail) 계정을 가진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었는데, 이 전자우편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되는 의견은 하루에 약 2,000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용 인터넷 서비스에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전체,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과 연구기관에서도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미국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 회사중 32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CompuServe사에서는 어린이 학생 포럼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각 포럼은 23개 주제로 나누어져 대학 정보에서부터 각 전공과목, 사회생활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에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올려서 다른 청소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매일 인터넷 상으로 마련된 대화방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있다. 또한 시사포럼과 교육포럼을 통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정부기관과 백악관에 자신의 의견을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피력할 수도 있다.

2) 청소년과 성인 민주포럼(L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 · Adultes : 프랑스)³⁶⁾

지역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사회문제와 제도·정책에 대해 지역 내 세대들 사이에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합의된 정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장이다. 이러한 형태는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36) 자세한 내용은 ‘천정웅 외,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pp. 134~137’ 참조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인류학자 팀에 의한 시도로 시작되었는데, 점차 발전하여 현재는 해마다 가장 핵심적인 세가지 대중포럼을 개최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이전에 실시된 조사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기한 문제를 주요주제로 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른 지역계획안에 반영한다.

3) 고교생주장대회(일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의 “전국고교생의 주장”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고교생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자치적 청소년활동이다. 행사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기부금 지원으로 마련되고 국가의 재정지원은 전무하며 단지 시설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장대회를 거쳤던 선배들로 구성된 후원회로부터 다각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와 격려차원의 지원, 청소년 관련 기업등에서 음식 등 물자 지원을 하기도 하며, 식사 등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제공받기도 한다.

예산 규모는 1억7천만엔 정도이며 교육신문·방송 등의 언론기관과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기도 하는데, 1996년부터는 한 신문사 후원을 약속받았다.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위해 후원업체 등에 주장대회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시키고 후원해 줄 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장대회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큰 편이며 청소년들의 6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000건의 반응이 접수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본청소년연구소와 주장대회 총본부에서 지원하는 데 대외적 언론협찬이나 재원확보, 장소마련, 학부모·학교·문부성 등의 협력 요청 등의 외부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 사업을 통한 수익은 전무하며 오직 이를 통해 고교생들의 참목소리와 그들의 의식과 문제들을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주장대회는 먼저 고교생들로부터 자발적으로 필요를 느껴 시작되었는데, 원래 학생들 스스로 흡연, 학교 내 폭력,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자 자생적·자발적 동기와 의사로 학교 간의 연계를 이루어 나고야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학교간 협의체가 생긴 것이 그 모태가 되었다.

주장대회 진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의식과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문제 해결까지 해나가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며 자아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주장대회에 나온 청소년들의 주장은 책자로 출판된다.

대회 진행을 위한 전 과정은 주장대회 실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는데, 홍보를 위해 관련 팸플릿과 포스터를 전국 고교에 배포하고 고교생들이 많이 보는 5개 잡지, 라디오, 신문 등에 홍보를 한다. 특히 대회가 끝나고 책을 보급하며 대회 2~3주 후에는 라디오에서 3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대표자의 의견과 대회진행에 관해 보도하며, 전국대회는 TV 특별프로그램으로 방송된다.

전체적인 준비과정은 실행위원장이 선출된 후 1~3월에는 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4월부터 지방예선에 들어가며 여름방학때까지 고3 학생들이 주로 준비작업을 하고 여름방학 후에는 주로 2학년이 중심이 되어 집중작업을 하고 9월 이후에는 전국대회를 준비한다. 9월 중에 1차 예선(49현), 10월 2차 예선(9개 지역)이 있으며, 본선은 12월 중에 이 대회의 발상지인 나고야에서 있게 된다.

행사가 있기 한 달 전에는 청소년음악제와 같은 소규모 축제가 있게 되고 주장대회 행사 자체가 하나의 축제행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회의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개회식에서 폐회식까지 모든 과정이 청소년들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1, 2차 예선에서는 학생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대회를 만드는데, 기획, 운영, 주제 선정, 연출, 수화통역, 홍보활동, 진행, 장식, 사회, 안내등, 스태프 등 모든 것을 청소년들이 서로 상의하며 이벤트를 만들어 간다. 주장대회에 응모한 사람은 전원 스태프가 되어 활약하게 한다.

1995년도 예선에 응모한 주장 원고수는 3,200편이었으며 매년 100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 본선에는 9개 작품만 올라가게 된다. 개인 또는 팀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주장 외에도 무용이나 연극 공연을 통한 발표도 가능하다. 고교생 자신의 손으로, 어른들의 안목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대회를 꾸미게 되는데, 내용은 현대의 고교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대해 고뇌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실태가 어떠한가 등의 관심사를 표현한다. 표현방법은 자유이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는 학교생활에서 생긴 체험이나 느낌을 자기 자신의 말로 주장할 뿐 아니라 공연(1인극)을 하면서 음악에 맞추어 말을 한다든지 또는 수화를 곁들여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주장대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학교, 정부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참여자들의 각성과 높은 인식수준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그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주장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대학입시 점수에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는 지원책이 의미있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유럽청소년의회 등 기타 참여사업

① 유럽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 EYP)

EYP의 주요활동 중에는 4개의 옵저버국가, 12개의 EU멤버국가, 그리고 최소 16개개 국가들에서 250명~300명 정도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세계회의가 있다. 회의프로그램 중 3일 동안 계속되

는 Parliament Session에서는 12개의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결과 중 총회투표를 거쳐 채택된 내용은 European Parliament에 상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문제와 민주주의 과정에 관심에 갖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며, 세계시민의 하나로서 유럽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② 국제자유급진청소년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eral and Radical Youth : IFLRY)

IFLRY는 인권의 보편성과 개인성에 입각한 전세계 자유주의 청소년단체의 협력체이며 사무소는 현재 벨기에에 있다. 청소년자유주의자의 이익을 심화시키며 국제수준에서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 전세계 63개의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European Youth Forum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③ 어린이 자문기관 ‘바네움부테’(Barneombudet : 노르웨이)

바네움부테는 노르웨이 어린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하기 위한 공식기구이자 어린이들의 대변자로서, 일종의 어린이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이 기구에 전화나 편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공중전화에 자문기관의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며, 전화나 편지는 비밀이 보장된다. 여기에서 제안된 중요한 문제들은 매월 둘째 일요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가져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게 도움을 주며, 어린이를 위한 법의 제정에 관한 건의도 한다.

1981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아동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와 성인과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바네움부테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해 고압전선을 치우기 위해 에너지관리부서와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들의 아동학대와 폭력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다. 학대받는 아동들은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아동복지기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바네움부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의사는 아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무료전화를 통해 접수받아 일주일에 한 번 TV프로그램에 나와 그 주제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사회학자, 변호사, 비서 등으로 이루어진 직원들은 매년 수천통의 전화와 편지 답변을 하고 있다.

바네움부테는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권리와 지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성인들의 집단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들의 복지와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즉, 아동들의 복지와 지위증진을 위해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그 필요성과 의의를 널리 알리며, 각종 청소년관련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 청소년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투표행위를 통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중간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자율적인 청소년 자치활동

1) 청소년법원(Youth Court) 구성 · 운영

청소년법원은 미국 유타주 아메리칸 포오크 시(American Fork City) 청소년위원회 사업의 하나로 1993년 부터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많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벨기

에, 싱가포르, 호주 등지에서도 이에 관해 연구하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같은 연령의 청소년들로 구성되는 청소년법원을 지역의 사법기관의 협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청소년 참여 사례로 볼 수 있다.

① 청소년법원의 설치

아메리카 포오크 시 청소년법원의 기원은 청소년위원회가 처음 생길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메리칸 포오크 시 ‘청소년법원’(Youth Court)은 1993년 한 경찰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현지 경찰의 지도를 받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법원을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내었으며 맨 먼저 소년재판소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필요했다. 청소년법원은 소년재판소제도(Juvenile Court System)와 병행되고 있으며 소년재판소에 대해 보완적인 일을 한다. 청소년법원은 소년범들에게는 같은 연령 또래인 3명의 고등학생 연령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패널에 의해 심리를 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법원은 경범죄를 지은 청소년범들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는 기회를 준다. 또한 교육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원에서 일한 청소년들은 수료증(High School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의 청소년법원은 NBC와 CBS 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② 청소년법원의 기본특성

청소년법원은 물건훔치기, 통행금지 위반에서 성희롱 등의 범주에 드는 모든 범법행위로 체포된 소년들을 심리한다. 전형적인 범법행위로는 이 외에도 음주금지연령 위반, 무면허운전, 가출, 풍기문란행위, 불법침입, 예술(문화)파괴행위, 담배 불법소지와 흡연 등이 포함된다. 이 점에서는 성인재판제도와 같이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법원제도이다. 청소년이 범법행위를 해서 체포되면 소년법원이나 청소년법원 중 어디에서 심리 받을 것인지는 담당 경찰관들이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법원으로 보내진다.

“피고에게 24시간의 지역사회봉사와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한다. 6월 1일까지는 지역사회봉사를 마쳐야하며 그렇게 되면 범법사실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년법원으로 보내질 것이다. 소년법원에서는 피고에 대해 더욱 무거운 선고를 할 것이다. 피고는 18세 이전에 청소년법원에서는 두 번만 심리할 수 있으며 그 후에 피고는 소년법원에 보내질 것이며 범법사실이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불법행위를 한 10대 소년에게 청소년법원에서 내린 선고사례이다.

“이번이 청소년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하는 두 번째 재판이다. 피고는 이후로 더 이상 잘못을 해서는 않된다. 다음번에는 소년법원으로 보내질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화재를 일으킨 한 소년에게 내려진 선고의 내용이다.

청소년법원은 2가지 점에서 정규 소년재판소와 다르다. 첫째는 10대 피고들이 동료들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증거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법원에서 심리 받기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청소년 범죄자가 법정에 서면 10대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의 죄목을 말하고 판사는 범죄자에게 범죄사실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선고한다.

③ 청소년법원의 운영

청소년법원은 실제 재판정에서 실시되며 공적으로 인정된다. 경찰은 법원에서의 선고내용대로 집행한다. 청소년법원은 성인법원제도를 본따서 만들어졌지만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판사와 검사, 집행관 및 법원 서기에 이르는 모든 간부들이 현지의 10대 청소년들이다. 사법적 관례와는 달리 청소년법원의 판검사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다. 청소년법원은 학교제도의 일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간부가 되어 활동한다. 청소년법원은 청소년범죄자들이 동료청소년들에 의해 재판받도록 고안된 것이다. 청소년들이 성

인들에 의해 재판받을 때에 위협받는 기분을 갖게 되지만 청소년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이다.

한 도시의 경우에는 청소년법원을 15명의 학생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0명이나 지원했다고 한다. 한 간부는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들에게는 더욱 열려 있으며 아마도 우리들이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한다. 성인들보다는 학생들이 같은 또래들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 문제가 된 청소년들이 겪은 일에 대해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도시의 청소년법원은 28명의 학생으로 청소년법원을 구성하여 198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청소년법원은 다른 법원과는 달리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학생들이 싸움을 한 경우, 우리는 그들을 모두 법원으로 데리고 와서 해결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법원의 회원들은 회기를 맡아하며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8개 이내의 사건을 다룬다.

아메리카 포오크 시의 청소년법원은 매주 12~15개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각 법원은 1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열린다. 청소년법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점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는 소년재판소와 다르다. 소년재판소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벌금을 대신 내게 하는데 반해, 청소년법원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시간 지역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거나 범법행위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선고한다.

한 예를 보면,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재판받은 15세 소녀는 12시간의 사회봉사명령외에 유타주의 오토바이법에 관해 2페이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았다. 청소년법원은 최근 흡연과 학교 무단결석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금연교실이나 무단결석 금지학교 등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수업을 듣도

록 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담배를 훔친 죄로 재판을 받는 한 소년에게 판사는 10시간 사회봉사과 1개월간의 금연학교의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선고하면서 유타주에서는 19세까지는 흡연이 불법이라는 점을 말하였다. 16세 된 그 소년은 금연학교를 선택했으며 판사는 17세의 청소년이었다.

비록 청소년법원이 공식 재판으로 운영되지만, 청소년들은 무죄이거나 유죄에 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청소년법원에 가는 것은 유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받기로 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죄를 지은 것으로 거론되면 경찰관은 소년재판소에 갈 것인지 청소년법원에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청소년법원에 간다면 우리들은 부모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법정에서 나올 일자와 시간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다. 그들이 다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년재판소로 가고 추후에 날짜를 정하게 된다. 청소년 자신이 청소년법원을 선택한다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선고내용은 대체로 사회봉사,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한 사과편지, 범법행위와 관련한 이슈에 관한 보고서 제출 등이다.

청소년법원은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일을 맡아한다. 그들은 3개월간의 훈련기간을 가지며 실제 사건을 맡기 전에 1개월간의 모의 재판을 하게된다. 청소년법원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뢰와 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청소년법원에 서기 위해서는 2달러의 법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년재판소에 가는 대신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그들은 자기 또래의 3명의 재판관 앞에서 판결받는다. 선고는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 소년재판소에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청소년법원의 재판관들은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피고청소년에게 생각을 불러 일깨우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법원에서 신고 받은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수행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2번째로 법정에 나오게 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년재판소로 이첩되고 청소년법원에서의 기록이 따라가게 된다.

청소년법원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들이지만 각자는 자기 직책에 지원하기위한 이력서를 제출해야한다. 직책에는 판사 3명, 집행관 2명, 옥외집행관 1명, 경찰서장·검찰관 2명, 법원 서기 2명, 법원 통신문 2명 등 13명이다. 각 구성원들은 최소한 3차례이상 회기에 참석해서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청소년법원의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현지의 판검사의 실질적인 지도를 받기도 한다.

④ 청소년법원의 평가

청소년법원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태도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판결을 하게되는데 청소년범법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벌내용이 증가되는 소년법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청소년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주었다. 이 제도를 경험한 대부분의 소년들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많은 수가 자신들의 생활을 되돌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봉사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묘지, 도서관, 공원, 구급차 및 봉사활동이 필요한 교육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청소년법원의 어드바이저인 라본 로르센(LaVon Laursen)여사는 지역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이 몇가지 좋은 점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단 봉사 장소에 나가게 되면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지역사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구급차를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일

을 하게 되면 일부 청소년들은 할당된 시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청소년법원은 또한 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준다. 이들 청소년은 법과 정의, 대중적인 발표력 향상 및 현대 재판제도에 대한 지식 등을 배운다. 청소년법원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혁하고 변화시킨다.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법원의 진행과정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은 만족한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법률위반행위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모들이 물건을 훔친 자녀를 데리고 오기도 한다.

청소년법원은 또한 청소년과 경찰의 관계를 좋게 증진시킨다. 그리고 지역의 소년재판소제도가 사건으로 부담이 많이 되어 있어 재판정에 처음 서게 되는데만 3~4개월이 걸리게 되지만 청소년법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는 선고하기까지 1~2개월 밖에 걸리지 않고 있다.

2) 네덜란드의 청소년신문(Youth Paper)

네덜란드에서 청소년은 주로 청소년정보 프로젝트 실현과정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좋은 예가 북부 암스테르담의 ‘청소년신문’이다. ‘청소년정책’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암스테르담시의 북부 지역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내용과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청소년신문’을 최초로 만들었다. ‘청소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 신문은 12세부터 2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중등학교, 도서관, 체육관과 청소년센터에 배포된다.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정책 참여를 증대시키고, 학습과정을 시작하며, 청소년신문을 만드는 청소년과 그것을 읽는 청소년 모두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청소년의 독립(independence)이다. 현재, 7명의

청소년들 중 5명의 편집위원이 있다. 이 편집위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임을 갖는다. 신문주제는 보통 참여하는 전체 청소년들과의 모임에서 결정된다. 청소년 편집위원들 뿐만 아니라 중앙 단위 편집위원이 마지막 편집과 레이아웃을 도와준다. 이 편집위원들은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 중 한명은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언론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신문내용을 돕기로 약속해왔다. 예를들어 어떻게 인터뷰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지역에서 ‘청소년신문’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 V 장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제 1 절 인식전환을 통한 청소년참여의 촉진

청소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해야할 일들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청소년참여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 자신의 의식을 개혁하고 기성세대들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평등한 사회적 존재이며, 나름대로의 자의식과 창의성·개방성·호기심과 도전의식·무한한 잠재능력·순수한 비판의식 등 성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책임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힘있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은 모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존 관점에 대해 일대 변혁을 필요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조류이기도 한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성장과정의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가치기준에 맞추어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혹 청소년들의 경험세계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를 좁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각종 참여활동을 전개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공적인 사항이나 정치 문제에서의 참여를 생각할 경우, 청소년이 책임을 다할 각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자세가 없다면 성과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 이 점은 정치가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한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자질을 함양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고 기여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지향적 청소년단체와 모임들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은 제거시키고 참여촉진요인들은 증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참여할 것인가 즉, 참여주체, 참여동기, 참여방법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련한 참여주체로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관련 행정가 및 일반적 의미의 성인 주민(citizens)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각 집단들은 각기 상이한 정치사회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작용을 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기대, 목표를 갖게 된다. 참여자가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참여에 임한다면 그것은 의미없게 될 것이다. 참여방법은 어떠한 참여의 방법과 절차로 참여하고 참여의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참여대상은 참여주체가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행정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있어서의 참여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책형성과정, 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 중 어느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셋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역할에 대한 자기긍정 등의 기본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위한 응집력있는 일체적 노력이 기울어져야 될 것이다. 벨루스와 한스네흐트(J. Bellus와 W. Hansknecht)는 자치단체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심리적 일체감, 응집력 등이 기본동기가 된다고 보고 주민 참여의 여건으로 5가지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³⁷⁾

그들은 첫째,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조직력은 심리적 응집력을 갖고 조직체 형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37) Jewel Bellus & Murray Hansknecht "Planning, Participation, and Urban Renewal" in Urban Renewal : People, Politics and Planning, Doubleday, 1967, p.279.

기초가 되며 지역주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조직체에 참여하려는 당사자들의 자세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사기결집력(morale cohension)이 조직력을 통해 참여하는 기본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화뇌동으로 참여하기보다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각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승화하기 마련인데, 교육, 소득, 직업에 따라 개인의 참여태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참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도력(leadership)이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지역에 따라 지도력의 근원이 다를 수 있는데 조직체내에서 자생적으로 배양될 수도 있고, 필요한 참여지도자를 공급받기도 한다. 넷째, 지역사회내의 여러 참여 주체들이 무엇이 이슈이며, 어떤 이슈가 가장 논의의 쟁점이 되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섯째, 지식과 관련하여 사태파악 인지(awareness)의 정도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늘날의 청소년이 자질이 부족하고 성인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민주시민자질을 배양하고 시민권의식을 고양하는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의 필요성과 의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기회만 주어지면 적극적 참여하겠다는 의식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사회에 청소년참여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바램에 부응하는 정책적 노력과 적절한 참여제도와 경로를 개발하는 일이다.

이미 마련된 제4차 교육개혁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 윤리, 사회과 등 관련 교육내용이 보강될 예정이며 교내 학생법원, 학생고충처리제도(옴부즈맨), 모의국회 등 모의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별로 특성화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권장되고 있으며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예사 높임말인 공용어를 사용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분야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 모의재판, 모의 지방의회활동 등의 프로그램들이 일부 청소년단체와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프로그램들을 고유의 체계적 내용을 갖추어 지속적,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당위적으로 청소년들을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청소년의 권리 등에 대한 “연수나 학습을 통한 의식개혁”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의식전환, 자질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의식전환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청소년 자격부여(Youth Entitlement)”의 형태로써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등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우선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역할, 지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인식해야하며 그들이 성인 직업사회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었음을 확신해야 한다.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선택을 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무난히 옮겨갈 수 있도록 일련의 지원과 제도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교육, 직업상담, 노동시장정보, 직업경험기회, 기술과 관련된 기본훈련, 상위단계 교육과 기술의 접촉, 모든 기술

과 직업을 포괄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유효한 자격증의 효력 확보, 실업의 악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사항들은 공공정책으로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지만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특별한 지위를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섯째, 기성세대의 인식전환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청소년참여를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열의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사업과 프로그램을 보면 그에 따라 지역마다 청소년참여활동의 양적, 질적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청소년 관련 사업이 ‘청소년참여’ 의미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사업성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앞서의 청소년참여 시책 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시책모니터단 운영사업 등의 경우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처리하게 하고 다시 종합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료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당히 부담이 가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부심이나 인식이 없을 때는 업무 부담 가중으로 힘들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 담당자나 실무자의 열의와 관심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 담당자가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진행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의미에 따른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국제적 레벨에서의 젊은이들의 참여 촉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책 중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그동안 편협된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세계 속에서의 청소년의 진취적인 기상을 깨우치기 위하여 국제교류활동 참여가 촉진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유

럽, 아시아는 물론 구 소련과 중국 및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와도 각종 교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점은 특히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의 청소년(youth for Europe)의 교류 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오늘날은 동구 제국과의 교류가 새롭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국제교류는 전세계의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유익하며 또한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 2 절 다양한 청소년참여 방안의 모색

1. 기존제도의 보완과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제도의 보완과 정책반영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첫째는, 도지사나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물론 자치단체별로 청소년과 정책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한 참여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일이다. 대화는 참여에서 소외되기 쉬운 당사자들의 참여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욕을 고양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므로 더욱 발전시켜 청소년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대화중에는 관계당국의 약점까지도 노출시켜서 정책대상자들과 함께 걱정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하며, 건의 내용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을 이해시키고, 반영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예산에 우선하여 예산조치를 하며,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는 반드시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반드시 통보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신뢰를 주고 공식화해야 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둘째, 현행의 청소년관련 각종 위원회 기구나 자문협의 모임에는 청소년대표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단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조직효과는 그 구성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하는 것과 위원회에서의 자문 또는 협의 내용이 실제로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상적인 위원회의 구성은 세발의자(three legged stool) 즉, 공공부문의 당연직과 민간부문의 위촉 전문가 및 청소년대표 등이 3분의 1씩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또는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을 통한 중요 시책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서면 의견개진 및 공개회의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각종 청소년시책에 관련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행사에는 이해 관계자인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공청회가 효과적인 청소년참여의 수단이 되기위해서 일반시민과 청소년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는 필수적이며 공청회의 개최목적, 예정일시, 장소 등을 미리 공고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청회의 개최결과 집약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하여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별로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청소년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례화하여 정책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본추출방법, 설문지의 구성방법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문제발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정보 제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화 되고, 이른바 고도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가며, 자신의 장래 선택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선택을 도와 주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미 정부, 민간단체, 기업 등이 팜플렛, 소책자,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 전화 서비스 따위의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중복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배포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정보지원사업에는 어른의 입장에서 본 “청소년이 알아 두었으면 좋은 것이라는 측면보다도 “청소년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제공되도록 하는 시각 전환이 요청된다. 어른의 세계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청소년에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정치·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적정 연령에 달한 청소년들에 한해 선거권을 주어 선거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노동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노동법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제도적 규정상의 청소년지위는 적극적 우대, 목적적 대우의 성격을 결여하고 있고 아직도 보호·규제 위주의 내용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학교는 우선,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제도로 법률로 규정된 참여를 보증하고 있는 기관인데 특히, 중등교육기관에서는 법령에 의해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사업에 학생을 참가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정평가단 사례에서도 이를 조례화함으로서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 것은 이러한 법제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이와 관련 청소년의 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청소년참여사업에서 활동한 경우 등을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또는 주요 대학 등에서 청소년참여 경험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고 전 사회적으로 뜻깊고 의미있는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홍보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2. 새로운 참여수단의 모색과 참여적 사업의 개발

현행의 참여수단으로는 증대하고 있는 다양한 참여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없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절차나 방법이 간단한 새로운 참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참여적 사업과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선거 및 국민투표, 정당에의 가입, 이익단체의 가입, 국민발안에의 참여, 법제정권자 및 정책결정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정례적인 정책회의, 민원심사위원회, 정책공개를 통한 참여, 지방의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기록 및 공개의무화, 적극적인 대민홍보, 행정감시관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참여, 감사 및 조사청구, 주민발의제도, 주민소환제도, 설문조사, 시민상담실 운영, 이동 시(군)청, 구(주)민 간담회, 기타 다양한 여론수집 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참여 방법들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지위와 권한을 적절히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지역사회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공개토론회·공청회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반론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범위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합리화를 꾀하는 장치이지만 행정절차법만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② 정례적인 ‘정책회의’는 일상적인 시민참여방식으로 시장과 정책담당자 외 관계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을 참여시켜 자유롭게 토론하여 그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③ 민원심사위원회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례적인 의견수렴방식으로 시장과 각분야의 시민대표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의의를 제기하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정책을 수렴·보완하는 방식이다.

④ 공개를 통한 참여 증대방안은 지방정부의 각 기관 및 부서의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의 성명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전화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공공정책과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⑤ 소위원회 회의결과 기록 및 공개의무화는 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합의와 결정을 하게 되나 일반시민들의 회의방청이 허용되지 않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타협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토론내용과 합의경과 및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공개함으로써 부패나 결탁이 개입할 소재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⑥ 적극적인 대민홍보는 ‘시(군)정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연초에 직접 연설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이다. ‘시보’, ‘시정소

식', '시정백서' 등 월간, 계간, 연간 각종 보고서를 통해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차후 행정을 예고하기도 한다. 지역개발계획 등 주요내용을 각종 전시회를 통해 이해시키거나 서비스공급에 대한 '시범활동'을 통해 주민 이해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홍보차량'을 운영하거나, '움직이는 시민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 제반실정을 견학하게 한다.

⑦ 옴부즈맨제(Ombudsman, 행정감시관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 근접행정의 도구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고충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개혁을 제언하기 위한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발되었고 현재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현재 세계 7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중앙단위에 옴부즈맨 성격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서울시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⑧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참여방안은 정보화사회를 맞아 텔레비전, 컴퓨터, 팩시밀리 등 다양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⑨ 감사 및 조사청구 제도는 시정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시민연서로 행정에 대한 행정조사와 행정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발의에 의한 행정조사 및 감사청구 제도이다.

⑩ 주민발의제도는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청구제로서 시의회나 시의원의 부작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일정수 이상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특정한 조례에 대한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⑪ 주민소환제도(recall)는 일정수 이상 시민의 연서에 의해 시장, 시의회 의원, 기타 시의 간부 공무원 등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

을 임기 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나 의회의 동의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실제로 행사되는 효과 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

⑫ 기타 여론수집방법에는 행정모니터제도, 각종 위원회, 간담회, 설문조사, 민원실, 시민상담실, 시장에게의 편지, 시민의 지적, 종합 정보센터, 이동시(군)청 운영, 민의수렴기동반, 근린감시·제보제도,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주)민 간담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내무부에서 마련한 ‘주민투표법’이 2기 민선자치가 시작되는 1998년 4월 전에 국회는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그 경우, 청소년들의 정책과정 참여는 투표가능 연령문제와 함께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청소년참여 방안을 모색해보고 참여제도의 공개성을 높이더라도 특정한 참여제도는 필연적으로 참여의 대상, 절차 등에서 제한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므로 한두 가지 참여제도만으로는 다양한 계층 또는 집단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생청소년 이 외에도 근로청소년,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다양한 하위계층과 집단이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청소년정책사업에의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해 모색하는 방안에는 청소년입장에서의 참여방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점들, 즉 공개행정 및 홍보전략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정책들을 조사·검토하여 청소년들의 지위와 입장에 맞게 변형·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몇가지 방안은 새로운 참여수단을 모색하고 참여적 사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 될 것이다.

첫째,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과정의 전 단계에서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특히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에 의하여 반영되는 이익도 어느 단계에서 참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책결정 단계보다는 정책의제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의 참여가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의 추세는 정책의 입안에 대한 공청회의 경우에도 이미 정책당국에서 결정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정도의 참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단순히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형식만 갖추게 될 우려가 있으며 정책과정의 전 단계에서의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충분히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여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참여 형태의 특성에 맞는 참여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통로(Channel)를 다양화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참여의 통로는 비조직적이고 간접적이며 효과가 적은 비공식적 방식보다는 체계적·공식적 방법, 즉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각종 청소년관련 위원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개별적 조직적인 여러 참여통로를 보완하거나 새롭게 구성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타 각종 자문기관에 청소년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주요한 결정사항이나 사업의 집행, 청소년들이 바라는 사항 등 시정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안의 제시를 위한 시책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널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 참여는 전문가와 시책관계자는 물론 일반 주민과 청소년

들에 모두 허용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건설적인 비판 및 대안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토론회의 운영에 공헌을 한 청소년들은 적극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치단체의 청소년시책의 중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일반적 안내와 진행사항들을 통신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현행의 일간신문이나 지역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하거나 청소년들을 시정 통신원으로 활용하여 기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낮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로 시책 사업과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정책과 행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그들의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개발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통신의 활용(Teledemocracy)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각에 와 닿는 홍보와 참여 수단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통신망의 확대와 컴퓨터 보급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 및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수집 및 전달형으로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신문, Cable TV, 부가가치통신망(VAN) 등이 있고, 회의 및 토론형으로는 전화를 통한 다자간 회의, LAN을 이용한 텔파이 및 컴퓨터회의, 화상회의, TV회의 등이 있다. 현재로서는 보급율이 적은 매체도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좀더 확대될 경우 기존의 여러 참여 방법 등에서 제거되는 표본의 제한, 공정성 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효과적인 청소년참여

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실제로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기관이나 언론매체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화시대의 시민참여운동의 전개를 기치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청소년운동 등의 여러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기존의 운동방식에 더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³⁸⁾

여섯째, 청소년들의 직접참여기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대변자로서 청소년관련 업무 경력자나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문제 옴부즈맨 제도(감시기구)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20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신을 위해 정치가를 선출할 수 없고, 법체계 내에서 자신을 변론하기도 어려운 현실정에서 보면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청소년문제 옴부즈맨의 임무는 ① 청소년의 이익 촉진 및 청소년이 성장하는 환경에 대한 추적·감시. ② 모든 분야의 계획과 보고 단계에서 청소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 제출. ③ 청소년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촉진. ④ 법에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장치를 하도록 하는 일. ⑤ 청소년과 사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 제안. ⑥ 청소년권리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공적부문이나 사적 부문에 충분한 정보를 갖게 하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법이 제정되어 옴부즈맨이

38) 전자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경계론이 대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을 참조. 이유진,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전자민주주의 연구원 세미나 자료(1997년 4월 24일)

제량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옴부즈맨은 사회 각 분야를 모두 주시하면서 아동에게 해로운 일에는 경고를 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제안을 한다. 옴부즈맨은 정부 산하 기관이면서도 그 주요 업무가 정부 기관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의 경우 본질적 의미의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옴부즈맨 만큼의 권한은 없더라도 ‘청소년의 권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일곱째, 청소년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주장대회, 청소년창안공모제 등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주인의식을 키우는 “청소년 열린광장”,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는 “청소년 주장대회”, 창작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음악제”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청소년환경지킴이”,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시상하는 “청소년미디어대상” 등과 같은 주요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이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일을 검토할 수 있다.

여덟째, 청소년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폭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수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제공하며, 청소년단체가 스스로 결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의 주된 조건인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및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론으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청소년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건을 정비한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실례로 젊은 종업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아나 십대 청소년을 위해 활동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급료를 받으면서, 연수를 받게하며, 그 후에는 자원봉사자로서 여가 시간에 관련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시작된 ‘젊은이들의 도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18세부터 25세의 청년인 자신들이 실시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원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경제적, 인도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원조의 새로운 방법이 되고 있다.

아홉째, 이러한 청소년 참여적 사업과 제도 개발을 위해서는 무조건 형식을 갖춘 것을 기획하기보다 구체적이고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이 요청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에 우편함이나 소리함 등을 비치하는 등의 몇 가지 참여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의견을 개진할 일이 있는 경우에도 민원실 등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는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도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봉합엽서를 활용하거나 매달 발행되는 공공신문에 ‘시민의 소리’라는 시민참여란을 두어 시민들이 미담사례, 생활불편,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적어 보내면 참가기념품 주고 시정결과를 다음 신문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식적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운영(청소년대표위원회 등)

청소년참여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형태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참여적 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청소년참여는 공식적인 청소년자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청소년자치조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사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지만, 아직은 일시적 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거나 매우 초기적 단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학생과 근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구상하고 제안하며 청소년정책 사업의 계획과 실행, 평가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치모임으로서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⁹⁾ 이 기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과정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정책강화 효과를 얻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대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현행의 모니터제도나 청소년 대표들과 자치단체 책임자들간의 대화프로그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 기관의 추천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대표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의적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조직 또는 청소년단체·클럽의 형태로 모임체를 구성하여

39)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필요성은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의 청소년참여도 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천정웅 외, 지방청소년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pp.179~180 참조

그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참여적 활동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대표성의 확보라는 점이 중요하게 대두되지만 이는 반드시 확일적으로 비례대표적 성격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희망자와 추천을 통한 위촉 또는 회원모집이라는 방법이 구성단계에서부터 더욱 “참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한다. 첫째, 청소년의 의견을 청소년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청소년육성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시·도지사과 시·군구청장이 위원장인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들이고 당사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청소년지도자가 시·군·구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도 시·군·구 단위로 ‘청소년대표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관련 사업에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청소년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 최근 여성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여성이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사업은 청소년의 참여가 빈약하다. 사업의 기획, 진행, 그리고 평가 등 전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청소년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직접적 사업운영에 대한 경험기회를 많이 갖도록 권장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면서 현재 한 사람의 시민이다. 청소년이 지역단위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체득하고 청소년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이해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며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역할은 지역청소년들의 대변자, 여론조정자, 또래 지도자의 3가지로 본다. 첫째, 지역에는 학생, 근로자, 무직청

소년 등 다양한 부류의 청소년이 있고, 빈곤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회 등이 청소년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둘째, 청소년 관련 여론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집단의 다양성 때문에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은 여론이 분분할 수 있다. 이때 청소년대표위원회가 조사연구, 회의, 논쟁, 워크숍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의 조정을 맡도록 장려한다. 셋째, 청소년 또래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대표위원회는 청소년의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다른 청소년에게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동아리활동, 집단활동 등은 성인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청소년집단 성원 상호간의 교육이 효과적이다.

청소년대표위원회는 우선 사업시행이 용이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운영경과와 효과를 검토하여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채택하여 원하는 시·군·구의 계획서를 심사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몇 곳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장려한다.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계별 접근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영국의 지역청소년위원회의 10단계, 햄프셔교구청소년위원회의 10단계, 미국 청소년위원회 10단계 설치방안 등은 그 좋은 예

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개방적 모임의 조직, 주제와 관심사항의 선정, 유능한 지도자의 선출, 재원의 확보, 사업개발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연계망(network) 구성 및 지역청소년정책 사업 결정과정의 영향력 행사 등이다.⁴⁰⁾

청소년대표위원회 운영내용은 지역별로 해야 할 주요사업을 결정하고 현실적 여건에 맞는 규모와 방법으로 대표들을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청소년대표위원회가 하는 장단기 사업으로는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사교활동 등 연중 계속해야 할 일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시기에 지역행정기관이나 의회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대표위원회의 대략적인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활동은 임원회의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몇 개의 주요한 사업은 사업위원회 그리고 특별한 사업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상설 업무공간이 별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사무실의 대여나 임차, 활동비, 사무실의 집기와 설비, 최소한의 경상운영비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보조한다. 지역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은 개인의 회비, 부모의 후원금, 지역 기업과 민간단체의 후원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대표를 정하는 방법에서 “대표성”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비례대표적으로 구성한다거나

40) 영국 지역청소년위원회의 10단계와 미국 청소년위원회의 10단계 접근방안은 제 IV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영국 햄프셔교구 청소년위원회의 10단계 방안은 별도로 발간된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의 제 II장에서 소개된다.

각급 학교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과 같은 생각은 시작초기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방법이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취지 방법 등에 뜻을 같이하고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있는 희망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지역내 각급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을 통하여 참여 청소년대표를 추천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고등학교의 학생회 대표, 주요 청소년단체의 대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청소년동아리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점차 지역청소년 중에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청소년대표위원회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구성상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구성원의 학교급 연령 및 신분 등의 면에서 혼재되는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참여와 자발성 등이 약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자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위원회들이 구성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 활동이 전개된 이후에는 전국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자치단체별 청소년대표위원회의 정착에 일차적으로 목적을 두되, 중장기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연계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위원회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의회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우리사회에서 공식적인 청소년대표기구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대표기구를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적절한 토양을 찾아 시범사업화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요망된다. 단시간에 그 수준을 높이려는 욕심으로 형식만을 먼저 갖추기 보다는 우선은 청소

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그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청소년대표위원회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겠다는 생각이나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변경하는 등의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야할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참여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여 오랜 기간의 준비와 훈련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지원과 격려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지속되게 해야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사업은 어느정도의 신념을 갖고 임해야 하며 사업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되 기본적인 것은 중앙단위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 VI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청소년 계층의 생산적이고 주체적인 지위와 역할을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점차 청소년들을 중요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청소년정책사업 특히 지방단위 청소년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연구, 청소년참여 의식과 실태 분석, 국내·외 청소년참여 사례조사를 통한 운영방법 분석 및 다양한 청소년참여 방법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의 방법이 중심이 되었으며 연구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자문으로 연구내용을 보완하였다. 문헌연구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청소년 참여 정책·제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며 전문가 자문은 주로 청소년 참여의 개념, 수준, 방법,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례조사는 국내·외 청소년 참여활동 및 청소년대표자 모임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1997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 고교생 1,000명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책참여 의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993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988부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이 되었다.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영역을 물론 정책과 실천 그리고 이론과 실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참여’가 확대되고 또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하여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여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한, 일과 가정, 여가나 교육, 인간관계 등 모든 의미에서 의사결정의 분야로부터 청소년을 참여시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의 개념은 크게 4가지로 이해하였다. 우선 참여라고 하는 것은 협의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임을 알 필요가 있다. 참여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개념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맥락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민권의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셋째,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은 ‘청소년은 성인들의 책임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로부터 ‘청소년들의 참여는 바로 사회변화의 원동력이다’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소년참여는 지극히 다양한 범위로 사용된 개념이지만 청소년정책의 영역에서도 시대적으로 변화하면서 청소년참여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은 첫째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숙련기술이나 책임감을 기르지 않은 채 청소년들이 갑자기 책임감을 갖게 되어 16세, 18세 또는 21세에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는 또한 그들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창조적 정신의 배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란 민주주의의 제1원칙이며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넷째, 청소년으로서의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역할실험을 위해서도 참여는

필수적이다. 다섯째, 공적, 정치적, 참가 요컨대 의사결정에의 참가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청소년이 요구하고, 기성세대는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참여는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참여에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에 하나의 권한을 갖는 존재로서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여러 수준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인 참여형태 뿐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참여, 사회적인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과정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형태는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은 정책입안을 위한 주요 자료원(예를 들면 면접이나 설문지를 통한)으로서 사용되거나 당국의 정책 내용을 알게 되거나(지방언론이나 학교를 통해) 또는 토론이나 협의에 참석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유형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참여의 여러 단계에서 보면 외견적 전시적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저 하트(Hart)는 청소년참여의 수준을 특히 18세 이하를 중심으로 8가지로 구분하는 참여의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를 고안하였다. 그는 외견적 참여의 유형을 제외한 실질적 참여로는 부과하지만 알려주는(Assigned But Informed)단계, 자문하고 알려주는(Consulted and Informed)단계, 성인이 먼저 시작하고 의사결정을 아동과 함께하는(adult 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children)단계, 아동이 먼저 시작하고 끌어가는(Child initiated and directed)단계, 아동이 처음 시작하고 성인과 의사결정을 같이하는(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s)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트(Hart)는 아동과 성인사이에 영향이 공유되는 것을 참여의 최종목표로 보고 이를 참여 사닥다리의 최고 높은 단계로 규정한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 뉴욕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내에 보다 나은 성교육을 위한 연합체(coalition)을 결성했던 것을 들고

있다. 그들은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동료학생들의 수가 증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계획의 의미를 청원하여 당국에 확신시켰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교는 또래 상담원을 고용하고 임신과 성병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실태

먼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일반인식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청소년 참여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86.9%),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건전한 비판의식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74.7%)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모든 참여활동 분야(여가·문화활동,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정책과정참여활동)의 필요성에 7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편 79.2%의 청소년이 참여기회만 생긴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3.7%의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경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점이 참여가능성을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지위와 참여실태는 첫째,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51.1%의 청소년이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둘째,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낮다(73.3%, ‘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키면 92.6%)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참여의 실태와 관련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은 32.8%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의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 행사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의 방법은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방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캠페인활동 등 비제도적인 참여방법 보다는 공청회나 간담회, 참여를 위한 공식기구 운영 등 제도적인 참여방법을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건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낸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의견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참여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청소년모임’을 통한(34.6%) 집단적인 참여방법에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으며, 개별적인 의견제안 방법 중에서는 ‘행정기관 의 민원창구를 통해 직접 제안하는 것’(7.7%) 보다는 ‘신문이나 방송을 활용’(20.0%)하는 것에 더 많은 선호를 보여 행정기관에 대한 거리감과 의견제안에 있어서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경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대표위원회에 대해 78.9%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지역의 청소년대표위원회의 대표자는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률(56.2%)을 보였다. 넷째, 청소년창안제 참가 기회가 생긴다면 60.1%의 청소년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창안제의 의미를 살리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으로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 마련’(43.1%)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일회성 행사 보다는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청소년참여의 어려움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는데 첫째,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으로 ‘시간적인 여유부족’ 23.4%, ‘사

회적인 인식부족' 14.1%, '참여방법을 모르는 점' 14.0% 등의 응답률을 보여 시간부족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주요 사례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관련 사업은 크게 청소년관련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을 통한 정책과정 참여기회적인 의미로 평가되는 사업과 민간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회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참여활동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청소년시책모니터단, 도지사와 청소년대표와의 대화(충남), 대전사랑토론회(대전시), 청소년시책 아이디어 공모(과천시), 청소년구정평가단(서울시 송파구) 등은 전자의 예로 볼 수 있고, 청소년의회학교, 청소년위원회(걸스카우트), 녹색봉사단, 청소년토론의 광장, 청소년기자단(YMCA), 21세기 선발대 사업(민간기업) 등은 후자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참여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미국의 토랜스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 타운미팅, 이웃모임, 청소년토론회, 인터넷토론, 청소년 법원(Youth Court),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지역청소년위원회(Local Youth Council), 밀턴케인즈 청소년 포럼(Milton Keynes Youth Forum), 햄프셔청소년위원회(Hampshire Youth Council), 일본의 고교생주장대회, 네덜란드 마두로담시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 프랑스의 청소년자문위원회(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노르웨이의 어린이 자문기관 '바네움부테'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

로 보면 청소년대표 또는 정책참여적 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포럼” 등을 통한 조직적 단체의 활동과 청소년의회나 청소년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발표와 의견개진을 수렴하는 등의 행사성 토론발표적 참여활동사업, 그리고 조금 다른 성격으로 ‘청소년법원’이나 ‘청소년신문’ 등 자율적인 청소년 활동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와 중앙정부차원을 구분할 것 없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청소년참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참여는 청소년을 주어진 사회구조 속으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함이 없이 통합(fitting in)하는 하나의 도움이 되는 수단이다(serviceable means)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과 힘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다(a way to empowerment) 셋째, 청소년에게 경쟁력있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시민(fellow citizens)으로 발전되는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 수단적인 것이 될 수 있다(instrumental in education)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의 것(fitting in)은 적극적인 참여 형태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며 청소년의 발달이나 사회 발전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힘은 항상 그들의 현재의 발달 단계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영향력과 힘을 갖도록 하는 여지(space)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와 지도자들의 과업이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1차적 생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는 물론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역시 시민권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그들의 값어치와 마

찬가지로 청소년의 잠재성과 능력이 요청된다.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청소년이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platitude)는 따라서 언제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제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몇가지로 제안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기로 한다.

1. 인식전환을 통한 청소년참여 촉진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이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장이라는 철학에 바탕한 전 세계적인 조류이다. 이 점에서 청소년정책은 물론 사회문화적 제반 측면에서 청소년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성세대의 인식전환, 청소년의 참여의식 고양과 민주시민적 자질함양, 청소년에 대한 직업 준비 우선성 부여, 자치단체장과의 적극적 관심 및 청소년국제교류의 촉진 등이 요청된다.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인식전환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주체인 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역할에 대한 자기긍정과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응집력있는 일체적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민주시민적 자질을 배양하고 시민권의식을 고양하는 정책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자격부여(Youth Entitlement)”의 형태로써 청소년들에게 우선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인식해야 하며 그들이 성인 직업사회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었음을 확신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참여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특히 각급 자치단체장들의 관심과 열의가 가장 큰 힘이 된다. 일곱째 국제적 레벨에서의 젊은이들의 참여 촉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기존 제도의 보완과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참여기회를 통해 제시된 청소년들의 견해와 욕구를 적절히 수렴하는 등으로 정책반영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청소년관련 공청회나 위원회 운영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과 청소년창안제나 시책 아이디어 공모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첫째, 도지사나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물론 자치단체별로 청소년과 정책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한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의 청소년관련 각종 위원회 기구나 자문협의 모임에는 청소년대표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단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각종 청소년시책에 관련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행사에는 이해 관계자인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청회의 개최결과 집약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하여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별로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청소년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례화하여 정책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문제발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정보제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청소년 정보지원사업에는 어른의 입장에서 본 “청소년이 알아 두었으면 좋은

것”이라는 측면보다도 “청소년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제공되도록 하는 시각 전환이 요청된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일곱째, 청소년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가를 마련해야 한다.

3. 새로운 참여수단의 모색과 참여적 사업의 개발

기존의 청소년참여 정책 제도의 보완과 함께 다양하게 분출되는 청소년의 참여욕구를 수렴하고 보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참여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과정의 전 단계에서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특히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통로(Channel)를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주요한 결정사항이나 사업의 집행, 청소년들이 바라는 사항 등 시정 시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평가와 대안의 제시를 위한 시책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널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의 청소년시책의 중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일반적 안내와 진행사항들을 통신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통신의 활용(Teledemocracy)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각에 와 닿는 홍보와 참여 수단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관련 업무 경력자나 청소년지도사 등을 활용한 청소년문제 옴부즈맨 제도(감시기구)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소년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청소년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폭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제공하며, 청소년단체가 스스로 결정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새로운 참여수단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갖춘 것 보다도 생활속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4. 공식적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대표위원회) 구성 · 운영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참여적 정책수행 특히 청소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모임체’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중에서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청소년자치조직이 있어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 강화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점에서 지역별, 자치단체별로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현행의 모니터제도나 청소년대표들과 자치단체 책임자들간의 대화프로그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 기관의 추천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조직 또는 청소년단체 클럽의 형태로 모임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참여적 활동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대표성의 확보라는 점이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는 획일적이고 비례대표적 성격으로 이해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희망자와 추천을 통한 위촉 또는 회원모집이라는 방법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더욱 “참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대표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참여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여 단시간에 그 수준을 높이려는 욕심으로 형식만을 먼저 갖추기 보다는 우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위상을 높여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UN 아동권리 선언이 역사상 최초로 아동의 사회참여가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는 점을 밝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된 관심이 보호와 복지에 관한 것이지만 수년에 걸친 그간의 노력의 결과 지금은 자유권이 정의되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또한 시민이란 점을 승인하는 기초이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에 적극적 관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며, 청소년참여는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거나 도덕적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청소년은 교육, 노동, 주택 등의 시장에 있어서 신참이며 언제나 참여를 위한 준비부족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사회, 인간관계 형성의 면에서도 신참이며, 정치시장과 시민권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참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이 준비부족 상태에 있다는 것은 또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없다든가, 특히 교육 수준에 걸맞은 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원하지만 자신의 수입으로는 어려운 현실 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선거권 등 제도적으로 인정된 참여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는,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며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기존의 수속이나 제도에 친숙해지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청소년참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청소년에 대한 열정과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인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 Toffler)는 가족단위 혹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자율적 후기 산업사회에서 청소년의 거의 완전한 자립을 예견한 바 있다.⁴¹⁾ 만일 청소년의 참여가 모든 생활 분야에서 달성된다면 청소년분야의 최고의 발전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청소년참여의 미래는 ‘완전한 시민화’일수도 있으며 청소년분야는 미래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새로운 청소년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본이념으로 “청소년참여”를 채택하고 모든 청소년사업의 철학적 기초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의 동향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적 이념을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청소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우대하며 참여적 개념을 통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문제의 예방 등을 정책사업의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기 쉬운 분야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도 정책적으로 세계화·정보화·다원화시대에 맞는 인간형성을 위해 정책에 ‘청소년 참여’ 개념을 도입한지 오래이며 이것은 최근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열린교육체제, 학습자가 주인되는 교육방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정책에서도 우리는 기본철학을 청소년의 자발성, 자율성, 적극적 참여, 능동성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참여정책은 관념적 구호나 시범적 사업의 단계에서 나아가 정책분야의 하나로 영역화하여 정착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는 노력이

41) A. Toffler, 이규행 역, 제 3의 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9, 제 17장 참조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정책을 수행할 때 청소년의 욕구를 담아야 하며 경제활동분야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부족한 오늘의 현실을 개선하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상위법인 국제법에 어긋나는, 청소년참여를 제한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를 분석하여 제정하거나 적극 개정하는 일이 요청된다.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의 감각으로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전 국민에게 세계적 관심사로서의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청소년참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사회에서 청소년의 지위에 대한 문제, 청소년 권리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발전시켜 이 분야에 대한 지적작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논저

- 강인재 외(1995),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사
- 고성철(1982) 참여적 정치문화와 시민교육:참여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 교육부(1993), 민주시민 지도자료
- 권기녕(1996)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실태와 참여제고방안,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금동원(1995),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경북 영주시를 중심으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김세중(1988), 한국 민주화와 청소년-급진학생 문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11집
- 김신일·강대근(1983), 한국의 청년과 청년문화에 관한 연구경향과 방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6집
- 김안제 외(1993),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서울:박문각
- _____ (1994),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박문각
- 노화준(1990), 정책분석론, 박영사
- 나라정책연구회(1995),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길벗
- 박명운(1992),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 제8호
- 박종민(1994), 한국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 서영진(1993),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구조전환을 위한 실증적 모색, 서울:나남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1992), 청소년 소집단 활동 활성화의 길은(제22회 청소년지도자 토론회 보고서)
- 서정애(1988), 청소년단체의 정치교육 기능에 관한 연구-민주시민교

- 육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성병욱(1997),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성심여대사회과학연구소(1991),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 105개 정책제
언, 서울:형성사
- 송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편(1994),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서울:한울
- 신경훈(1996),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원광대출판사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
속,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오길자(1995),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천안시를 중심으
로,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유인종(1984),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의 모색, 한
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협, 1984 여름호
- 유재원(1995),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
국행정연구원
- 윤병로·이철위(1983), 한국 청년문화의 시대적 전개, 유네스코한국
위원회, 청년연구 제6집
- 유네스코 청소년활동지도자협의회 총복지부(1996), 지방화시대와 청소년
문제 - 1996년도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 추수과정 보고서
- 외무부(199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비준, 집무자료 91-47
- 이돈희(1987),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형성과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10집
- 이시재 외(1993),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 참여와 발전을 위한 105개
정책제언, 서울:형성사
- 이용교 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진주 외(1996),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사
- 이철위(1987), 중고교생에 대한 정치교육의 현상과 그 방향,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10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생사업국(1990), 학생자치활동 1.2, 푸른나무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정문화(1995), 지방자치-이것을 아십니까. 서울: 다산미디어

정범모(1983), 보다 나은 세대로의 청년문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6집

_____(1984),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육성방안,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청협*, 1984 여름호

정수복 편역(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정우재(1995), 시민참여에 대한 의식의 비교 연구-서울시 시민과 공무원

원을 대상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정재현(1990), 고등학교학생회, 서울:돌베개

정정길(1994),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지웅·최상호(1988), 지역사회개발론, 서울:교학연구사

정희천(1996), 한국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

정대학원 석사논문

조대연(1993),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참여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1996), 해외 자치행정 우수사례집(제3호)

천정웅 (1997),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과제”, 1급 청소년지도사 연

수교재 (별쇄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천정웅 (1995), “지구촌환경문제와 청소년참여동향에 관한 연구”, 한

국청소년연구 제 22집, 한국청소년개발원

천정웅 외(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1996), 지방청소년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1993), 민주사회 민주시민-고등학생용 민주시민교육자료
 _____(1993),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민주시민교육자료
 _____(1993), 민주사회 민주시민-중학생용 민주시민교육자료
 _____(1993),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운영
 _____(1994), 민주시민교육

한국국민윤리학회 편(1993), 민주시민을 위한 윤리·도덕, 형설출판사
 한국사회학회 편(1994),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나남출판
 한국아동권리학회(1997), “아동의 권리와 놀이문화”, 1997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6), “아동의 권리와 법”, 제16회 한국아동
 학대예방협회세미나 자료집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1996),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조직과 참여-제5
 차 지역사회개발학술발표대회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한국청소년개발원(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승희·이완수 외(1994), 바른시민생활활동,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한철희(1995),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
 학원 석사논문

홍기형(1984),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한
 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협, 1984 여름호

2. 국외논저

Blau, Francine D. & Ferber, Marianne A.(1991), Career plans and
 expectations of young women and men : the earning gap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6 No.4 Autumn 1991 pp.581-607

Chisholm, Rupert F. & Vansina, Leopold S.(1993), Varietie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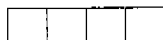
- participatio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17 No.3 Autumn 1993 pp.291-315
- Cohen, N.I.(1995), Technical assist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 A case study of New York City's environmental planning proces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5 No.2 June 1995
- Craig, S. C.(1984), Political Discontent and Participatory Styles(Youth & Society, V.15 No.4 June, 1984, pp.469-493),
대학생의 정치적 불만과 참여양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10집
- Dran, Gisela M., von(1993), Empowerment-a strategy for chang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18 No.3 pp.3-18
- Hart, Roger A.(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olerce, UNICEF Innocenti Essays.
- Kathlene, Lyn & Martin, John A.(1991),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 panel designs, perspectives, and policy form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10 No.1 pp.134-147
- Kenny, Christopher B.(1992.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ffects from the social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6 No.1 pp.259-267
- Kenny, Christopher(1993.4), The microenviron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s Quarterly*. Vol.21 No.2 pp.223-238
- Leighley, Jan E.(1990. 10), Social interaction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s Quarterly*. Vol.18 No.4 pp.459-475
- Levine, David I.(1990), Participation, productivity, and the firm's

- environment,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32 No.4
Summer 1990 pp.86-100
- Mason, T. David(1992.4), Women's participation in central American
revolutions : a theoretic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25 No.1 pp.63-89
- Nowak, Peter J. (1982), Community Conflict and Models of Political
Participation, *Rural Sociology*, Vol.47, No.2, Summer 1982
- Ronnelle Paulsen(1991), Education, social class, and participation
in collective action, *Sociology of Education*. Vol.64 No.2
April 1991 pp.96-110
- Seamon, F. & Feiock, R. C.(1995),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ty/county consolidation : Jacksonville-Duval Coun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8
pp.1741-1752
- Stone, Walter J., et al.(1992.8), Turning on or turning off?
Mobilization and demobilization effects of participation in
presidential nomination campaig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6 No.3 pp.665-691
- Thomas, Gail E.(1992), Participation and degree attainment of
African-American and Latino students in graduate education
relative to other racial and ethnic groups : an update from
office of civil rights data,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62 No.1 Spring 1992 pp.45-65
- UN(1986), "The situation of youth in the 1980s and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the year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88),
1980년대의 청소년의 상황, 그리고 2000년을 향한 전망과 도
전, *청년연구* 제11집

- Watts, Meredith W.(1990.10), Orientations toward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among West German yout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23 No.3 pp.283-313
- White, R. D.(1990), No space of their own : Young people and social control in Austr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ter, Micha de (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 Radcliffe Medical Press
- 日本 総務廳, 東京都, (社)青少年育成國民會議 編, 青少年健全育成中央 フォーラム [青少年 21世紀を擔う者:社會參加の 現状 促進策を探る]

부 록

- 지방청소년사업 강화를 위한
청소년의 정책참여 의식과 실태 질문지
-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자문자료
- 설문조사 통계 분석표



지방청소년사업 강화를 위한 청소년의 정책참여 의식과 실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문화체육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이론 및 정책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온 측면이 컸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며, 자신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원은 97년도 정책과제로서 “지방청소년사업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성심껏 응답해 주시면 보다 좋은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7. 6.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 137-130

☎ 02-578-7925 Fax 02-578-3985

※ 다음에 제시된 청소년의 여러 가지 참여활동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다소	그저	별로	전혀
			필요치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마을놀이터나 공공시설이 망가져 있으면 해당기관에 알려거나 직접 수리해야 한다. _____
2.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직접 항의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고발해야 한다. _____
3.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건전한 비판의식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 _____
4. 청소년들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_____
5.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_____
6.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등에 대해 친구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 _____
7.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다. _____
8.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의보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_____
9.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정책이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고, 정치·행정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_____

※ 다음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참여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의해 가르침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어 온 측면이 많았으나, 점차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위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다.
- ② 대체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 ⑤ 전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11. 우리사회의 청소년 참여활동은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②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참여가 부진한 편이다.
- ⑤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법으로의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아동(18세 미만) 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적절한 사회·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위에서 말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13. 다음에 제시된 여러가지 청소년 참여활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다소	그저	별로	전혀
			필요치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 (1)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 _____
- (2)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
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_____
- (3)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_____
(봉사활동 등)
- (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
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 _____
(아르바이트 등)
- (5)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_____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제도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을 만 20세부터 갖게 됨으로써, 다른 많은 헌행법상 성인의 자격을 갖는 만18세와 19세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일부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추어 이들에게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4. 만18세와 19세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반드시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②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③ 현재와 같은 상황도 별 문제없다.
- ④ 선거연령을 낮춰서는 절대로 안된다.
- ⑤ 잘 모르겠다.

18.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의 청소년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그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가능하다. ② 가능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가능하지 않다.
 ⑤ 전혀 가능하지 않다.
19. 만약 귀하에게 청소년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참여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참여하지 않는다.
 ⑤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20.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청소년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경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지역별로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나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청소년 포럼(Youth Forum)” 등 청소년대표로 구성되는 모임이나 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행정관청이나 청소년단체·기관 등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1.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대표들로 구성되는 “(가칭) 청소년대표위원회”란 기구를 두어 청소년정책에 지역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지역 “청소년대표위원회”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청소년축제 등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의 계획과 수행
- ② 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조언과 평가
- ③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제공
- ④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 및 각종 활동프로그램 제공
- ⑤ 청소년참여를 저해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캠페인
- ⑥ 기타 ()

23. 지역 “청소년대표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청소년대표자는 어떤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내 학교별 학생대표자들로 구성
- ② 학생, 청소년단체 회원, 근로청소년 등을 일정비율로 선정
- ③ 지역단위(구, 동별)로 청소년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정
- ④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⑤ 기타 ()

24. 지역별로 “청소년대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다음 중 2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지원자 부족으로 청소년대표자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② 청소년들의 호응과 관심이 부족할 것이다
- ③ 내용없는 형식적인 조직이 되기 쉬울 것이다
- ④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미흡하여 민주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 ⑤ 성인들의 인식과 사회적 여건이 비협조적일 것이다
- ⑥ 청소년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⑦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무리이다
- ⑧ 일부 청소년들에게만 유리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
- ⑨ 기타 ()

28. “청소년창업제”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이 낸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한다.
- ② 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도록 독려한다.
- ③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④ 청소년이 낸 아이디어 중 몇 가지를 청소년이 직접 수행해 보게 한다.
- 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의견을 수렴한다.
- ⑥ 기타()

※ 다음은 청소년이 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형태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잘 읽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개인적인 의견 전달부터 일정한 조직을 갖춘 청소년 모임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 | 그
그렇다 | 별로
필요치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29. 행정기관 및 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청소년들이 수시로 의견을 제안하게 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0.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청소년사업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1. 청소년 관련 정책을 계획 또는 수행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2. 간담회, 공청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관계자와 청소년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3. 청소년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지역 청소년대표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4. 청소년들이 지역신문·TV·방송 등에 투고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5. 청소년정책을 평가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나 제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청소년 모니터제도 청소년구정평가단, 청소년옴부즈맨제 등).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6.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한 전의 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캠페인활동을 벌인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다음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여러 가지 참여방법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문제를 겪거나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점차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노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⑤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38.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행사나 청소년 프로그램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다소 참여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9. 지역의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② 참가할 시간이 없어서
 ③ 행사 내용이나 시간 등 행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④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⑤ 내가 관심이 없어서

40.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과 단체의 청소년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업무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 ② 잘 반영되고 있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 ⑤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41. 귀하는 앞으로 지역의 청소년 복지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행정기관의 민원창구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한다
 - ② 지역의 사회(청소년)단체 등을 통해 제안한다
 - ③ 신문이나 방송을 활용한다
 - ④ 학교나 단체 등의 청소년모임을 통해 제안한다
 - ⑤ 관련 문제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 ⑥ 부모님을 통해 반사회 안전으로 제시한다
 - ⑦ 기타 ()
42. 청소년의 참여활동은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다
 - ②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다
 - ③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 ④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3. 청소년이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 2개를 골라 주십시오.
- ① 시간적인 여유부족
 - ② 사회적인 인식부족
 - ③ 참여방법을 모르는 점
 - ④ 다른 청소년들의 관심부족
 - ⑤ 참여해도 성과가 없다는 점
 - ⑥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
 - ⑦ 참여제도의 부족
 - ⑧ 정책내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

44. 귀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참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 다음중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골라 답해 주십시오.

- ① 다양한 청소년 참여제도를 개발하고 확충하는 일
- ②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일
- ③ 정책결정자가 청소년참여에 대한 권위주의적 행정의식을 탈피하는 것
- ④ 언론이나 사회집단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
- ⑤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일
- ⑥ 참여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
- ⑦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46. 출생년도 : 19____ 년

47. 소속 학교계열

- ① 인문계 고등학교 ② 실업계 고등학교

4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태어나서 현재까지
- ② 5년 미만
- ③ 5년 ~ 10년
- ④ 이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49.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_____구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자문 자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문화체육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이론 및 정책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온 측면이 컸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며, 자신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원은 97년도 정책과제로서 “지방청소년사업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팀은 그 동안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적 탐색,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한 사회적 여건 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청소년 참여 방안을 내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참여활동 사례를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모범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운영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평소에 느꼈던 점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보다 좋은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137-140

☎ 02-578-7925 Fax 02-578-9356

I. 연구목적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단위에서 청소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청소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결과적인 차원에서의 양적인 진단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수립과 수행, 그리고 평가의 전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자 서비스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관심과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그들의 기대와 가치에 부응하는가가 지방자치시대의 정책의 효과와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결정이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은 정책결정의 수혜자인 청소년 자신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입함으로써 정책결정이 보다 청소년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게 되도록 도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거주민으로서의 관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 부담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려는 참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집권적 관료행정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참여에 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으며 청소년들은 단지 보호 또는 선도의 대상으로서만 취급당해 왔다. 또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선거에 참여할 나이가 안되어 유권자로서의 영

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느 집단 보다는 정책과정에서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태어나서 그 곳에서 성장하며 문제가 발생한 곳이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도 바로 그 지역사회이며, 또한 청소년들이 그동안 역사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는 점들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크게 전환되어 지구촌내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집단은 사회에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소비계층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계층이며, 이들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직접 일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도 이상적인 계층이지만 현단계에서 “아직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일 뿐이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 요구, 그리고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토랜스시의 ‘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나 영국의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와 같은 공식적인 청소년조직을 통한 청소년참여 형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관계 정책에 대해 조언과 비평 등 직접적인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토랜스 청소년위원회는 철저히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다른 시정부 위원회와 똑같은 자문단체 권한을 가지고, 청소년행사 기획·

진행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정책결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욕구와 부담,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참여를 통해 얻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으며, 정책집행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정책집행에 추진력과 탄력을 얻게되며 정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게 되는 등 다양한 정책강화 효과를 얻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 참여확대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청소년시책 모니터단’, ‘청소년구정평가단’,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 ‘청소년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 참여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행정에의 시민들의 참여행위이며, 지방의 청소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청소년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아래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 청소년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첫 번째 연구목적이 있다.

두번째는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조치는 공식적인 법적·제도적인 지위를 갖는 ‘청소년위원회(가칭)’와 같은 청소년기구의 제도화라고 할 때, 우리사회에 이러한 청소년위원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쪽과 그 대상이 되는 쪽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준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철저한 사전작업없이 조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므로 여러가지 주관적·객관적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역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예측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단위에서 청소년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청소년참여기구의 제도화 가능성 탐색 및 모델 개발을 통해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획·수행·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정책과정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주요 자문내용

■ 일반적 제언

1.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청소년참여의 개념 및 정의
- 청소년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 청소년참여의 유형과 수준

2. 청소년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 청소년참여의 동향 및 실태(국내·외)
- 청소년참여의 문제점 진단

■ 사업수행 사례

1.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활동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경우는 첨부해 주십시오.
 - 사업명
 - 사업목적 및 의의
 - 사업대상 청소년(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등)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
(주요 활동 및 진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사업수행 동기(아이디어 제공자 등)
 - 사업연혁
2. 귀 기관의 청소년참여활동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들의 호응도 및 관심도
 - 사업의 성과 및 효과
 - 청소년들의 반응 및 청소년 스스로의 평가(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 사업 운영과정 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 사업 활성화 방안(향후 보완점 및 발전방향)
 - 사업 전망 예측

■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

1. 여러 가지 청소년참여활동을 운영해본 경험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이나 의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청소년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2. 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청소년참여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청소년참여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일반성인, 정책관계자, 부모 등)은 전반적으로 어떠했습니까?
3. 지역의 청소년정책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나 PC통신·전화 등을 이용한 의견접수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대표를 선정해서 대표자회의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우리사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십시오.

■ 공식조직을 통한 청소년참여 방안(가칭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의견

※ “Ⅲ. 참고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필요성 및 의의
- 현실 가능성(주관적·객관적 여건)
- 현실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관련 법규 및 제도 등)
- 현실화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
- 현실화 방안
- 청소년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대표선정 방법
- 기타 제언

■ 자료협조

- 사업 운영현황 및 청소년들의 활동을 나타내주는 자료들이 있

오면 첨부해 주십시오.(예 :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회의록, 청소년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자료, 각종 활동자료 등)

- 본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한 국내·외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예 : 타 단체의 청소년참여 관련 사업 사례 정보 등)

※ 위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II. 참고자료

미국 토랜스 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

미국 토랜스시는 시장 한명과 시의원 6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도시의 청소년위원회는 철저히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다른 기존 시정부 위원회와 똑같은 자문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토랜스시는 청소년관계 정책과 관련, 청소년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① 구 성

청소년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토랜스 통합교육구내 4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대표 8명(각 학교당 2명), 토랜스 시에 속해있는 El Camino Community College(2년제 대학으로 정해진 과정의 이수후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에서 선발된 2명, 그리고 그외 청소년중에서 2명이 선발된다. 위원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매해 가을까지 제출하고 곧 면담을 거쳐서 선발된다. 12명의 위원들 중에서 의장이 투표로 선출

되는데, 의장은 청소년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로 되므로 현재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 온 대학생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② 활 동

매월 첫째 수요일과 셋째 수요일 오후 7시에 정기모임이 있고, 이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활동계획 점검과 진행, 그리고 시정부와의 협조사항 토의 및 결정이 있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1년 전반에 걸쳐 계획된 청소년행사 기획과 진행이 있는데, 봄철 청소년축제 및 크리스마스 행사, Friday Night Live(매주 금요일 저녁에 행해지는 청소년행사로 클럽활동, 현장견학, 무도회, 음악회, 캠핑, 영화관람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술과 마약의 유혹의 기회를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행, 그리고 각급 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 및 협조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진행외에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시의회에 참석하여 청소년관계 정책과 그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지역사회서비스위원회(Community Service Commission)와 공원관리위원회(Park and Recreation Commission)의 정기모임에도 참여하여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도 한다.

③ 활동기금 조성 및 사용

청소년위원회는 토랜스의 공식 자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재정적인 독립체로 활동한다. 모든 행사진행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순전히 위원회가 직접 조성한 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이 기금은 주로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장에 음식 판매대를 설치, 운영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과외활동이 대학입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이들의 경력은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되므로 청소년위원회 활동은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설문조사 통계 분석표

[표-1] 마을시설 망가지면 기관통고나 직접수리

(단위:%)

반응		마을시설 통고수리				계	
변인		매우 그렇다	다 그렇다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¹⁾	남자	23.6	16.9	23.0	16.9	19.7	100.0
	여자	25.7	23.2	17.6	16.9	16.7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7.3	21.5	19.1	14.8	17.2	100.0
	만17세	22.7	18.8	21.0	17.9	19.6	100.0
	만16세 이하	25.1	19.8	21.1	17.2	16.7	100.0
학교계열 ³⁾	인문고교	23.7	18.2	19.6	17.3	21.3	100.0
	실업고교	25.7	22.2	22.2	16.1	13.9	100.0
거주기간 ⁴⁾	10년 이상	24.0	18.5	20.5	17.2	19.8	100.0
	10년 미만	25.0	20.8	20.6	16.6	17.0	100.0
거주지역 ⁵⁾	남부	24.2	20.2	19.3	17.1	19.1	100.0
	북부	24.8	19.1	22.5	16.5	17.0	100.0
전체		24.5	19.8	20.7	16.9	18.2	100.0

1) $\chi^2=10.09^*$ 2) N.S. 3) $\chi^2=10.38^*$ 4) N.S. 5) N.S.
* $p<0.05$ ** $p<0.01$ *** $p<0.001$ (이하 동일함)

[표-2] 부당한 일 직접항의 우편전화 고발

반응		부당한일 항의고발				계	
변인		매우 그렇다	다 그렇다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31.8	27.2	21.3	13.9	5.8	100.0
	여자	36.2	27.4	19.3	13.0	4.0	100.0
연령	만18세 이상	38.3	27.7	19.5	10.5	3.9	100.0
	만17세	31.4	27.4	20.4	15.0	5.8	100.0
	만16세 이하	33.0	26.9	22.0	13.2	4.8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5.3	28.0	18.2	13.4	5.1	100.0
	실업고교	31.7	26.1	23.6	13.8	4.8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34.4	24.8	22.7	12.9	5.2	100.0
	10년 미만	33.3	29.2	18.5	14.2	4.8	100.0
거주지역	남부	34.8	28.7	18.2	12.3	6.0	100.0
	북부	32.3	25.5	23.1	15.3	3.8	100.0
전체		33.7	27.3	20.3	13.6	5.0	100.0

1) N.S. 2) N.S. 3) N.S. 4) N.S. 5) N.S.

[표-3] 사회참여 비판의식 민주적 발전 저해

반응		참여비판 발전기여				계
변인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43.9	26.0	18.5	8.7	3.0
여자		49.7	30.8	11.2	5.8	2.5
연령						
만18세 이상		43.8	28.5	17.2	7.8	2.7
만17세		47.4	28.0	15.4	7.1	2.1
만16세 이하		47.6	29.1	11.9	7.9	3.5
학교계열						
인문고교		50.6	28.6	12.6	5.3	2.9
실업고교		40.6	27.5	18.9	10.6	2.5
거주기간						
10년 이상		46.7	27.5	14.4	8.1	3.3
10년 미만		46.1	28.8	15.8	6.9	2.3
거주지역						
한강 남부		47.7	30.9	12.3	6.1	2.9
한강 북부		44.8	24.6	18.7	9.2	2.6
전체		46.5	28.2	15.1	7.5	2.8

1) $\chi^2=14.91^{**}$ 2) N.S. 3) $\chi^2=20.29^{***}$ 4) N.S. 5) $\chi^2=13.47^{**}$

[표-4] 여건 허락되면 경제활동 직접참가

반응		경제활동 직접참여				계
변인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40.2	34.2	17.1	6.0	2.4
여자		44.9	32.6	16.4	4.9	1.1
연령						
만18세 이상		38.7	37.5	17.6	5.1	1.2
만17세		43.3	32.1	16.0	6.3	2.3
만16세 이하		45.6	31.4	17.3	4.4	1.3
학교계열						
인문고교		40.9	34.7	16.3	6.5	1.5
실업고교		44.6	31.2	17.6	4.3	2.3
거주기간						
10년 이상		39.9	34.0	15.7	7.6	2.8
10년 미만		44.4	32.8	18.0	3.9	1.0
거주지역						
한강 남부		42.1	34.0	15.7	6.7	1.4
한강 북부		42.6	32.4	18.4	4.3	2.4
전체		42.3	33.3	16.9	5.6	1.8

1) N.S. 2) N.S. 3) N.S. 4) $\chi^2=12.75^*$ 5) N.S.

[표-5] 정치관심 갖고 가능하면 정치활동 참여

반응 변인	정치활동 참여					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19.0	25.4	26.5	20.7	8.5	100.0
여자	17.5	32.8	29.2	16.9	3.6	100.0
연령						
만18세 이상	16.8	31.6	27.3	18.4	5.9	100.0
만17세	19.8	23.5	29.3	20.4	7.1	100.0
만16세 이하	17.3	35.4	24.8	16.4	6.2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9.1	29.3	28.7	17.4	5.5	100.0
실업고교	17.1	27.9	25.9	21.4	7.8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9.2	29.5	26.4	18.3	6.6	100.0
10년 미만	17.1	28.1	28.7	19.7	6.4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9.3	27.7	29.7	18.1	5.2	100.0
한강 북부	17.0	29.8	25.1	20.3	7.8	100.0
전 체	18.3	28.6	27.7	19.1	6.4	100.0

1) $\chi^2=16.63^{**}$ 2) N.S. 3) N.S. 4) N.S. 5) N.S.

[표-6] 사회정치문제 친구들과 종종 이야기 함

반응 변인	사회문제 이야기					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10.3	24.8	22.7	23.1	19.1	100.0
여자	7.0	30.8	29.4	22.2	10.6	100.0
연령						
만18세 이상	7.4	30.1	29.7	23.0	9.8	100.0
만17세	8.5	26.8	26.0	21.0	17.7	100.0
만16세 이하	11.1	24.8	21.2	27.0	15.9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1.0	29.4	24.1	22.7	12.9	100.0
실업고교	5.5	24.6	28.4	22.9	18.6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0.7	28.8	24.2	20.3	15.9	100.0
10년 미만	6.7	26.3	27.5	24.8	14.6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9.6	26.6	24.2	25.3	14.3	100.0
한강 북부	7.8	28.3	28.3	19.1	16.5	100.0
전 체	8.8	27.3	26.0	22.6	15.3	100.0

1) $\chi^2=22.34^{***}$ 2) $\chi^2=15.92^*$ 3) $\chi^2=16.79^{**}$ 4) N.S. 5) N.S.

[표-7] 지역일이나 문제에 관심 많다

반응	지역일 문제관심					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10.5	21.6	37.0	21.8	9.0	100.0
여자	6.3	27.4	34.6	26.1	5.6	100.0
연령						
만18세 이상	6.6	30.9	37.5	18.8	6.3	100.0
만17세 이하	8.8	22.3	36.0	24.6	8.3	100.0
만16세 이하	10.6	20.4	34.5	27.9	6.6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8.9	24.9	34.0	24.7	7.4	100.0
실업고교	8.1	22.9	38.5	22.9	7.6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9.6	25.4	35.0	21.2	8.8	100.0
10년 미만	7.7	22.9	36.5	26.5	6.3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9.6	23.0	34.2	25.7	7.6	100.0
한강 북부	7.3	25.8	37.8	21.7	7.3	100.0
전 체	8.6	24.2	35.8	24.0	7.5	100.0

1) $\chi^2=14.42^{**}$ 2) N.S. 3) N.S. 4) N.S. 5) N.S.

[표-8] 정책반영 개별 보다 다수의견이 효과적

반응	정책반영 다수의견					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38.1	33.2	15.4	7.9	5.4	100.0
여자	36.4	38.0	17.3	6.7	1.6	100.0
연령						
만18세 이상	41.0	34.8	12.5	9.4	2.3	100.0
만17세 이하	36.4	36.0	16.6	7.3	3.7	100.0
만16세 이하	35.4	35.8	18.6	5.8	4.4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4.7	35.7	16.7	8.8	4.1	100.0
실업고교	40.7	35.4	15.6	5.3	3.0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38.0	34.9	14.4	8.7	3.9	100.0
10년 미만	36.3	36.2	17.9	6.2	3.5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36.9	36.7	16.3	7.8	2.4	100.0
한강 북부	37.3	34.2	16.3	6.8	5.4	100.0
전 체	37.1	35.6	16.3	7.4	3.7	100.0

1) $\chi^2=12.58^*$ 2) N.S. 3) N.S. 4) N.S. 5) N.S.

[표-9] 청소년정책 중요시하고 정치행정이 관심많음

반응 변인	청소년정책 관심					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별						
남자	10.1	16.3	25.0	28.3	20.3	100.0
여자	7.2	11.9	23.4	31.7	25.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7.4	14.5	30.1	29.3	18.8	100.0
만17세	9.6	14.1	23.9	28.9	23.5	100.0
만16세 이하	9.3	13.3	18.1	33.2	26.1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8.9	11.9	22.3	28.0	28.9	100.0
실업고교	8.5	17.8	26.9	32.9	13.8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8.5	13.8	26.2	25.8	25.8	100.0
10년 미만	9.2	14.8	22.3	33.8	19.8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9.2	13.6	22.2	28.6	26.4	100.0
한강 북부	8.5	15.3	26.4	31.8	17.9	100.0
전 체	8.9	14.3	24.1	30.0	22.7	100.0

1) N.S. 2) N.S. 3) N.S. 4) N.S. 5) N.S.

[표-10] 청소년참여활동 기회제공에 대한 의견

반응 변인	참여기회제공 의견				계	
	매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저 그렇다	바람직 하지않음		
성별						
남자	47.7	36.0	11.6	3.8	0.9	100.0
여자	55.1	35.7	5.9	3.4	0.0	100.0
연령						
만18세 이상	53.7	35.7	7.5	3.1	0.0	100.0
만17세	50.6	35.8	9.4	3.5	0.6	100.0
만16세 이하	50.9	36.7	8.0	3.5	0.9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56.7	31.3	8.1	3.4	0.5	100.0
실업고교	42.9	42.4	10.4	3.8	0.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53.6	33.5	9.0	3.1	0.9	100.0
10년 미만	48.6	38.2	9.1	4.0	0.2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56.2	33.8	6.5	2.7	0.7	100.0
한강 북부	43.8	38.9	12.3	4.7	0.2	100.0
전 체	50.9	36.0	9.0	3.6	0.5	100.0

1) $\chi^2=15.78^{**}$ 2) N.S. 3) $\chi^2=18.37^{***}$ 4) N.S. 5) $\chi^2=21.73^{***}$

[표-11] 청소년참여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도

반응 변인	참여활동 실태정도				계	
	매우 활발함	활발함 편	그 그렇다	참여부 진한편	전혀안 이뤄짐	
성별						
남자	1.9	4.9	27.7	45.3	20.2	100.0
여자	0.2	2.0	21.4	55.0	21.4	100.0
연령						
만18세 이상	0.0	3.1	24.6	50.8	21.5	100.0
만17세	1.0	3.8	26.7	48.5	20.0	100.0
만16세 이하	2.6	2.6	22.0	52.0	20.7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7	3.4	22.3	49.2	23.3	100.0
실업고교	0.3	3.8	28.5	50.4	17.1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0.9	2.8	23.4	48.3	24.7	100.0
10년 미만	1.3	4.2	26.0	51.2	17.3	100.0
거주지역						
한강남부	0.9	2.2	22.7	51.6	22.6	100.0
한강북부	1.4	5.2	27.4	47.5	18.4	100.0
전 체	1.1	3.5	24.8	49.8	20.8	100.0

1) $\chi^2=19.91^{***}$ 2) N.S. 3) $\chi^2=12.63^*$ 4) N.S. 5) $\chi^2=11.81^*$

[표-12]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수준

반응 변인	청소년 권리수준				계	
	매우 높다	높은 편임	그 그렇다	낮은 편임	매우 낮다	
성별						
남자	1.9	7.1	18.5	41.8	30.7	100.0
여자	0.9	4.5	20.5	47.3	26.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0.8	4.7	21.5	46.5	26.6	100.0
만17세	1.7	5.6	18.1	44.4	30.2	100.0
만16세 이하	1.8	7.9	18.5	43.2	28.6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9	5.3	15.8	44.8	32.2	100.0
실업고교	0.8	6.8	24.7	43.6	24.2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3	4.4	20.3	41.9	32.1	100.0
10년 미만	1.5	7.3	18.5	46.5	26.2	100.0
거주지역						
한강남부	0.7	5.8	17.0	44.9	31.6	100.0
한강북부	2.4	6.1	22.5	43.5	25.5	100.0
전 체	1.4	5.9	19.3	44.3	29.0	100.0

1) N.S. 2) N.S. 3) $\chi^2=18.03^{**}$ 4) N.S. 5) $\chi^2=11.46^*$

[표-13] 청소년문제에 대한 의견 소감 피력

반응		청소년문제 견해				계
변인		매우 필요	다소 필요	그 그렇다	별로필 요안함	전혀필 요안함
성별						
남자		45.3	36.0	15.9	2.6	0.2
여자		51.5	36.9	10.3	0.9	0.4
연령						
만18세 이상		49.2	39.5	10.5	0.8	0.0
만17세		47.2	35.1	15.2	1.9	0.6
만16세 이하		48.9	36.1	12.3	2.6	0.0
학교계열						
인문고교		49.9	36.0	12.5	1.4	0.2
실업고교		45.2	37.2	14.6	2.5	0.5
거주기간						
10년 이상		50.1	34.9	12.6	2.0	0.4
10년 미만		46.0	37.9	14.2	1.7	0.2
거주지역						
한강남부		49.8	34.8	13.4	1.8	0.2
한강북부		45.5	38.4	13.7	1.9	0.5
전체		48.0	36.4	13.5	1.8	0.3

1) $\chi^2=12.07^*$ 2) N.S. 3) N.S. 4) N.S. 5) N.S.

[표-14] 정책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제시

반응		정책과정 의견제시				계
변인		매우 필요	다소 필요	그 그렇다	별로필 요안함	전혀필 요안함
성별						
남자		33.1	34.8	23.6	7.3	1.1
여자		40.9	34.4	19.6	4.3	0.9
연령						
만18세 이상		38.7	33.2	21.5	5.9	0.8
만17세		36.4	33.9	22.5	6.2	1.0
만16세 이하		35.7	37.0	20.3	5.7	1.3
학교계열						
인문고교		39.6	35.7	19.4	4.5	0.9
실업고교		32.2	33.2	25.1	8.3	1.3
거주기간						
10년 이상		39.4	32.7	21.1	5.4	1.3
10년 미만		33.8	36.3	22.5	6.5	0.8
거주지역						
한강남부		38.4	36.5	18.8	6.0	0.4
한강북부		34.2	32.1	25.9	5.9	1.9
전체		36.6	34.6	21.9	5.9%	1.0

1) $\chi^2=9.71^*$ 2) N.S. 3) $\chi^2=13.77^{**}$ 4) N.S. 5) $\chi^2=13.64^{**}$

[표-15] 청소년 능력과 도움 필요한 사회활동

반응	능력필요 도움활동					계
	매우 필요	다소 필요	그 저 그렇다	별로필 요안함	전혀필 요안함	
성별						
남자	38.5	37.0	18.0	4.5	2.1	100.0
여자	41.3	39.1	11.9	5.8	1.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39.1	43.4	10.5	5.5	1.6	100.0
만17세	40.4	36.0	16.9	4.8	1.9	100.0
만16세 이하	38.3	36.1	17.2	5.7	2.6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7.3	36.8	17.2	6.5	2.2	100.0
실업고교	43.2	39.7	12.6	3.0	1.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41.2	36.8	14.4	5.4	2.2	100.0
10년 미만	38.2	39.3	16.0	4.8	1.7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40.1	37.0	15.5	5.4	2.0	100.0
한강 북부	39.0	39.2	15.1	4.7	1.9	100.0
전 체	39.6	38.0	15.4	5.1	1.9	100.0

1) N.S. 2) N.S. 3) $\chi^2=12.29^*$ 4) N.S. 5) N.S.

[표-16] 스스로 경제적 도움되는 활동참여

반응	자율 경제도움활동					계
	매우 필요	다소 필요	그 저 그렇다	별로필 요안함	전혀필 요안함	
성별						
남자	39.1	37.8	15.9	5.6	1.5	100.0
여자	41.8	39.8	13.0	3.8	1.6	100.0
연령						
만18세 이상	31.3	45.3	17.6	4.3	1.6	100.0
만17세	42.4	37.4	13.7	4.8	1.7	100.0
만16세 이하	45.8	34.8	12.3	5.7	1.3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8.3	37.2	16.8	6.0	1.7	100.0
실업고교	43.5	41.0	11.3	3.0	1.3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40.7	38.3	14.4	5.2	1.3	100.0
10년 미만	39.8	39.2	14.8	4.4	1.7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39.2	37.4	16.6	5.6	1.3	100.0
한강 북부	41.5	40.8	12.0	3.8	1.9	100.0
전 체	40.2	38.9	14.6	4.8	1.5	100.0

1) N.S. 2) N.S. 3) $\chi^2=12.09^*$ 4) N.S. 5) N.S.

[표-17] 청소년 여가 문화행사 직접계획 실행

반응		여가문화 계획실행				계
변인		매우 필요	다소 필요	그 저 그렇다	별로 필 요 안함	전혀 필 요 안함
성별						
남자		47.9	34.6	12.0	4.5	0.9
여자		59.8	30.6	8.1	0.9	0.7
연령						
만18세 이상		55.5	32.8	9.8	2.0	0.0
만17세		51.4	32.6	11.2	3.7	1.0
만16세 이하		55.5	34.4	7.0	1.8	1.3
학교계열						
인문고교		56.4	30.0	10.1	2.6	0.9
실업고교		49.0	36.4	10.6	3.3	0.8
거주기간						
10년 이상		54.2	31.4	10.9	2.6	0.9
10년 미만		52.7	33.7	9.8	3.1	0.8
거주지역						
한강 남부		55.8	33.2	9.0	1.4	0.5
한강 북부		50.2	31.8	12.0	4.7	1.2
전 체		53.4	32.6	10.3	2.9	0.8

1) $\chi^2=22.39^{***}$ 2) N.S. 3) N.S. 4) N.S. 5) $\chi^2=13.80^{**}$

[표-18] 선거권 연령인하에 대한 의견

반응		청소년선거권 주장				계
변인		반 대 연령 인하	시 정 연령 인하	추 진 연령 인하	현 제 연령 인하	도 대 연령 인하
성별						
남자		16.1	26.6	37.1	11.4	8.6
여자		5.9	31.1	46.6	8.6	7.9
연령						
만18세 이상		11.7	27.3	41.4	12.1	7.4
만17세		11.5	28.8	41.5	9.4	8.8
만16세 이하		10.1	30.4	42.3	9.3	7.9
학교계열						
인문고교		13.6	31.0	39.1	9.3	7.1
실업고교		8.3	25.1	45.5	11.1	10.1
거주기간						
10년 이상		11.6	29.1	40.3	10.1	9.0
10년 미만		11.3	28.3	42.5	10.2	7.7
거주지역						
한강 남부		12.5	30.2	40.1	9.2	8.0
한강 북부		10.2	26.7	43.3	11.3	8.5
전 체		11.5	28.7	41.5	10.1	8.2

1) $\chi^2=31.39^{***}$ 2) N.S. 3) $\chi^2=14.26^{**}$ 4) N.S. 5) N.S.

[표-19] 자율적 활동 계획 실행하는 의식과 능력갖춤

반응 변인	자율활동 실행능력					계
	매우 잘 갖 춤	잘 갖 춤	그 저 그 렇 다	별 로 못 갖 춤	전 혀 못 갖 춤	
성별						
남자	4.1	18.8	31.0	37.1	9.0	100.0
여자	2.3	13.1	27.8	50.1	6.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1.2	16.8	28.9	46.9	6.3	100.0
만17세	5.0	14.6	30.3	42.1	7.9	100.0
만16세 이하	2.2	18.5	29.5	41.0	8.8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4.0	19.8	28.1	41.5	6.7	100.0
실업고교	2.3	10.8	31.5	45.6	9.8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3.5	15.5	29.1	43.5	8.3	100.0
10년 미만	3.1	16.8	29.9	42.6	7.7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3.6	19.2	27.7	43.1	6.3	100.0
한강 북부	2.8	12.1	31.9	43.0	10.2	100.0
전 체	3.3	16.1	29.5	43.1	8.0	100.0

1) $\chi^2=19.18^{***}$ 2) N.S. 3) $\chi^2=18.52^{***}$ 4) N.S. 5) $\chi^2=13.85^{**}$

[표-20] 정책과정 참여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

반응 변인	정책참여 활동내용					기 타	계
	시 행 정 책 지 지	정 책 의 견 제 시	계 획 의 제 시	정 책 집 행 감 시	정 책 효 과 평 가		
성별							
남자	14.4	24.0	29.8	7.5	20.6	3.6	100.0
여자	16.0	24.5	33.5	5.4	19.3	1.3	100.0
연령							
만18세 이상	16.0	23.0	29.7	6.6	23.0	1.6	100.0
만17세	15.0	24.6	32.5	6.9	17.9	3.1	100.0
만16세 이하	15.0	25.6	32.2	5.7	18.9	2.6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5.6	26.4	35.0	5.1	15.3	2.6	100.0
실업고교	14.4	21.2	26.7	8.6	26.7	2.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7.0	24.6	27.9	7.8	20.0	2.6	100.0
10년 미만	13.5	24.1	34.9	5.4	19.7	2.5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4.8	25.5	34.5	5.8	16.8	2.5	100.0
한강 북부	15.3	22.6	27.6	7.5	24.3	2.6	100.0
전 체	15.0	24.3	31.5	6.6	20.1	2.6	100.0

1) N.S. 2) N.S. 3) $\chi^2=27.81^{***}$ 4) N.S. 5) $\chi^2=12.34^*$

[표-21] 정책과정의 직접참여에 대한 생각

반응		정책결정 직접참여				계	
변인		당 연 히 참여해야 하	참여해야 하	그 저 그렇다	참여않 하	절 대 참 여 하	
성별							
남자		38.6	40.4	13.3	5.2	2.4	100.0
여자		45.4	41.5	9.5	2.5	1.1	100.0
연령							
만18세 이상		46.1	39.8	8.6	3.1	2.3	100.0
만17세		37.6	43.7	13.1	4.0	1.7	100.0
만16세 이하		46.2	36.4	12.0	4.9	0.4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46.3	37.7	10.2	3.6	2.2	100.0
실업고교		35.2	45.5	13.6	4.5	1.3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41.8	42.0	10.7	3.7	1.8	100.0
10년 미만		41.3	40.2	12.3	4.2	1.9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43.7	41.1	10.3	3.4	1.4	100.0
한강 북부		39.2	40.8	13.2	4.7	2.1	100.0
전 체		41.7	41.0	11.6	4.0	1.7	100.0

1) $\chi^2=12.66^*$ 2) N.S. 3) $\chi^2=14.61^{**}$ 4) N.S. 5) N.S.

[표-22] 정책과정 청소년참여의 가능성

반응		정책참여 가능성				계	
변인		매우 가능	가능함	그 저 그렇다	별로가 능안함	전혀가 능안함	
성별							
남자		8.5	23.9	16.9	31.4	19.4	100.0
여자		3.2	24.6	15.3	40.4	16.5	100.0
연령							
만18세 이상		5.9	25.8	15.6	36.3	16.4	100.0
만17세		6.0	22.5	15.0	36.3	20.2	100.0
만16세 이하		6.7	24.1	20.1	33.9	15.2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7.3	17.6	16.6	36.8	21.8	100.0
실업고교		4.3	33.4	16.1	33.7	12.6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6.1	22.1	16.2	36.8	18.8	100.0
10년 미만		6.0	25.9	16.6	34.4	17.2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5.4	21.1	15.4	37.2	20.9	100.0
한강 북부		6.9	27.7	17.7	33.3	14.4	100.0
전 체		6.1	23.9	16.4	35.5	18.1	100.0

1) $\chi^2=18.28^{**}$ 2) N.S. 3) $\chi^2=39.72^{***}$ 4) N.S. 5) $\chi^2=12.45^*$

[표-23] 정책결정 참여기회 제공시 참여정도

반응	정책참여 기회활용					계
	매 우 적 극적참여	참여함	그 저 그렇다	참여하 지않음	절대참 여않음	
변인						
성별						
남자	32.1	43.3	13.7	8.6	2.3	100.0
여자	36.6	47.2	11.7	4.3	0.2	100.0
연령						
만18세 이상	35.2	40.2	16.4	7.8	0.4	100.0
만17세	32.1	48.1	12.3	6.0	1.5	100.0
만16세 이하	37.4	44.9	9.7	6.2	1.8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5.3	46.8	11.7	5.1	1.0	100.0
실업고교	32.2	42.6	14.6	8.8	1.8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34.6	42.9	14.6	6.5	1.3	100.0
10년 미만	33.5	47.0	11.4	6.7	1.3	100.0
거주지역						
한강남부	35.3	47.0	12.3	4.3	1.1	100.0
한강북부	32.5	42.7	13.4	9.7	1.7	100.0
전 체	34.1	45.1	12.8	6.7	1.3	100.0

1) $\chi^2=17.47^{**}$ 2) N.S. 3) N.S. 4) N.S. 5) $\chi^2=12.59^*$

[표-24] 청소년 참여제도나 경로가 많이 있는가

반응	정책참여 제도경로					계
	매우 많다	많다	그 저 그렇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변인						
성별						
남자	3.0	5.1	11.6	49.8	30.5	100.0
여자	1.8	3.2	7.0	53.6	34.5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3	6.3	7.4	53.5	30.5	100.0
만17세	1.2	2.1	12.3	51.8	32.6	100.0
만16세 이하	5.3	5.3	6.6	50.4	32.3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3	5.1	8.9	50.8	31.9	100.0
실업고교	1.3	2.8	10.8	52.4	32.7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3.3	4.1	9.8	47.7	35.1	100.0
10년 미만	1.7	4.2	9.6	54.5	29.9	100.0
거주지역						
한강남부	2.2	3.1	8.7	51.4	34.7	100.0
한강북부	2.8	5.4	11.1	51.3	29.3	100.0
전 체	2.5	4.1	9.7	51.4	32.3	100.0

1) $\chi^2=10.80^*$ 2) $\chi^2=26.30^{***}$ 3) N.S. 4) N.S. 5) N.S.

[표-25] 청소년대표위원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반응	청소년위원회 도입					계
	반드시 필요	필요 한편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않음	전혀 필요 없음	
성별						
남자	30.7	42.9	15.2	7.1	4.1	100.0
여자	33.9	51.5	11.0	3.1	0.4	100.0
연령						
만18세 이상	38.3	43.4	14.1	3.9	0.4	100.0
만17세	27.2	50.9	13.7	5.2	2.9	100.0
만16세 이하	36.6	42.3	11.0	7.0	3.1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4.5	44.6	12.9	5.3	2.7	100.0
실업고교	28.9	49.7	14.1	5.3	2.0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33.3	46.0	13.5	4.6	2.6	100.0
10년 미만	31.0	47.5	13.3	6.0	2.3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32.9	48.6	11.9	4.3	2.3	100.0
한강 북부	31.4	44.3	15.1	6.6	2.6	100.0
전 체	32.2	46.7	13.3	5.3	2.5	100.0

1) $\chi^2=28.30^{***}$ 2) $\chi^2=20.11^{**}$ 3) N.S. 4) N.S. 5) N.S.

[표-26] 청소년위원회의 중요한 활동내용

반응	위원회 활동내용						계
	행사 계획 수행	정책 조언 평가	청소년 정책 제 정 보 공	프로 그램 제공	활성화 캠페인	기 타	
성별							
남자	22.8	16.9	16.5	31.8	8.8	3.2	100.0
여자	24.3	15.8	7.9	37.6	10.8	3.6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3.4	17.2	9.4	39.8	7.4	2.7	100.0
만17세	22.2	16.8	15.0	32.8	9.6	3.5	100.0
만16세 이하	25.2	15.0	10.6	33.2	11.9	4.0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22.2	18.9	13.9	31.1	10.5	3.4	100.0
실업고교	25.4	12.6	10.8	39.4	8.5	3.3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24.7	16.8	11.6	33.6	9.4	3.9	100.0
10년 미만	22.5	16.0	13.7	35.0	10.0	2.9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23.5	18.8	11.8	32.9	9.4	3.6	100.0
한강 북부	23.6	13.2	13.7	36.6	9.9	3.1	100.0
전 체	23.5	16.4	12.6	34.5	9.6	3.4	100.0

1) $\chi^2=18.13^{**}$ 2) N.S. 3) $\chi^2=14.38^*$ 4) N.S. 5) N.S.

[표-27] 청소년위원회 대표 선정방법

반응	위원회 선정방법					계
	학교별 대표로	학생근로비율	지역인구수 비례	희망자 공개모집	기타	
성별						
남자	14.9	20.2	12.1	49.7	3.2	100.0
여자	5.2	20.2	8.1	64.7	1.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11.4	22.4	7.5	56.1	2.7	100.0
만17세	10.4	18.1	11.3	57.9	2.3	100.0
만16세 이하	8.8	20.8	11.1	55.8	3.5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1.4	20.7	11.4	53.9	2.8	100.0
실업고교	9.1	19.4	8.8	60.2	2.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9.4	20.1	10.5	56.8	3.3	100.0
10년 미만	11.6	20.3	10.2	55.8	2.1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8.7	18.8	10.7	59.1	2.7	100.0
한강 북부	13.0	22.0	10.0	52.4	2.6	100.0
전 체	10.6	20.2	10.4	56.2	2.7	100.0

1) $\chi^2=37.05^{***}$ 2) N.S. 3) N.S. 4) N.S. 5) N.S.

[표-28, 29]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

반응	위원회 운영난점									계
	지원자 부족	호응 관심 부족	형식적 조직	민중 운영 어려움	사회 인식 미비	공정 선정 어려움	제안 반영 무리	일부 유리 사업	기타	
성별										
남자	8.4	16.7	16.5	8.7	22.8	4.1	16.1	6.3	0.6	100.0
여자	5.3	11.0	20.2	7.0	27.9	3.2	20.2	5.0	0.2	100.0
연령										
만18세 이상	5.6	12.5	17.1	8.2	27.6	3.8	17.7	7.4	0.2	100.0
만17세	6.9	16.0	18.4	7.3	24.6	3.3	17.6	5.5	0.4	100.0
만16세 이하	8.3	12.4	18.4	8.5	23.4	4.1	19.8	4.4	0.7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7.4	12.8	20.1	7.8	24.2	3.5	18.8	5.1	0.4	100.0
실업고교	6.4	15.8	15.6	7.9	26.4	4.0	16.7	6.6	0.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7.1	13.5	18.9	8.3	25.7	3.2	17.5	5.4	0.2	100.0
10년 미만	6.9	14.6	17.7	7.6	24.3	4.1	18.2	6.0	0.6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6.5	13.3	19.9	7.4	25.4	3.2	18.6	5.2	0.4	100.0
한강 북부	7.6	15.1	16.1	8.5	24.5	4.3	17.1	6.2	0.5	100.0
전 체	7.0	14.1	18.3	7.9	25.0	3.7	18.0	5.6	0.4	100.0

[표-30] 청소년창안(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견해

반응		청소년창안제 의견				계
변인		매우 바람직	바람직한 편	그저 그렇다	별로 바람직 안함	전혀 바람직 안함
성별						
남자		33.5	44.4	14.1	5.5	2.6
여자		36.3	48.4	11.3	3.4	0.7
연령						
만18세 이상		41.6	42.7	12.2	3.1	0.4
만17세		30.5	50.9	11.9	4.4	2.3
만16세 이하		36.6	41.0	15.4	5.7	1.3
학교계열						
인문고교		33.6	45.6	12.6	6.0	2.2
실업고교		36.5	47.1	13.1	2.3	1.0
거주기간						
10년 이상		37.6	45.5	10.7	3.9	2.2
10년 미만		32.0%	46.8	14.8	5.0	1.3
거주지역						
한강 남부		35.1	47.6	11.6	4.5	1.3
한강 북부		34.1	44.3	14.7	4.5	2.4
전 체		34.7	46.2	12.9	4.5	1.7

1) $\chi^2=10.55^*$ 2) $\chi^2=17.84^*$ 3) $\chi^2=10.21^*$ 4) N.S. 5) N.S.

[표-31] 청소년창안제 참여의향

반응		창안제 참여의향				계
변인		적극 참여함	참여해봄	그저 그렇다	참여하 지않음	절대참 여않함
성별						
남자		10.3	46.5	28.7	10.1	4.3
여자		9.0	55.4	26.6	7.7	1.4
연령						
만18세 이상		7.8	60.5	25.4	5.1	1.2
만17세		9.4	46.6	29.4	11.1	3.5
만16세 이하		11.5	48.0	28.6	8.8	3.1
학교계열						
인문고교		11.2	49.1	27.5	9.0	3.3
실업고교		7.5	52.8	28.1	9.0	2.5
거주기간						
10년 이상		10.9	52.5	24.7	9.6	2.2
10년 미만		8.7	48.5	30.8	8.5	3.7
거주지역						
한강 남부		9.0	50.5	29.3	8.0	3.3
한강 북부		10.4	50.6	26.0	10.4	2.6
전 체		9.6	50.5	27.9	9.0	3.0

1) $\chi^2=13.41^{**}$ 2) $\chi^2=19.67^*$ 3) N.S. 4) N.S. 5) N.S.

[표-32,33] 창안제 참여시 아이디어 제안 분야(복수응답)

반응 변인	창안 제안 분야													계
	수련 여가 생활	시설 전용 공간	자원 봉사 활동	폭력 예방 인권	어려운 청소년 복지	문 청소년 지	제 청소년 지	유해 환경 개선	청소년 참여 확	국내외 교류	정보화 능력 향	지역민 관	지역 심	건전 자원 소비 생활
성별														
남자	11.4	21.2	48	192	5.4	6.2	5.2	3.1	7.7	7.8	2.5	1.4	4.0	100.0
여자	14.3	26.2	26	13.8	5.9	8.0	4.2	1.7	10.8	6.8	1.2	1.0	3.7	100.0
연령														
만18세 이상	14.5	27.9	2.1	17.2	4.2	5.7	4.0	3.1	8.8	6.5	1.5	0.8	3.8	100.0
만17세	12.1	21.9	4.5	16.9	5.3	6.7	5.1	2.4	8.6	8.2	2.3	1.2	4.7	100.0
만16세 이하	11.4	22.6	4.1	16.3	7.5	8.3	4.9	1.9	10.7	7.1	1.7	1.5	1.9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1.8	25.1	4.1	15.3	5.7	5.9	5.4	2.3	10.1	7.7	2.1	1.1	3.4	100.0
실업고교	13.9	21.4	3.3	18.8	5.6	8.6	3.7	2.7	7.8	6.8	1.6	1.3	4.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4.0	23.8	3.8	16.0	5.1	6.7	5.2	2.1	9.3	8.0	1.9	1.2	3.1	100.0
10년 미만	11.4	23.4	3.7	17.3	6.2	7.3	4.3	2.8	9.1	6.9	2.0	1.2	4.5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2.2	24.8	3.7	15.6	4.9	6.0	5.0	2.9	9.9	8.2	1.7	1.1	4.0	100.0
한강 북부	13.5	21.8	3.8	18.3	6.5	8.4	4.3	1.9	8.2	6.3	2.2	1.3	3.6	100.0
전 체	12.7	23.5	3.7	16.7	5.5	7.0	4.7	2.5	9.2	7.4	1.9	1.2	3.8	100.0

[표-34] 청소년창안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

반응 변인	창안제도 보완점							계
	제안 반	안 드 시 영	청소년 참여 등록	상시 의견 수렴	제안 직접 수행	지역별 의견 수렴	기 타	
성별								
남자	13.6		25.5	38.3	16.7	4.6	1.3	100.0
여자	10.0		19.5	48.6	12.9	8.1	0.9	100.0
연령								
만18세 이상	11.4		16.9	47.5	16.3	6.7	1.2	100.0
만17세	12.3		23.9	41.9	14.4	6.4	1.1	100.0
만16세 이하	10.8		27.9	40.1	14.0	5.9	1.4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4.0		23.9	43.6	12.0	4.9	1.6	100.0
실업고교	8.9		21.4	42.0	19.1	8.1	0.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1.8		21.8	42.9	17.3	4.9	1.3	100.0
10년 미만	12.1		23.7	43.2	12.8	7.2	1.0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2.4		22.4	45.2	12.9	5.6	1.5	100.0
한강 북부	11.4		23.2	40.3	17.4	7.0	0.7	100.0
전 체	11.9		22.7	43.1	14.8	6.2	1.1	100.0

1) $\chi^2=19.93^{**}$ 2) N.S. 3) $\chi^2=19.85^{**}$ 4) N.S. 5) N.S.

[표-35]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수시 의견제안

반응		행정정보 공개				계
변인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렇다	별로 바람직안함	전혀 바람직안함	
성별						
남자	24.8	40.2	23.5	8.5	3.0	100.0
여자	22.7	44.5	25.8	5.6	1.3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4.6	43.4	23.0	6.6	2.3	100.0
만17세	24.0	41.8	24.8	7.7	1.7	100.0
만16세 이하	22.5	44.1	24.2	6.2	3.1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27.1	40.7	22.9	7.0	2.2	100.0
실업고교	18.9	44.6	27.0	7.3	2.3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25.1	42.1	22.7	7.9	2.2	100.0
10년 미만	22.5	42.6	26.0	6.6	2.3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24.0	42.4	24.5	7.4	1.6	100.0
한강 북부	23.5	42.2	24.6	6.9	2.8	100.0
전 체	23.8	42.3	24.6	7.2	2.2	100.0

1) N.S. 2) N.S. 3) N.S. 4) N.S. 5) N.S.

[표-36] 정책보고회를 통한 사업홍보와 의견수렴

반응		정책보고회 정례화				계
변인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렇다	별로 바람직안함	전혀 바람직안함	
성별						
남자	22.0	40.4	30.6	6.2	0.8	100.0
여자	24.3	43.9	27.7	3.6	0.5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5.0	42.6	28.9	3.1	0.4	100.0
만17세	23.2	39.5	30.1	6.1	1.0	100.0
만16세 이하	21.6	46.3	26.9	5.3	0.0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25.6	43.8	24.4	5.5	0.7	100.0
실업고교	19.2	39.6	36.1	4.5	0.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23.4	41.4	29.7	4.6	0.9	100.0
10년 미만	22.8	42.3	29.0	5.6	0.4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25.8	42.8	25.6	5.1	0.7	100.0
한강 북부	19.5	41.3	33.5	5.2	0.5	100.0
전 체	23.1	42.2	29.0	5.1	0.6	100.0

1) N.S. 2) N.S. 3) $\chi^2=16.82^{**}$ 4) N.S. 5) $\chi^2=9.62^*$

[표-37] 정책계획과 수행시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반응		정책입안 설문조사				계
변인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 저 그렇다	별 로 바 람직안함	전 혀 바 람직안함
성별						
남자		39.4	35.5	18.5	4.9	1.7
여자		44.3	40.7	11.2	3.1	0.7
연령						
만18세 이상		50.0	34.8	13.3	1.6	0.4
만17세		38.2	41.5	14.9	3.8	1.7
만16세 이하		41.4	32.2	17.2	7.9	1.3
학교계열						
인문고교		44.8	34.4	14.8	5.0	1.0
실업고교		37.1	42.7	15.9	2.8	1.5
거주기간						
10년 이상		42.5	38.1	14.0	4.2	1.3
10년 미만		40.5	37.8	16.4	4.1	1.2
거주지역						
한강 남부		43.0	38.0	15.2	2.9	0.9
한강 북부		39.7	37.8	15.4	5.5	1.7
전 체		41.6	37.9	15.3	4.0	1.2

1) $\chi^2=15.36^{**}$ 2) $\chi^2=25.37^{**}$ 3) $\chi^2=10.99^*$ 4) N.S. 5) N.S.

[표-38] 공청회 등을 통한 청소년과의 대화

반응		공청회 대화기회				계
변인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 저 그렇다	별 로 바 람직안함	전 혀 바 람직안함
성별						
남자		25.8	40.5	22.2	7.9	3.6
여자		36.0	40.0	19.6	3.4	1.1
연령						
만18세 이상		30.1	44.1	20.7	3.9	1.2
만17세		31.2	38.7	20.5	7.1	2.5
만16세 이하		28.6	40.1	22.0	5.3	4.0
학교계열						
인문고교		31.5	40.8	18.4	6.4	2.9
실업고교		28.7	39.3	25.2	5.0	1.8
거주기간						
10년 이상		31.2	38.9	20.5	6.8	2.6
10년 미만		29.5	41.3	21.8	5.0	2.3
거주지역						
한강 남부		30.6	41.6	20.1	5.6	2.2
한강 북부		30.3	38.2	22.5	6.2	2.8
전 체		30.5	40.1	21.1	5.8	2.5

1) $\chi^2=23.51^{***}$ 2) N.S. 3) N.S. 4) N.S. 5) N.S.

[표-39] 청소년대표 참가하는 회의개최 정책반영

반응	대표참여 회의개최					계
변인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 저 그렇다	별 로 바 람직안함	전 혀 바 람직안함	
성 별						
남자	29.0	39.4	22.4	6.8	2.4	100.0
여자	36.5	40.1	19.0	3.6	0.7	100.0
연 령						
만18세 이상	36.3	39.5	19.9	3.9	0.4	100.0
만17세	30.5	41.2	20.0	5.7	2.7	100.0
만16세 이하	31.1	37.3	24.4	6.2	0.9	100.0
학 교 계 열						
인문고교	34.9	38.2	19.7	5.5	1.7	100.0
실업고교	28.6	41.8	22.8	5.3	1.5	100.0
거 주 기 간						
10년 이상	33.3	41.9	18.0	5.5	1.3	100.0
10년 미만	31.2	37.6	23.8	5.4	1.9	100.0
거 주 지 역						
한강 남부	31.5	41.8	20.8	4.2	1.6	100.0
한강 북부	33.4	36.5	21.2	7.2	1.7	100.0
전 체	32.3	39.5	21.0	5.5	1.6	100.0

1) N.S. 2) N.S. 3) N.S. 4) N.S. 5) N.S.

[표-40] 지역신문 방송투고 통한 의견피력

반응	신문방송 의견투고					계
변인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 저 그렇다	별 로 바 람직안함	전 혀 바 람직안함	
성 별						
남자	29.4	34.5	24.9	8.1	3.0	100.0
여자	42.0	36.4	17.8	2.7	0.7	100.0
연 령						
만18세 이상	38.7	34.4	20.3	5.5	1.2	100.0
만17세	32.8	35.1	22.6	7.1	2.3	100.0
만16세 이하	35.7	38.4	20.5	3.1	2.2	100.0
학 교 계 열						
인문고교	34.9	35.9	21.4	6.0	1.7	100.0
실업고교	35.4	35.4	21.7	5.3	2.3	100.0
거 주 기 간						
10년 이상	35.7	36.1	22.5	4.4	1.3	100.0
10년 미만	34.5	35.1	21.0	6.9	2.5	100.0
거 주 지 역						
한강 남부	34.2	37.1	20.4	6.9	2.4	100.0
한강 북부	36.3	33.7	23.2	5.5	1.4	100.0
전 체	35.1	35.6	21.6	5.8	2.0	100.0

1) $\chi^2=35.98^{***}$ 2) N.S. 3) N.S. 4) N.S. 5) N.S.

[표-41] 정책평가와 의견수렴위한 공식기구 제도운영

반응 변인	의견수렴 공식기구					계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 저 그렇다	별 로 바 람직안함	전 혀 바 람직안함	
성별						
남자	30.0	37.7	24.5	6.0	1.7	100.0
여자	44.5	37.1	15.1	2.2	1.1	100.0
연령						
만18세 이상	42.4	36.1	18.4	2.7	0.4	100.0
만17세	33.2	37.4	22.5	5.2	1.7	100.0
만16세 이하	37.6	40.3	16.4	3.5	2.2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8.3	39.3	16.2	4.3	1.9	100.0
실업고교	33.9	34.9	26.1	4.3	0.8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37.4	38.1	19.0	3.7	1.8	100.0
10년 미만	35.7	36.9	21.4	4.8	1.2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38.3	39.5	17.1	3.6	1.4	100.0
한강 북부	34.3	34.8	24.3	5.2	1.4	100.0
전 체	36.6	37.5	20.2	4.3	1.4	100.0

1) $\chi^2=33.27^{***}$ 2) N.S. 3) $\chi^2=16.05^{**}$ 4) N.S. 5) $\chi^2=9.97^*$

[표-42] 정책건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반응 변인	정책개선 캠페인					계
	매 우 바람직	대체로 바람직	그 저 그렇다	별 로 바 람직안함	전 혀 바 람직안함	
성별						
남자	26.3	32.9	25.6	10.5	4.7	100.0
여자	25.9	33.9	30.1	8.3	1.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6.6	34.0	30.1	7.4	2.0	100.0
만17세	25.5	33.0	27.1	10.4	4.0	100.0
만16세 이하	26.4	34.4	25.1	10.1	4.0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25.4	32.8	26.6	10.5	4.6	100.0
실업고교	27.0	34.3	29.0	8.1	1.8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26.6	31.4	29.5	9.6	2.8	100.0
10년 미만	25.6	34.7	26.2	9.4	4.0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24.0	33.2	29.4	9.7	3.6	100.0
한강 북부	28.9	32.9	25.6	9.2	3.3	100.0
전 체	26.1	33.1	27.8	9.5	3.5	100.0

1) N.S. 2) N.S. 3) N.S. 4) N.S. 5) N.S.

[표-43] 지역 청소년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반응	지역정책 인지정도					계
	매우 알고 있음	잘 알고 있는 편	조금 알고 있음	거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변인						
성별						
남자	3.4	7.9	13.5	44.1	31.1	100.0
여자	0.4	4.7	11.0	46.3	37.5	100.0
연령						
만18세 이상	0.8	5.9	10.2	47.7	35.5	100.0
만17세	2.3	5.6	12.3	45.6	34.2	100.0
만16세 이하	2.6	7.4	14.5	44.5	30.4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2.9	7.9	12.9	43.2	33.1	100.0
실업고교	0.8	4.3	11.6	48.1	35.3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2.0	6.1	11.1	45.5	35.3	100.0
10년 미만	2.1	6.7	13.5	44.9	32.8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3	5.6	11.7	48.2	33.2	100.0
한강 북부	3.1	7.3	13.2	41.4	35.0	100.0
전 체	2.0	6.3	12.4	45.2	34.0	100.0

1) $\chi^2=18.31^{**}$ 2) N.S. 3) $\chi^2=12.07^*$ 4) N.S. 5) N.S.

[표-44] 지역 청소년행사 프로그램 참여정도

반응	행사사업 참여정도					계
	매우 적극 참여	다 소 참 여 하는 편	그 저 그 렇 다	별 로 참 여 않 는 편	전 혀 참 여 않 음	
변인						
성별						
남자	2.4	10.5	13.7	24.4	49.0	100.0
여자	0.2	4.0	9.4	27.9	58.4	100.0
연령						
만18세 이상	0.4	2.7	10.5	26.2	60.2	100.0
만17세	1.5	8.1	11.0	26.9	52.5	100.0
만16세 이하	1.8	11.5	14.5	24.7	47.6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2.2	9.4	14.2	25.6	48.5	100.0
실업고교	0.3	5.0	8.3	26.4	59.9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9.6	11.5	22.2	55.1	100.0
10년 미만	1.3	6.0	12.1	29.3	51.3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0.5	6.5	13.4	26.0	53.6	100.0
한강 북부	2.6	9.0	9.9	25.8	52.7	100.0
전 체	1.4	7.6	11.9	25.9	53.2	100.0

1) $\chi^2=30.63^{***}$ 2) $\chi^2=20.95^{**}$ 3) $\chi^2=25.29^{***}$ 4) $\chi^2=9.64^*$ 5) $\chi^2=11.47^*$

[표-45] 지역 청소년프로그램 불참시 이유

반응		프로그램 불참이유				계
변인	재미 없어서	시간 없어서	행사정보 없어서	친구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성별						
남자	12.8	15.4	54.4	4.3	13.0	100.0
여자	11.0	10.8	68.2	1.1	8.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9.8	13.3	62.0	2.0	12.9	100.0
만17세	13.0	13.6	60.0	2.3	11.1	100.0
만16세 이하	12.8	12.3	63.0	4.0	7.9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1.2	17.2	58.9	3.6	9.1	100.0
실업고교	13.1	7.3	63.6	1.8	14.1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1.6	12.0	62.6	3.1	10.7	100.0
10년 미만	12.4	14.5	59.1	2.7	11.4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1.1	16.5	60.8	2.2	9.4	100.0
한강 북부	13.2	9.0	60.5	3.8	13.5	100.0
전 체	12.0	13.2	60.7	2.9	11.2	100.0

1) $\chi^2=24.65^{***}$ 2) N.S. 3) $\chi^2=27.18^{***}$ 4) N.S. 5) $\chi^2=16.82^{**}$

[표-46] 지역 청소년사업 과정 청소년의견 반영정도

반응		지역의견 반영정도				계
변인	매우 잘반영	잘반영 되는데	그저 그렇다	별로반 영안됨	전혀반 영안됨	
성별						
남자	3.0	5.6	21.1	35.6	34.7	100.0
여자	1.4	2.0	19.2	40.4	37.0	100.0
연령						
만18세 이상	0.8	3.6	18.3	42.1	35.3	100.0
만17세	1.9	4.0	21.9	36.5	35.8	100.0
만16세 이하	4.8	4.8	18.1	37.9	34.4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3.4	5.2	19.3	34.0	38.1	100.0
실업고교	0.5	2.3	21.7	43.4	32.1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2.0	3.3	19.0	36.5	39.3	100.0
10년 미만	2.5	4.6	21.7	39.1	32.1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5	4.2	18.5	37.7	38.1	100.0
한강 북부	3.3	3.8	22.7	37.7	32.5	100.0
전 체	2.3	4.0	20.3	37.7	35.7	100.0

1) $\chi^2=13.13^*$ 2) N.S. 3) $\chi^2=22.65^{***}$ 4) N.S. 5) N.S.

[표-47] 청소년복지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방법

반응		내용제안 참여방법						계
변인		기관직접제안	단체통해제안	신문방송 활용	청소년업해 모동	공청회견시 의제	반상회견시 안제	기 타
성별								
남자		10.0	18.8	19.2	31.8	8.7	5.1	6.4
여자		5.0	19.9	21.0	37.8	7.9	4.5	3.8
연령								
만18세 이상		7.5	23.6	14.2	39.4	7.5	4.3	3.5
만17세		7.9	17.2	22.8	32.6	9.4	4.4	5.6
만16세 이하		7.5	19.9	19.9	33.6	7.1	5.8	6.2
학교계열								
인문고교		7.9	18.4	20.9	33.1	8.3	5.2	6.2
실업고교		7.3	20.8	18.7	36.5	8.4	4.6	3.8
거주기간								
10년 이상		8.4	22.0	19.6	34.7	7.5	3.5	4.4
10년 미만		6.9	17.2	20.3	34.4	9.1	6.2	6.0
거주지역								
한강 남부		7.6	16.7	22.5	34.2	8.3	5.3	5.4
한강 북부		7.9	22.6	16.7	35.0	8.3	4.5	5.0
전 체		7.7	19.2	20.0	34.6	8.3	4.9	5.2

1) $\chi^2=14.19^*$ 2) N.S. 3) N.S. 4) N.S. 5) N.S.

[표-48] 청소년참여활동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반응		청소년참여 의미					계
변인		주인식의 함양	민주시민의식	합리적결정능력	정책에견영의반	지역문제해결	
성별							
남자		13.4	24.7	27.4	29.8	4.7	100.0
여자		13.4	19.3	27.0	39.0	1.4	100.0
연령							
만18세 이상		12.9	21.5	24.6	38.3	2.7	100.0
만17세		13.1	26.4	26.4	30.2	4.0	100.0
만16세 이하		14.6	15.0	30.5	37.6	2.2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4.6	25.2	23.1	35.1	2.1	100.0
실업고교		11.6	18.4	33.0	32.5	4.5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3.8	22.2	25.9	35.2	2.9	100.0
10년 미만		13.0	22.4	28.0	33.1	3.5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3.5	26.1	23.7	34.3	2.4	100.0
한강 북부		13.2	17.3	31.7	33.6	4.3	100.0
전 체		13.4	22.2	27.2	34.0	3.2	100.0

1) $\chi^2=17.69^{**}$ 2) $\chi^2=16.96^*$ 3) $\chi^2=19.95^{***}$ 4) N.S. 5) $\chi^2=16.64^{**}$

[표-49,50] 청소년 참여활동시의 어려운 점(복수응답)

반응		참여활동 어려움								계
변인		시간적 유부	사회적 인부	참여 방법 모름	청소년 심부	참여 성과 부족	관청 조부	참여 제도 부족	정책 정보 부족	
성별										
남자		23.3	15.7	14.0	9.7	14.1	11.1	5.6	6.7	100.0
여자		23.7	12.1	13.9	8.2	15.6	10.6	7.1	8.8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3.1	12.0	15.0	8.7	16.0	10.8	6.1	8.3	100.0
만17세		23.0	14.5	13.4	9.2	15.0	10.3	6.9	7.8	100.0
만16세 이하		25.4	14.6	14.6	9.4	13.0	11.4	5.0	6.4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26.5	14.3	11.9	8.4	13.8	11.4	6.5	7.3	100.0
실업고교		19.0	13.6	17.0	9.9	16.2	10.2	5.9	8.1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25.9	14.0	12.5	8.3	14.7	11.4	5.5	7.7	100.0
10년 미만		21.2	14.1	15.4	9.6	14.8	10.3	7.0	7.6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26.2	13.3	11.6	8.9	15.1	11.2	6.0	7.8	100.0
한강 북부		19.8	15.1	17.1	9.1	14.5	10.6	6.6	7.4	100.0
전 체		23.4	14.1	14.0	9.0	14.8	10.9	6.3	7.6	100.0

[표-51, 52]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복수응답)

반응		활성화 선행사항						계
변인	참여 제도 확충	참여 의식 고양	권위 적 행 탈	언론 역 활 강 화	기성 인 전 환	참여 방법 홍보	기 타	
성별								
남자	20.1	20.7	15.4	9.1	27.7	6.8	0.2	100.0
여자	19.7	22.3	14.5	6.0	29.3	7.8	0.5	100.0
연령								
만18세 이상	20.3	21.5	12.9	6.8	30.1	8.2	0.2	100.0
만17세	19.8	22.2	16.0	7.0	28.1	6.5	0.4	100.0
만16세 이하	19.7	20.4	15.3	8.9	27.2	8.2	0.2	100.0
학교계열								
인문고교	19.5	20.6	18.9	7.6	26.8	6.3	0.3	100.0
실업고교	20.6	22.3	9.4	7.7	30.8	8.6	0.4	100.0
거주기간								
10년 이상	19.3	19.7	17.3	6.7	29.5	7.2	0.2	100.0
10년 미만	20.6	22.9	13.0	8.5	27.5	7.2	0.4	100.0
거주지역								
한강 남부	19.8	22.1	16.6	6.9	27.5	6.7	0.4	100.0
한강 북부	20.2	20.5	13.0	8.6	29.6	7.7	0.2	100.0
전 체	19.9	21.4	15.1	7.6	28.4	7.2	0.3	100.0

